

Songs sung when weeding a rice
paddy of Gyeonggi Province, Korea

Book I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제 I 권

by Yi, Sora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논맴소리 資料叢書

제1권

Songs sung when weeding a rice paddy of Gyeonggi Province, Korea

(Book I) by Yi, Sora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발간사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선도해온 주역이자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온 우리 나라 문화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문화원 경기도지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도내 각시·군에 산재한 전래민요의 사료 조사, 수집계획에 착수하여 이제 『경기민요 제1권 논맴소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와 환경변화 등 전래민요 보유자들의 연령이 70-80세를 넘는 시점에서 조금만 더 방치하면 소중한 무형의 유산이며 경기도 지역의 개성있는 모든 민요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논맴소리, 모내기노래, 길쌈노래, 밭갈이노래, 타작요, 나무꾼소리, 디딜방아소리, 집터다지는소리』 등 민요전체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마무리 짓고 자료집을 발간하고 싶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경기민요 제1권 논맴소리』는 다행스럽게도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특별사업비 지원에 힘입어 사료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집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지회에서는 남아있는 각종 민요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맴소리를 통하여 많은 도민이 경기민요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민요를 사랑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분들께 소중한 자료로 남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 사명감을 갖고 집필해주신 문화재청 이소라 전문위원, 본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손학규 경기도지사 및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 1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송 승 영

머리말



우리나라는 고래(古來)로 농업을 중시해 왔던 고장인 고로 민요의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요(農謠)인데, 농요의 대중을 차지하는 것은 논매면서 불렀던 소리(논맴소리)들이다.

논맴소리가 모심는소리보다 더욱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논맴소리의 창출시기가 더 오래되었음을 말해 준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산과 큰강들은 인문을 나누는 역할을 하였다. 한강은 강북과 한강이남의 문화를 나누었고, 산들은 시·군간의 경계를 이루었다. 이렇듯 자연환경에 의해 테두리가 쳐지는 시·군의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동안 나름대로의 개성을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치중했던 남한지역의 들녘에서 논맴소리가 사라진 것은 벼농사의 대부분에 제초제를 썼던 1970년대 이후 부터이다. 퇴약별 아래에서 앞드려 논을 매는 작업을 지루하고 힘든 일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의 지혜로 두레를 짜서 공동작업을 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제초제를 사용하자 두레로 논맴 필요가 없어지고 논맴소리는 단지 소리애비(메김소리꾼, 선소리꾼)의 기억속에서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 5,60세가 넘던소리애비들은 2000년대인 오늘에 와서는 거의 고인이 되셨다.

본서의 논맴소리들은 주로 1980년대에 그 지역의 토민(土民; 그 지역에 10세이전부터 계속 살아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녹음해 둔 필자의 자료가 바탕이 되었다. 모두 필자 스스로가 녹음하여 채보하였고 정리하였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논맴소리의 종류별 그 문화영역(cultural area)을 파악하고, 그 지역이 어떠한 음악어법(旋法)을 구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일은 농요연구의 초창기부터 필자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기획으로 경기도 지역의 문화영역지도를 그리기 위

한 논맴소리 자료집을 집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논맴소리의 문화영역처럼 망라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인문학분야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이는 한국학의 기초로서 후대에 까지 참고가 되리라 기대된다.

가창자들과 녹음 협조자들 및 본서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2. 11월 갑천변에서.

집필자 李素羅 (문화재청 전문위원)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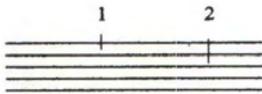
멕받형식 : 멕이고 받는 가창방법.

설소리꾼이 멕이는 대로 받음소리꾼들은 매번 같은 받음구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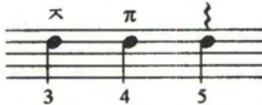
(멕) 멕김선율, 멕김소리

(받) 받음선율, 받음소리

T.P 이조점(移調点)



1, 2 내재박(內在拍) 또는 내재마디



3. 기준길이보다 짧은 음
4. 기준길이보다 약간 긴 음
5. 약한 요성(搖聲)



6. 음의 끝을 끌어내리며 점점 사라짐(退聲)
7. 굴리면서 내려옴



8. 곧게 뻗다가 요성함
9. 제자리에서 굴러내는 음(轉聲)
10. 속소리



11. 미묘하게 약간 낮은 느낌의 음
12. 미묘하게 약간 낮은 느낌의 음

13. (토민)

13. 토박이(해당지역에 태어나서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

14. 素 96-11-4B

14. 필자 소장 of 녹음 테잎 번호

MD 99-8-30

15. <SR>

15. 이소라의 해석 및 교정 악보

선법의 명칭과 약문자 例

선법	약문자	구성음관계	선법	약문자	구성음관계
도선법	D1	도레미솔라	미선법	M1	미솔라도레
	D2	도 미솔라		M2	미 라도레
	D3	도 미솔		M3	미 라도
	D4	도레미솔		M4	미솔라도
	D5	도(레)미솔라시	모선법	P	증3도+단3도
	D6	(기타)	모노래선법	PD	모선법과 도선법의 공존
* 약문자 6은 해당 선법의 기타 구성관계를 표시		PM		모선법과 미선법의 공존	
		PDM		모선법과 도선법, 미선법의 공존	
솔선법	S1	솔라도레미	래선법	R1	레미솔라시도
	S2	솔 도레미	육자배기선법	Y1	미솔라시도(레)
	S3	솔 도레		Y2	미 라시도(레)
	S4	솔 라도레	라선법	L1	라도레미솔
	S5	솔(라)도레미파		L2	라 레미솔
	S6	(기타)		L3	라 레미

* S3, L3, R3은 서로 상통한다.

* S4와 R4는 상통한다.

t1 : 기음중기 t4 : 4도윗음중기 t5 : 5도윗음중지 t5g : (5도윗음중기 단 퇴성함)

t꺾대4 : 꺾대음으로부터 4도윗음중지

v1 : 기음요성 v4 : 4도윗음요성 v5 : 5도윗음 요성

여 백

발간사 / 3

머리말 / 4

일러두기 / 6

1. 서(序)	/ II
2. 게재지역과 가창자	/ 15
3. 가평군(加平郡)의 논맴소리 <경기 1~18>	/ 21
3.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2> / 21	
3.2 가평군 논맴소리의 종류 / 24	
3.3 가평군 논맴소리의 성격 / 28	
4. 고양시의 논맴소리 <경기 19~50>	/ 55
4.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3, 4> / 55	
4.2 고양시 논맴소리의 종류 / 60	
4.3 고양시 논맴소리의 성격 / 68	
5. 과천시시의 논맴소리 <경기 51~67>	/ 121
5.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5, 6> / 121	
5.2 과천시 논맴소리의 종류 / 125	
5.3 과천시 논맴소리의 성격 / 130	

6. 광명시의 논맴소리 <경기 68~71> / 157
- 6.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7> / 157
- 6.2 광명시 논맴소리의 종류 / 160
- 6.3 광명시 논맴소리의 성격 / 163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89> / 169
- 7.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8, 9> / 169
- 7.2 광주군 논맴소리의 종류 / 175
- 7.3 광주군 논맴소리의 성격 / 182
8. 구리시의 논맴소리 <경기 90~97> / 203
- 8.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0> / 203
- 8.2 구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90~97> / 207
- 8.3 구리시 논맴소리의 성격 / 210
9. 군포시의 논맴소리 <경기 98~101> / 221
- 9.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1> / 221
- 9.2 군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98~101> / 224
- 9.3 군포시 논맴소리의 성격 / 228
10. 김포시의 논맴소리 <경기 102~131> / 237
- 10.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2, 13> / 237
- 10.2 김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102~131> / 242
- 10.3 김포시 논맴소리의 성격 / 250
11. 남양주시의 논맴소리 <경기 132~148> / 291
- 11.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4, 15> / 291
- 11.2 남양주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132~148> / 297
- 11.3 남양주시 논맴소리의 성격 / 303
- 그림차례 / 328
- 표차례 / 328
- 약보차례 / 329

1. 서(序)

논맴소리란 논맴 때에 불러왔던 소리를 일컫는다. 민요를 ①노동요(일노래) ②의식요 ③놀이요 ④흥민요 ⑤동요로 분류할 때, 논맴소리는 노동요 중의 농요에 속한다.

본서에 게재하는 경기도의 범위는 2002년 현재 행정구역상의 경기도로 제한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제외되며,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파주·평택·하남·화성시의 24개 시와 가평·광주·여주·연천·양주·양평·포천군의 7개군 등 31개 시군의 논맴소리를 다룬다. 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리가 동으로 바뀌고 읍면이 구로 통폐합되면서 읍면의 이름조차 사라진 것처럼(예.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가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으로 바뀜) 복잡할 경우는 시라는 이름하에서도 편의상 조사당시의 읍면리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 우리나라 농법에 제초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¹⁾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벼농사의 대부분에 제초제가 쓰인 관계로 재래식 논매기가 사라지고 논맴소리도 부르지않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논매던 시절의 선소리꾼들의 기억속에서만 그 노래들이 존재해 있었다.

1) 이은웅, 『水稻作』 四訂(향문사, 1991), 241쪽. 우리나라에 2,4-D(1944년에 Mitchell 등이 제조한 選擇性除草劑)가 1956년에 입수되어 그 시험결과가 1958년에 보고되었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 2,4-D·PCP·MCP 등의 제초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마세트(Machete)·탁크(TOK)·사단(Saturn) 등이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1984년~1989년 8월의 기간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읍면별 농요를 그 당시 70세 전후의 토민(해당지역에 10세 미만부터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골고루 녹음하였고 그 이후, 『파주민요론』²⁾과 김포군지·안양시지·안산시지·포천군지·연천군지의 민요편 집필의 기회에 그 해당 시군의 리별로 설문지를 돌리고 보충녹음을 하였다. 또한 1999년도에는 구리시와 하남시 및 수원시, 2001년도에는 화성시, 2002년도에는 군포시·동두천시·부천시·의정부시의 민요녹음을 보충 실시하였다.

각 농요의 전파범위와 그 양상은 농요녹음의 초창기부터 필자의 관심사였다. 그간의 집필활동을 통해 늘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왔으나, 제3권에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총괄할 것이다.

모심는 소리의 민요권에 의하면 경기지방은 중부와 남부, 서북부 및 동부로 나눌 수 있다. 중부경기도는 고양·서울 일부·과천시를 중심으로하는 열소리 지대이고 남부경기도는 안성·용인·이천·동부 평택시 방면의 여기도하나 형(型) 지대이다. 서북부경기도는 허나기로구나 형을 부르며 북부 파주시, 연천군 및 서북부 포천군 부근이 이에 해당한다. 동부경기도는 강원도의 영향권으로 가평군, 양평군 및 동북부 여주군 쪽이 이에 속한다.³⁾ 본고에서는 이 민요권 분류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것이다.

경기도의 초기 벼농사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김포와 고양시 일산지구의 토탄층 또는 청회색층에서 발굴된 탄화미, 여주군 혼암리 12호·14호 주거지에서 나온 탄화미, 강화군 우도(牛島) 패총에서 나온 볍씨자국 토기편,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및 하남시 미사리 볍씨유적 등에 의해 무문토기시대 보다 더 이전인 즐문토기시대에 까지 벼 전래의 상한선을 그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⁴⁾

두레(마을의 공동작업형태)는 일반적으로 모낼 적엔 안 서고 음력 6월경 논김맷 때에 섰다가 논매기가 끝나는 음력 7월 7일 내지 백중에 호미씻이를 하면서 파한다. 논맴소리는 주로 두레논을 매거나 또는 품앗이하여 여럿이 논을 맷 때에 부른다. 논을 3회(고양시에서는 애벌·두벌·삼동맨다라고 함에 비해 안성시에서는 아시 또는 아이·이듬·세벌맨다라고 한다) 맷는 곳이 많다. 경기도에서는 애벌(아시) 매기는 호미로 하는 경향이며 세벌은 손으로 흙

2) 파주문화원 1997년 刊.

3) 이소라, 『파주민요론』, 전계서, 108~113쪽.

4) 안승모, 『동아시아 선사시대의 농경과 생업』(학연문화사, 1998), 17~18쪽.

친다. 두벌(이듬)은 호미로 매는 곳도 있고 손으로 훑치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호미로 맬 때는 손을 다칠 염려가 있어 조심해야 하는 고로, 손으로 훑칠 때에 더 많이 노래한다. 두 경우에 부르는 논맬소리의 종류가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얼카덩어리” 같이 호미로 땅을 뒤엎는 내용의 받음구를 쓸 때는 전자에, 굶았네나 대허리처럼 손으로 훑칠 때의 지심상태를 읊거나 훑칠 때의 작업상황을 독려하는 받음구일 때는 후자의 경우에만 쓰는 등 구별하기도 한다.

두레가 길을 갈 때는 농기(‘농자 천하지대본야’ 또는 ‘神農遺業’ ‘第一興農之旗’라는 문자를 써놓곤 한다)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오고 감이 원칙이지만, 논을 맬 때는 악기없이 소리만 하기도 한다. 만약 악기를 쓸 경우엔 경기지방의 선소리꾼들은 북을 울리는 경향이다.

넓적배미(네모반듯한 논) · 세귀배미(삼각형의 논이며 보습같이 생겼다고 하여 보습배미라고도 일컫는다) · 외톨배미(따로 떨어져 있는 논) · 움동배미(다른 논들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논) · 장구배미(장구처럼 양쪽이 평퍼지고 가운데가 쑥 들어간 논) · 바지깁내 배미(논이 양쪽으로 뻗쳐 있어서 사람의 바지처럼 생긴 논) 등, 논의 생김새에 따라 기러기 모양으로 대열을 지으며 돛배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엔 더 나갈 데가 없이 되므로 잦은 논맬소리로 몰아쳐 에염을 싸며 마무리 짓는다.

두레로 논을 맨 후 마을로 돌아올 때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상일꾼을 소나 지게말 또는 어깨말에 태우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예가 많으나, 경기지방에서는 이와 달리, 농악만 울리면서 들어오는 경향이다.

여 백

2. 게재지역과 가창자

본서에 게재한 논맴소리의 지역과 가창자는 <표 1>과 같다. 토민이 아닌 경우는 10세에서 30세 사이에 거주했던 지역의 논맴소리로 일단 간주하였다.

<표 1> 경기도 논맴소리의 게재지역과 가창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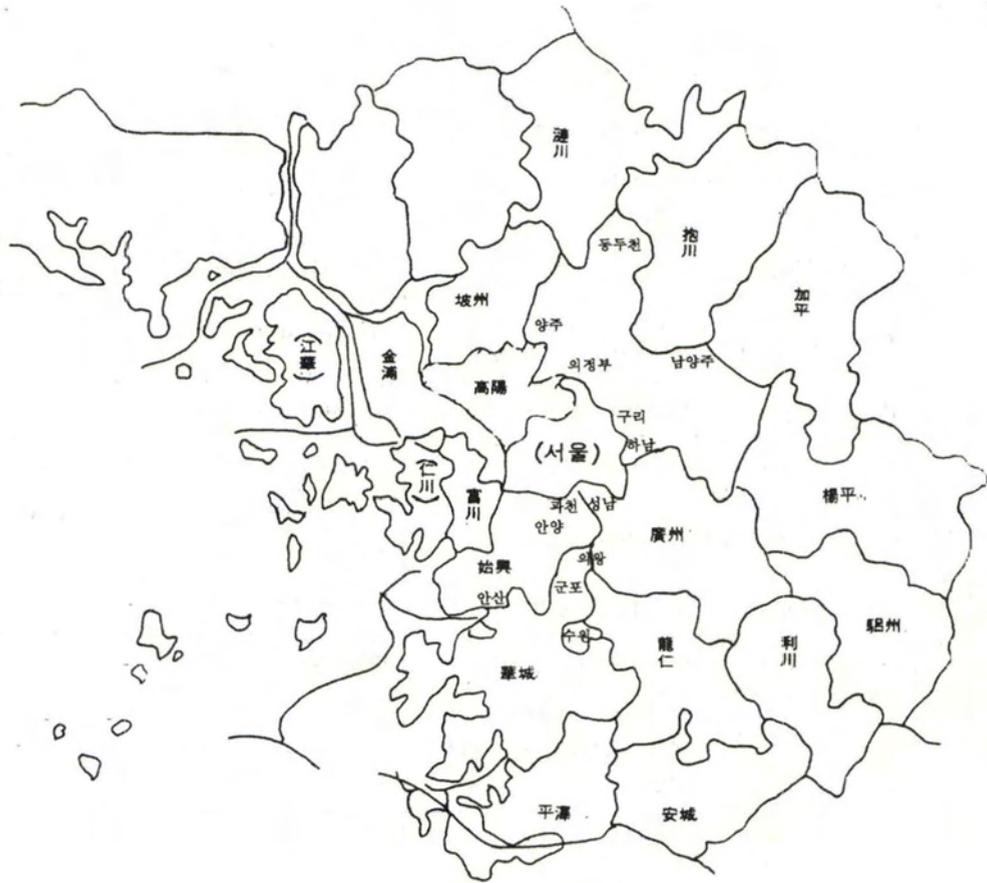
지 역	가 창 자	비 고 <경기>
가평읍 금대리	이만환(1921. 남, 토민) 장석현(1921. 남, 토민) 박윤준(1927. 남, 토민)	그러큰싸<경기1> / 민아리<2> / 방아<9> /
가평읍 산유리	장석만(1915. 남, 토민), 김종업, 박종원, 장동인	방아<8> / 두어라<18> / (민아리<3>)
가평읍 마장리, 북면 목동1리	이복규(1924. 남, 상면 연하리 출생. 3세에 마장이주. 1945년 경에 목동1 리로 옮)	<17>(방아/치나칭칭).
북면 목동2리 (싸리재)	김갑선(1924. 남, 토민)	방아<10>
상면 임초2리	남상만(1920. 남, 토민) 성주필(1922. 남, 토민) 김귀현(1922. 남, 토민) 등	민아리<4> / 방아<11> / 상사 <15>
설악면 선촌리	전계덕(1913. 남, 외서면 청평리 출 생. 11세에 선촌 이주)	방아<13> / 상사<16>

가 평 군	외서면 하천1리 (유답촌)	이지수(1916. 남, 토민) 이유수(1918. 남, 토민)	민아리<7> / 방아<12>
	하면 대보2리	원호석(1931. 남, 토민) 이창복(1937. 남, 토민) 이봉안(1936. 남, 토민)	민아리<6> / <14>(방아 / 상사 / 끝마 칠 때 “어여라훠훠”1회 복창).
	하면 신상리, 하판리	박원식(1939. 남, 신상출생. 1969년 경에 하판이주)	방아(“에이여라 방아호”) / (발김 : 민아리<5>)
고 양 군 (現 고 양 시)	벽제읍 성석1리 (진밭)	신천희(1919. 남, 토민) 이원희(1921. 남, 토민)	논김 양산도<27>/ 니나누 방아 <35>/ 땀다<37>/ 헤이리 류<42>/ <48>(1.상사 2.우야 3.몸돌)
	송포면 대화리	김현규(1942. 남, 대화리 출신) 김호권(1921. 남, 토민) 김형진(1926. 남, 토민) 김형호(1917. 남, 토민) 김선규(1931. 남, 토민) 등	긴소리 쇠류<19>/ 사두<21>/ 논김 양산도<23~25>/ 니나누방아<34>/ 땀다<36>/ 놀노리<40>/ 자진놀노리 <41>/ 상사<45>/ 우야<46>/ 몸돌 <47>
	송포면 범곶리	김사남(1917. 남, 토민)	사두<22>/ 우겨라방아<33>/ 땀다 류 <38>/ <43>(1.긴소리“어허리 오호 불” 2.상사 3.헤이리 류 4.우야 5.몸돌)
	신도읍 지축1리	최창성(1914. 남, 토민)	논김 방아타령<28>/ 네홀래야<44>/ <50>(1,2.상사 3.우야 4.몸돌)
	원당읍 식사3리	이천봉(1916. 남, 토민) 이금만(1934. 남, 토민)	긴소리 쇠류<20>/ 논김 양산도 <26>/ <30>(논김 방아타령/ 우겨루 방아). <49>(1.상사 2.우야 3.몸돌).
	일산읍 산황1리	이창하(1922. 남, 토민) 임순선 등	우겨라방아)<32>/
	일산읍 일산7리	김성배(1935. 남, 토민)	<31>(1.논김 방아타령 2.헤이리 류 3. 상사 4.몸돌).
	화전읍 현천3리	조영용(1932. 남, 토민)	논김 방아타령<29>/ <39>(1.땀다 2. 상사).
과 천 시	과천동	서상희(1929. 남)	상사/ 방아타령(未詳)
	과천7통 (벌밭)	박정식(1920. 남, 토민), 이승재(1919. 남, 토민)	방아/ 우겨루 방아/ 상사/ 몸돌(끝부분에 우야)

과 천 시	관문동	김수원(1898. 남, 관문리출생. 1980년이후에 안양시 이주)	우겨루방아/
		정세준(1929. 남, 관문동 출생. 1980년대에 부림동 이주)	방아소리/ 상사/에기나 방혜/ 넘사
	막계동	손효목(1902. 남, 막계 출생. 1980년대에 문원동 이주)	사두/ 방아/ 일반 양산도/ 문돌/ 우야.
	문원동	고경남(1914. 남, 문원1통 출신)	짜/ 우겨라 방아/ 긴소리(방혜,에혜야)/ 상사/ 우야
	*우면동(현재는 서울특별시)	권덕만(1905. 남, 우면동 출생. 61세에 안양시 관양1동이주)	뽑방아(우겨라 방아)/ *긴방아(未詳)/ 상사디야/ 우야윙윙/
광 명 시	학운동(노온사동 2통 아방리)	양주완(1919. 남, 토민) 양주만(1929. 남, 토민)	논김양산도, 방아, 상사, 문돌.
광 주 군	광주읍 태진리	김대천(1907. 토민)	둘레, 방아, 상사, 문돌
	남중면 분원리	황만복(1915. 토민)	방아, 상사
	" 금사리	김학표(1921. 토민)	끓었네, 방아, 상사
	도척면 노곡리	곽금석(1909. 토민) 김순봉(1924. 토민)	한마디 오하류, 두마디 오호야.
	실촌면 수양1리	권인수(1923. 토민) 김쾌복(1913. 남, 양평군 옥천면 출생. 8세부터 수양1리거주)	오하류(한마디소리류), 오호야(두마디소리류) 내지 논김행상
	실촌면 수양4리	이종삼(1951. 남, 수양4리 출생. 1974년경에 이천군 신둔면 이 주. 수양4리와는 20리 거리임)	끓었네
	오포면 양벌리	신문창(1914. 토민)	끓었네, 오호야(두마디). 상사. 위야하 네호.(방아 류)
	오포면 추자리	전만길(1917. 남, 추지출생. 사 변때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 이 주. 추자리와 매산리는 가까움)	(방아 류), 둘레, 째었네야, 상사, 대허리
	중부면 광지원리	강보석(1923. 토민)	문돌, 방아, 째었네야, 끓었네, 상사
	초월면 지월1리	엄기학(1922. 토민)	둘레, 오하류(한마디소리류)
	퇴촌면 광동1리	조충삼(1920. 토민)	끓었네, 오하류(한마디소리류), 상사

구 리 시	갈매동 담터	박한용(1917. 토민)	헤이리(고양형 ; 넘차), 우야, 우겨라 방아
	교문동 한다리	박문학(1917. 서울시 중곡동 출생. 7세부터 한다리 거주)	우야, 짜른방아, 상사
	동구동 동창	강한만(1924. 토민)	우야, 논김방아타령, 상사
	사노동 두레목골	김명수(1927. 토민)	논김방아타령, 상사
	아천동 아치울	조상길(1916. 토민)	몬돌, 논김방아타령, 상사
	토평동	이경국(1924. 토민)	* (논이 없었다)
군 포 시	둔대동 속달동	심상곤(1931. 둔대동 토민) 심명섭(1928. 둔대동 토민) 김용학(1932. 둔대동 토민) 김효동(1928. 속달동 토민) 김홍필(1924. 속달동 토민)	느린 방아(호미), 둔대형 논맴소리(손)
	부곡동	주점식(1926. 토민) 변재천(1931. 토민)	방아, 상사, (양산도)
김 포 군	김포읍 사우리	유근택(1927.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검단면 마전리	장복동(1914. 마전 출생. 1991 년에 인천 이주)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검단면 오류리	서재준(1933. 오류 출생. 40세 에 마전리 이주)	상사
	고촌면 신곡6리	장재순(1918)	상사
	대곶면 약암1리	조계환(1928.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출생 .15세까지 살고 20세경에 대곶면 이주) 한규상(1936. 토민)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몬돌, 긴방아
	양촌면 누산리	정만길(1913. 화성군 정남면 출생. 7세에 누산리 이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느린 방아, 상사
	월곶면 고양1리	이은하(1909. 토민) 이선하(1918.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짜른방아
	" 군하3리	윤실봉(1926.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느린 방아, 상 사(끝은 오조밭에 새쫓아라 위야 위-)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	심기득(1909. 인천시 백석동 출생. 19세에 옹정리 이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짜른방아
	" 서암5리	조상연(1922. 구삿 토민) 조남창(1902. 토민)	사두 류, 니나노 방아타령
	" 서암1리	최병익(1915. 바우모루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느린방아, 짜른방아
	하성면 마조리	민병환(1908. 토민)	몬돌, 상사, 짜른방아
	" 하사리	홍인환(1915. 토민)	몬돌,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남양주시	평내동	이중휘(1911. 토민) 이천후(1906. 토민)	느린 방아, 상사
	진접읍 장현리	남영문(1919. 토민)	우야,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
	화도읍 마석우2리	김덕근(1922. 토민) 장경산(1917. 금남리 토민)	사두 류, 상사
	화도읍 차산리	유덕근(1922. 토민)	(설참에 부르던 낚두리)
	별내면 청학리	남기준(1916. 토민)	우야, 우겨라 방아, 느린 방아, 상사
	수동면 운수2리	김봉건(1919. 토민)	니나노 방아타령, 짜른 방아, 상사, 썩소리
	" 외방2리	최윤홍(1921. 토민)	느린 방아
	와부읍 덕소리	(덕소2리 회관의 회원들)	방아, 상사.
	와부읍	구완서(1934. 와부면 출생. 21세까지 살다가 양평군 양서면 모곡리 이주)	방아, 상사
	조안면 송촌2리	윤용섭(1925. 토민) 윤문섭(1929. 토민)	우야, 민아리, 느린 방아, 짜른방아
진건읍 송능2리	고경동(1918. 송능2리 출생. 19세에 서울로 가서 37년간 거주 후에 귀향함.)	우야, 느린 방아, 상사	



<도 1> 경기도 관할 약도

3. 가평군(加平郡)의 논맴소리 <경기 1~18>

3.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2>

<표 1>과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평군의 논맴소리로는 가평읍 금대리와 산유리, 북면 목동리, 상면 임초리, 하면 대보리와 신상리, 설악면 선촌리 및 외서면 하천1리 등지의 예가 녹음되었다.

가평군은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강원도의 화천군(사내면)·춘천시(북면, 서면, 남면)·홍천군(서면)과 경기도의 양평군(단월면, 옥천면, 서종면)·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포천군(내촌면, 화현면, 일동면, 이동면)에 군접한다.

북한강이 가평읍과 춘천시 남면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흘러와 외서면과 설악면의 면계(청평호)가 되며, 외서면내로 들어가서는 삼회리와 대성리를 가른다. 이어서 삼회리와 남양주시 화도읍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가평군지역을 벗어나며 양평군과 남양주시의 시군계로 흘러간다. 상기 가평군 조사지역 중 설악면 선촌리만 북한강 이남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북한강 이북에 위치한다.

북한강으로 군계를 삼는 지역을 제외하면 북쪽의 화악산(1468)·응봉(1436)·촉대봉(1125)·국망봉(1168) 등 1000m를 넘는 산들을 비롯하여 남쪽의 유명산(884)에 이르기까지 한북정맥의 가지 등 산악이 군계가 되어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야철(冶鐵)주거지가 가평읍 마장리에서 발굴된 바 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으로 영토를 넓힌 즈음에 고구려의 병평군(並平郡 또는 斥平郡)이었으며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가평군(嘉平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조 현종8년(1018)엔 강원도 춘천 관할이었다가 조선조 태조5년(1396)에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조선조 고종 25년(1888)엔 춘천부에 소속되었으며, 1894년에 경기도로 환속하면서 포천군에 속하였다가 1896년에 분리독립하여 가평군(加平郡)이 되었다. 1942년에 양평군 설악면이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 양평군 서종면의 삼회리가 외서면으로, 서종면의 노문리 일부가 설악면 이천리로 각각 편입되었다.⁵⁾ 현재의 행정관할구역은 1읍(가평읍) 5개면(북면·외서면·설악면·상면·하면)이다.

경춘선 철도에 병행하여 춘천행 국도가 남양주 화도읍 마석에서 외서면의 북한강변을 따라 청평리에 이른 후 가평읍 읍내리까지 최단거리로 달렸다가 다시 북한강을 따라 간다.<도 2> 참조.

가평읍 금대리는 예전에 금산지였던 고로 금대(金垜) 또는 ‘쇠터’라 불리웠다. 1987년 조사 당시 80호 전부가 농가였다. 음력 9월9일 밤에 산제를 지낸다.

가평읍 산유리는 산간마을인데 버드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하여 산유리(山柳里)라 불리운다. 1987년 조사당시 90호 모두가 농가였고 논이 밭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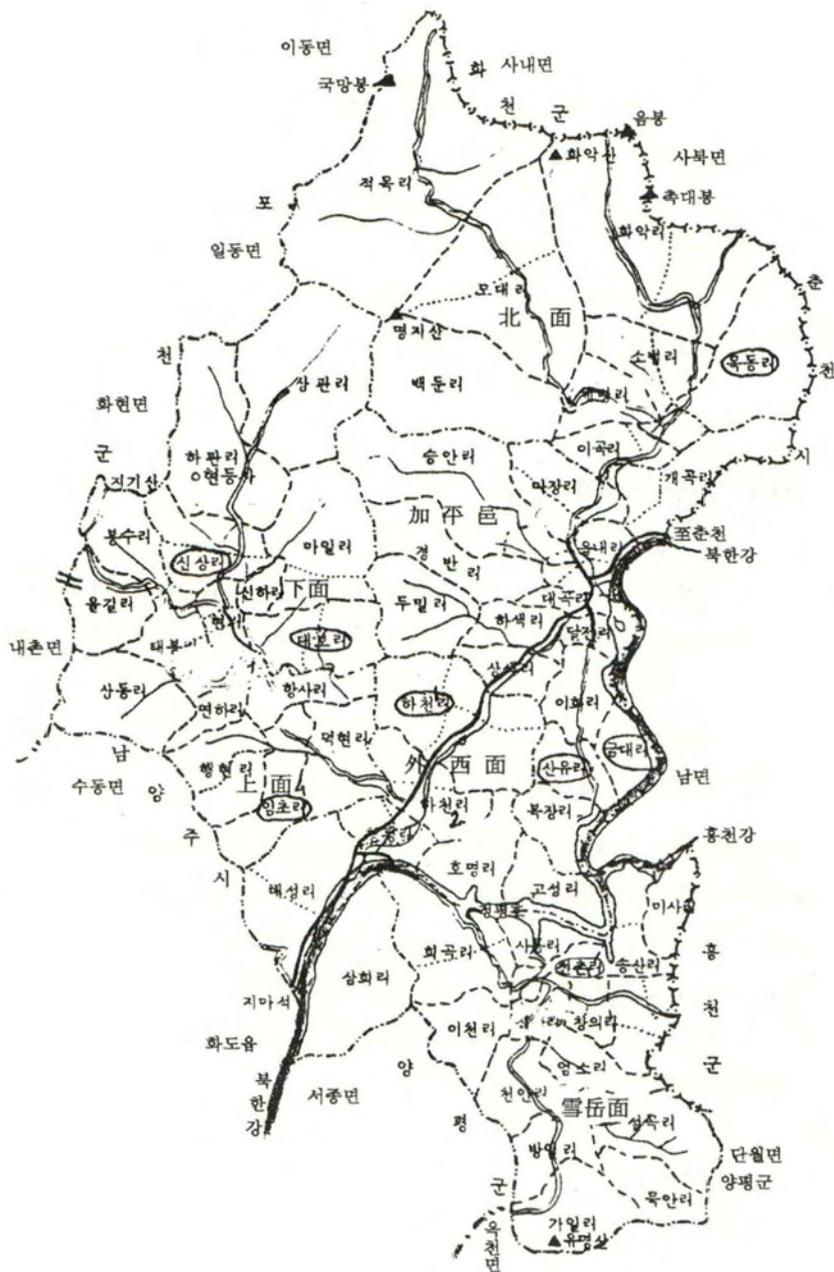
북면 목동2리는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재’라고 불리웠다. 1987년 5월 조사당시 74가구 중 10호만 비농가였다. 논보다 밭이 많은 중산간마을이다. 8월초이틀에 산제를 지내며, 가평읍으로 5일 장을 보러다녔다. 목동1리(죽둔 또는 죽암리)는 120가구 중 80호가 농가이며 대부분이 논이다.

상면 임초리는 숲이 많이 우거진 동네라 하여 ‘임초리’라 불리웠다. 임초2리는 산간마을로서, 1989년 4월 조사당시 논이 16ha, 밭이 17ha이며 72가구 중 50여 호가 농가였다. 처음 입촌 성씨는 죽산 안씨와 의령 남씨이다. 조사당시엔 남씨가 15호 안씨가 7호 거주했다. 음력9월 초하루에 산신제를 지내며, 하면 현리와 청평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⁶⁾

설악면 선촌리는 양평군 지역이던 것이 1942년에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탐선리(探仙里), 석촌리(石村里), 울업리, 명장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면서 탐선의 ‘선’과 석촌의 ‘촌’을 따서 선촌리(仙村里)라 하였다. 울업산 신선봉(神仙峯)엔 신선이 놀던 자리라는 구덩이가 있다.

5) 『통계연보』 가평군, 1988.

6) 설문지 기록자 : 남상주(임초2리).



<도 2> 가평군의 논맴소리 녹음지역(○표)

외서면 하천1리는 농경지에 버드나무가 많아 유담촌(柳沓村)이라 불리운다. 1989년 4월 조사당시 논이 6ha, 밭이 7ha이며 70가구 중 55호가 농가였다. 전주이씨 15호, 영산신씨 13호 등이 사는데 전주이씨가 처음 입촌하였다. 예전엔 7월과 10월상달에 산제를 지냈으나 조사당시엔 지내지 않았다. 청평으로 장을 보러다녔으며, 줄다리기를 했었다. 논은 두벌까지만 매기도 하고 세벌을 매기도 하며, 그 뒤엔 피만 뽑았다. 애벌은 호미로 논을 땀다.

하면 대보2리는 1989년 4월 조사당시 논이 3ha, 밭이 10ha인 산간마을이며 58가구 중 38호가 농가였다. 전주 이씨가 처음 입촌하였고 조사당시 전주이씨가 15호, 경주최씨가 12호 산다고 하였다. 음력 3월3일과 9월9일에 산신제를 지내며, 하면 현리로 장을 보러다녔다.⁸⁾

3.2 가평군 논맴소리의 종류

가평군 지역에서 불리워진 논맴소리에는 민아리<경기 2, 4, 6, 7>, 방아<경기 8~14①, 17①>, 상사<경기 14②, 15, 16>가 있고 그밖에 그러믄싸<경기 1>, 두어라<경기 18>, 어여라훤훤<경기 14끝> 및 치나칭칭<경기 17②>이 있다.

3.2.1 민아리 <경기 2, 4, 6, 7>

가평군에서 민아리를 논매면서 불렀다는 곳은 가평읍 금대리<2>, 상면 임초리<4>, 하면 대보리<6>와 외서면 하천1리<7>였다. 임초리·대보리·하천1리에서는 밭김매면서도 <4, 6, 7>을 불렀다. 임초리에서는 모심으면서도 민아리(“이 논자리 물결종와, 일천가지 벌여섰네”)를 부른다. 가평읍 산유리의 그것<3>은 용도가 분명하지않다. 하면 박원식 창인 <5>는 가사로 보아 밭김매는 소리이다. 이밖에 이복규(1924. 상면 출생. 3세에 가평읍 마강리 이주. 1945년에 북면 목동1리 이주)도 목동리 싸릿고개를 넘어 춘천으로 오가는 행인들이 늦게까지 장가를 못갔던 성질부친(父親)이 부르는 민아리(“해다지고)저문날에 옷갓을 하구서 어덜갔나, 첩의 집을 (가실라면) 나의 말씀 듣고 가소, 첩의 집은 꽃밭이요 요내집은 연못이라”)를 듣고서는 길을 못가고 눈물을 주럭 주럭 흘리었다고 기억한다. 설악면 신천리 토민인 한경식

7) 설문지 응답자 : 하천1리 남궁진 이장.

8) 설문지 기록자 : 대보2리 이명복 이장.

(1920년 출생)과 설악면 선촌1리의 윤상용(1911. 양평군 강하면 출생. 17세에 선촌1리 이주)도 밭김매는 소리로서 민아리를 불렀다.

가평군 민아리의 가사를 보면, <4>의 “이 논자리 물결종와, 일천가지 벌여섰네” “일천가지 벌인 눈에 삼천석이 솟난다네” “삼천석이 솟난다면 부모님 봉양 못할순가”가 눈에 띄인다. 포천군 소흘읍의 오영수 창 포천메나리에서도 이러한 노랫말을 볼 수 있다.⁹⁾ <2>에도 “이논이나오, 자리는-, 물길이 - 좋아서 -, 일천-가지를 <벌려>-섰네”가 나온다.

<4>의 “해다지고 저문날에 이에, 옷갓을 허구 왜 나셨소” “첩의이 집을 가려거든, 나 죽는 거를 보고가요” “첩의 집이는 꽃밭이오-, 요내 집이는 연못이라” “꽃밭 나비는 한철이고, 연못 봉어는 사철일세”류도 <2>와 <7>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경상도 모노래의 대표적인 가사중의 하나이다. 연못의 ‘고기’ 대신에 <4>와 <2>에서는 ‘(금)봉어’로 제한한다.

경상도 모노래에서처럼 가평군 민아리도 가사 4음보로 구성된다.

<2>와 <6>에서는 한사람씩 서로 다른 가사를 가지고 독창을 해나감에 비해, <4>에서는 선창자가 부른 것을 여러사람들이 복창을 한다. 경상도 모노래의 전형적인 것은 앞뒤 두패가 서로 대귀적(對句的)인 가사를 가지고 교대로 불러(交唱)나간다.

<2>의 음조식은 M1+D1. 기음 또는 중간음 요성. 기음중지이다. 다만 이만환 창에서는 매여주게의 ‘게’와 벌려섰네의 ‘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음에서 짧은 시가로 끝을 들어올려 끝낸다.

3.2.2 방아 <경기 8~14①, 17①>

가평군에서 논맴소리로 수집되는 방아는 짜른방아 류에 속한다. 맥반형식으로 불리우며 그 받음구 예는 “에이여라 방아요”<8~12, 14①>, “에이혀라 방아요”<17①>, “어이여라 방아요” 또는 얼얼털 방아요<13>로 “에이여라 방아요”가 지배적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내지 내재4박 1마디씩이다. 메김구는 선을 1마디 안에 2음보가 들어간다. “강태공의 조작방아”는 방아소리에서 통민요적으로 널리 애용되는 가사이다. “여주나 이천에 자차방아” “광주 분원은 밀타리방아”도 등장한다. 북면의 김갑선<10>은 초한가

9) 이소라, 포천군지 민요편. 『포천군지』 下, 1997, 201쪽.

로도 맥이며, 마을의 농부들을 우리 ‘계원님’으로 호칭하고 있음도 눈에 띄인다.

<8>은 S2,t4(단.퇴성함), / <9>의 (메)는 레솔라도의 구성음에 4도윗음요성을 하며, (메)α는 구성음 레미솔라(또는 솔라도레)의 4도윗음에서 바로 퇴성하지 않고 gb으로 내려와서 퇴성하며 맺는다. / <10>은 S1.t4. v1,4. / <11>의 (메)α는 D3이되 미가 약간 높은 듯이 들린다. t5이다. (받)도 이와 유사하나 t4이다. (메)의 출현음은 미(솔)라(도)레미'이며 v1,4.에 약요(弱搖)가 있다. / <12>의 (받)은 D3.v3.t3(단.퇴성함)이다. / <13>의 주요구성음은 S3이며 v(1),4. t4(단. 끝을 라솔로 后打함)이다. / <14①>의 출현음은 (도)미솔라이며 미음에서 요성하고 중지한다. / <17①>의 (받)은 S3.t4 이다.

3.2.3 상사 <경기 14②, 15, 16>

가평군 상사류의 받음구 예는 “에넬넬 사앙사데야”<14②, 15>, 어럴럴 상사‘데’야 (또는 ‘도’야)<16>이다. 어럴럴 보다는 에넬넬 쪽이 더 경기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메)와 (받)이 3분박4박 1마디 썩이다. 메김구는 2음보썩이며 그 1음보는 3~6자 구성이되 4자구성이 많다.

<14②>의 출현음은 (도)미솔라 이다. 미에서 요성하고 중지한다. <15>는 S5.t4.v4 이다. <16>은 S4. t1. v1,4 이다.

3.2.4 그러믄싸 <경기 1>

그러믄싸<1>는 가평읍 금대리에서 불리우던 것으로, 영산강 유역 웅관묘제사회의 논맴소리 ‘아리시구나’처럼¹⁰⁾ 2중 받음구를 가진 논맴소리의 예가 된다.

<1>의 매절은 (메)A+(받)A+(메)B+(받)B로 짜여진다.

(받)A는 “그러믄싸 - 하, 위위요 - ” 또는 “그러믄싸 - (하), 위여 - ” 이다.

(받)B는 “에 - 에에 - 에에, 일하러 - , 가 - , 일하러 - ”류이되 후반부는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의 ‘일하러’가 ‘마오’로 대체되기도 한다.

(메)A의 예에는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고 엄마를 찾아가는 불쌍한 다북녀(타박네)를 소재로 하고 있다.

10) 이소라, 『함평의 민요』(함평군, 2002).

(메)B의 예로는 우리나라 일꾼들이 잘두나 허네 라든지 이제야말로 일되었네처럼 일을 독려하는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다.

(반)A는 (메)A에 대하여 그렇지요 하며 동조하는 의미이며, (반)B도 (메)B의 독려에 대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응답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메)A의 선율을 이만환 창 의 민아리 <2>의 제3행 ‘이논이나’에서 제7행까지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니 어디로’의 첫부분은 상행곡선을 그림에 비해 ‘일천’부분은 하행곡선을 그려 차이가 나나, <1>의 제2,3절에서는 너의 모친의 ‘너의’부분을 하행진행한다.

<표 2> 이만환 창 의 민아리<2>와 그러믄싸 곡<1>의 (메)A선율

<1>	<2>
다북-에나 - 으,	이논 이나 - 으,
다북 - ,	자리는 -
다북- 녀야 - 하,	물길이 - 좋아서 - ,
니 - 어 - , 어디로	일-천 - - 가지를
우울면 - 서 가니	벌려 - 섰네

이와같이 (메)A는 민아리곡형임에 비해 (메)B는 (반)A의 끝음에 소리마중하여 입말(허 - 허 어-)로 들어가서는 ‘일하러’라는 의미구를 노래한다.

자유리듬곡 내지 비고정(非固定)장단곡에 속한다. 유장한 곡이지만 의미전달을 위해 ‘다북’ ‘어디로’ ‘울면’ ‘우리’ ‘일꾼들’ ‘일하러’ ‘너에나’ ‘모친’ ‘먼곳에’ ‘갔으니’ ‘생각’ ‘딸아’와 같은 의미어들을 촘촘한 리듬으로 묶고 있음을 본다. 미선법이 우세하되 도선법과 솔선법이 공존한다.

3.2.5 두어라 <경기 18>, 어여라훤훤 <경기 14끝>, 치나칭칭 <경기 17②>

두어라<18>는 가창읍 산유리에서 방아소리<8>를 부르면서 호미로 애벌매기를 하다가 가사를 착착 붙여나가기가 힘이 들면 느릿하면서 말붙임이 성긴 두레타령으로 넘긴다며 불러준 소리이다. 노랫말은 “에에- 에-, 헤헤이여 -, 라 두우어 - 어, 라” 이다. 선소리꾼에 따라 북창형태로 메김구없이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받음구로 삼아 맥받형식으로 가창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어여라훠훠<14끝부분>은 하면 대보리에서 상사소리 끝에 부르는 매듭짓는 소리이다. 논둑으로 나오기 직전에 일을 끝내는 신호가 되었을 것이다. 우야소리의 흔적이 보인다. 새쫓는 소리라고도 일컫는 우야소리의 문화중심은 고양시·파주시·양주시이며¹¹⁾, 남양주군의 수동면·별내면·조안면·진건면 등지와 포천군의 이동면·가산면·소흘면·신북면 등지에 서도 논매기 끝날즈음이나 달구질 마치면서 부르는 소리로 녹음된다.

<14끝부분>의 출현음은 (도)미솔라 이며 미에서 요성하며 종지하되 끝을 올린다. 전파의 한계지역이므로 메김구없이 3분박4박 1마디씩 복창한다고 해석된다.

치나칭칭<17②>은 가평읍 마장리에서 성장한 이복규 창이다. 칭칭이는 경상도가 본고장인 맥반형식의 흥겨운 파연곡(罷宴曲)이다. <17②>의 받음구는 “치나칭칭 나네”이며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음조식은 S1.t5이다.

3.3 가평군 논맴소리의 성격

가평군에서 수집한 논맴소리에는 민아리, 짜른방아, 잣은상사, 그러믄싸, 두어라, 어여라훠훠 및 치나칭칭이 있다.

민아리는 경상도 모노래가 북상하여 강원도화한 것이¹²⁾ 민아리지대인 춘천시와 홍천군 방면에서 군내로 유입되었다. 가평군의 민아리 가사로는 “첩의 집은 꽃밭이오 ... 연못 붓어는 사철일세” 류가 애용된다. “이논자리 물결종와 일천가지 벌려섰네”는 가평, 포천방면 민아리의 특색있는 가사로 보인다.

짜른방아는 민아리와 함께 가평군의 대표적인 논맴소리로서 경기도 전역에 널리 전파되어 있는 논맴소리이지만 논김방아타령이나 니나노 방아타령 등이 애창되는 고양시·파주시·양주군 방면과 남쪽에 위치한 이천시·용인시·안성시·평택시 방면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경기도의 상사류 논맴소리는 잣은상사형에 속한다. 전라도의 잣은상사형 터다짐소리와 유

11) 이소라, 『파주민요론』, 전개서, 158쪽.

12) 이소라, 「모노래, 민아리 및 오독떼기의 비교연구」, 『국악원논문집』 제8집(국립국악원, 1996).

사하다. 후자의 받음구는 ‘얼렁얼’ 상사도야 형이 많은 관계로 경기도의 잦은상사형 받음구는 “네넬넬 상사도야” 형이 보다 경기도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싸<경기 1>, 두어라<경기 18>는 가창읍에서 녹음된 것으로 개성이 돋보인다.

하면 대보리에서 녹음한 어여라훤훤은 그 전파의 중심인 고양시·파주시·양주군 방면에서 남양주시와 포천군의 경로를 따라 유입된 우야소리의 흔적으로 한계적 현상을 보인다.

경상도 노래인 칭칭이를 경기도에서 논맬 때에 원용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가평읍 출신인 이복규 창과 함께 양평군 개군면과 용인군 수지면에서 수집한 적이 있다.

가평군의 논맬소리는 가장 대표적인 민아리와 짜른방아가 보다 강원도적이라는 뜻에서 강원도 영향권을 의미하는 동부 경기도권에 속한다. 그러나 중부경기도 방면의 영향이 미치었음을 말해주는 우야소리 전파의 흔적이 있듯이 음조직에서도 미선법, 도선법에 술선법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싸와 같은 우수한 형태를 창출시켰으나 두어라와 함께 전파력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 1〉

그러든 싸(논맴)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메) 이만환(1921.남.토민)
(반) 장석현(1921.남.토민)
박윤준(1927.남.토민)
素 87-5-12-1B

♩ = 150

(메)

1. 다 북 - 에 나 으 -

다 북 -

다 - 북 - 녀 야 하 -

니 - - 어 - 어 디로 -

우 울 면 <서> 가 니
: T.P

(반)A
그러 든 싸 - 하

위 - 위 요

(메) 허 허 어

우리 - 나 - 으 아 일 꾀 들 호 열

- 아 잘 두 나 허 네 -

(발)B 에 - 에 에 에 에 에

일 하 러 가 -

T.P

일 하 러

2. 너 에 나 으 - 모 친 으 으 - 은

먼 곳에 에 이 - 잤으 - 니 --

T.P

너 - - 의 혜이 -- 모 친 -

생 각 으 을 마 라

(받)A 그 러 든 싸 - -

위 - - 여

(메) 여

어 - 아 무 리 나 으 -

하 여 도 호 -

아 - 일 거 치 러 나 - 니 -

(받)B 에 에 에 에 에 -

일 허 러 허 어

마 오 오 오

(메)

3. 네 가 - 나 으 - 딸 아 -

우 - 지르 을 - 마 라

너 - 에 이 - -

T.P

모 치 노 은 데 일 어 라

(발)A

그 러 문 싸 - 하

위 며
 (메) 어 어 어
 인 제 야 으 말 로
 아 아 일 되 - 었 네 에 이
 (받)B 에 - 에 에 야 -
 어 어 너 어 어
 T.P.
 어 러 러 야 어 어

4.(메) 에 살반에이나 어어 밑에 삶은 팔이
 짝시 나면 온테이더라 / (받)A

(메) 에여세라 으 노새 꿩어 노새
 늙어지머는 못노나니 / (받)B

〈경기 2〉

민아리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이만환(1921.남.토민)
장석현(1921.남.토민)
박윤준(1928.남.토민)
素 87-5-12-1B

♩ = 150

(이) 매여를~ 주나~으으 주게~,
매여~ 주게~

이 - 논 - - - 자 리 를 -

매 여 주 게

이 는 이 나 으 -

자 리 는

물 길 이 - - - 좋 아 서 -

일 - 천 - - - 가 지 를 -

부 이 러 셧 네
<별 - 려>

(박)

해는

지구서 저 무운 날에

옷 갖추어 오느

하구서 왜 나으시나

(장)

첩의 집이

가서 거들 명

나 죽는 풀을

보교 가오

(장)

첩 의 집 은 -

꽃 밭 이 요 으

요 내 집 은 -

연 못 의 - 이 금 봉 어 라 -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in a single system. Each staff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first staff has a '(장)' marking above it. The lyrics are: '첩 의 집 은 -'. The second staff lyrics are: '꽃 밭 이 요 으'. The third staff lyrics are: '요 내 집 은 -'. The fourth staff lyrics are: '연 못 의 - 이 금 봉 어 라 -'. There are wavy lines above some notes, likely indicating vibrato or a specific performance style. The piec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경기 3>

민아리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장석만(1915.남.토민) 창
素 87-5-12-1A

♩. = 60-67

1. 서산에 - 지는 해 - 는
지구 싫어 - 지나 요 우 오 -
날 버 리고 서 - 가는 님은 더 -
가고 싶어 가 - 나 으 으

2. 아스라 - 말 - 어 라
니 가 그 리 - 말 어 라 어 -
사 람 에 나 팔 - 세 - 름 -
니 가 못 한 단 - 다 으 -

<경기 4>

민아리(밭김, 논김)

가평군 상면
임초리

(선창) 남상만(1920.남.토민)
(복창) 성주필 등
녹음협조; 이병주
素 89-4-27A

♩ = 150

- | | | |
|------|-----------------|-------------------|
| (선창) | ○ 이논자리 물결 좋아 아아 | ○ 신농씨가 기다린가 |
| | ○ 일천 가지 벌여 섰네 | ○ 자손 열만 다리라네 |
| | ○ 일천 가지 벌인 논에 | ○ 신농씨를 보려하고 |
| | ○ 삼천석이 솟난다네 | ○ 긴 재담을 뛰여 넘다 |
| | ○ 삼천석이 솟난다면 | ○ 순금 비단 금줄 누비 |
| | ○ 부모님 봉양 못할 손가 | ○ 가지에 에이 걸려서 미어졌네 |
| | ○ 삼천석이 못난데도 | ○ 집에 에이 가서 말 물으면 |
| | ○ 부모님 봉양 못할소나 | ○ 무엇이랴 대답허나 |

(선창)

동 나 품이 이

긴 - - 듯 불 연 - -

가 지 - 이 에 에 이

걸 러 서 미 여

졌 네

- 복창할때 -

졌 네

- (선창)
- | | |
|-----------|---------|
| ○ 해다지고 | 저문날에 이에 |
| ○ 옷갓을 허구 | 왜 나셨소 |
| ○ 첩의이 집을 | 가려거든 |
| ○ 나 죽는 거를 | 보고 가오 |
| ○ 첩의 집이는 | 꽃밭이오 오오 |
| ○ 요 내 집이는 | 연못이라 |
| ○ 꽃밭 나비는 | 한철이고 |
| ○ 연못 봉어는 | 사철일세 |

<경기 5>

민아리

가평군 하면
신상리, 하판리

박원식(1939.남.신상출생.
1969년경에 하판 이주)
素 89-4-26B(4.27 녹음)

$\text{♩} = 150$

1. <들> 러 주 게
들 러 주-게 - 에
요 내 이 이 - 발 전 으-으 -
으 - 을 들 러 주 게

2. 요 내 발 - 전
들 러 주- 며 - 은
<준> 치 <자> 반
구 워 주 지

〈경기 6〉

민아리(밭김, 논김)

가평군 하면
대보리

원호석(1931.남.토민) 창
素 89-4-27B

♩ = 150

— 한사람이 부르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소리를 하면서 노래한다 —

(앞) 못 매졌네 못 매졌네
재미 지어서 못 매졌네

(뒤) 재 미 - - - 미 - - - 지 어 서 -
못 매 - - - 겠 - 나
재 - - - 주 - - - 없 어 서 -
못 매 - - - 지 - 요

(뒤) 세월 네월 가지마라
장안 호걸이 다 늙는다

(앞) 장안 호걸이 늙는다고
가는 세월이 아니 가라

(뒤) 양근 찾아 - ○ 부는 바람
가평 인정 아니 오라

(앞) 남산 - 밑에 남천지야
네딸 가지구 자랑마라

(뒤) 거운 거운 건너 심하늬채 딸도
복첩을 받아서 죽었다네

<경기 7>

민아리(논맹, 발맹)

가평군 외서면
하천 1리

이지수(1916.남.토민) 창
素 89-4-27A

♩ = 150

(A) 오늘도 해는 벌써 쬐는지
골골마다 연기 나네

(B)

우 리 념 은 어 띵 갈 라 고 -

웃 갓 허 고 - 어 디 를 가 오

○ <이내> 집이 연못이오
첩의 집은 꽃밭철세

○ 첩의 집이 가실라건
나 죽는걸 보고 가오

<경기 8>

방아(논맹)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메) 장석만(1915.남.토민)
(반) 김종업, 박종원, 장동인
素 87-5-12-1A

♩ . = 64

(메)α

에 이 여 라 방 아 요

(반)

에이 여 - 라 방 아 요

(미)

얼 싸 좋 다 일 도 야싸네

〈경기 9〉

방아(논맴)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이만환(1921.남.토민) 창
87-5-12-1B

♩ = 150



에 - 이 여 - 라 방 아 - - 요 -

(메) ○ 이 방-아-가, 뉘 방아안가



강 태 의 - 공 의 이 - 나 조 작 - 방 아

(메) ○ 여주나 이천에 자차 방아
○ 팡주분원은 밀타리 방아

<경기 10>

방아(논맴)

가평군 북면
목동2리

김갑선(1924.남.토민) 창
素 87-5-12-2A

♩. = 43

(반)

에이 여 - 라 방 - 아 요

(매)

이 방 하 가 웬 방 아 - - 나

- (매) ○ 강태공의 조작 방아
○ 이태백이 놀던 달에
○ 술잔 한잔을 들으러 가며
○ 방아소리 허는 뱀이
○ 방아소리 한 마디에
○ 호미질 열번씩 찍느니라
○ 시장하<면> 밥두 있고
○ 목마르면 술도 있고
○ 열시물이 하더래두
○ 한 두사람이 하는 소리로
○ 한 두사람이 받더래도 / 열시물이 하는 소리로 /
우렁 우렁 우렁차게 / 일심 합력에 받아 주소 /
이제서야 일 되누나 / 일심합력에 잘두 한다 /
먼데 분들은 듣기 좋게 / 보시는 분은 보기 좋게 /
에이여라 방아요 / 우리 계원님 잘두 하네 /
이소리 저소리 그만 두고 / 초한가로 찾아볼 보자 /
원<문>에 <월혹>하니 / 수운이 적막하다 /
초패왕은 초를 잡고 / 장차 길을두 일단 말가 /
역발산두나 쓸데 없고 / 기가세두 할일 없다 /
여보시오 계원님네 / 목마르고 힘들은데 /
막걸리 한잔 들구 허세 /

<경기 11>

방아(논맬)

가평군 상면
임초리

(메) 성주필(1922.남.토민)
(반) 토민들 ; 김귀현(1922),
남상만(1920), 염종해(1916),
안수덕(1909), 안무승(1917)
녹음협조 ; 이병주
素 89-4-27A

♩. = 43 - 60

(메) α ↑

에 이 여 라 방 아 요

(메) (반)

이 논 자 리 물 걸 좋 와

(메) (반)

여 기 저 기 다 꽃 아 놉 도

(메) (반)

삼 천 석 이 - 쏜 아 지 네

- (메)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베 이삭을 다치리라
 - 우리 농군 노력하야
 - 베 이삭이 망가지면
 - 우리 노력이 허사라네
 - 노세 노세 꺾어 노세
 - 늙어지면 못노나니
 - 이팔 청춘에 일 많이 하고
 - 늙어어서 늙아봅세

(반) ↑

에 이 여 라 방 아 요

- (메) ○ 산에 올라 옥을 캐니

(메) (반)

이 름 이 좋 와 - 산 옥 이 냐 -

<경기 12>

방아(애벌매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이유수(1918.남.토민) 창
89-4-27A

♩. = 55

(받)

에 - 여 라 방 아 요

<경기 13>

드레소리(방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설악면 신천리

전계덕(1913.남) 창
87-5-12-2B

♩. = 48

(받)

어 이 여 - 라 방 아 - 요
(얼) (릴)

(메)

방 아 - 허 는 우 리 농 부 -

〈경기 14〉

논맴소리

가평군 하면
대보리

(메) 원호석(1931.남.토민)
(반) 이창복(1937.남.토민)
이봉안(1936.남.토민)
素 89- 4 27B

1. 방아 ♩. = 46~58

- | | | | |
|-----|----------|---------|----|
| (메) | ○ 방아소리 | 잘-도 | 허던 |
| | ○ 방아 방아 | 돌방아야 | |
| | ○ 서마지기 | 는 배미가 | |
| | ○ 반달같이 | 남았구나 | |
| | ○ 일년 농사를 | 잘 지어놓고 | |
| | ○ 추절이라 | 돌아오면 | |
| | ○ 장대같이 | 잘 자란 곡식 | |
| | ○ 베는 비어 | 부모님 공양 | |
| | ○ 조는 지어 | 우리 먹자 | |
| | ○ 개돈 구추를 | 갖춰 쳐서 | |
| | ○ 만반 진찬 | 차려서 놓고 | |
| | ○ 부모님 한번 | 잡수시며는 | |
| | ○ 자식 마음이 | 송구허다 | |

(메) 사 앙 사 테 루 다 허 여 - 보 자

(반) 에 이 여 라 방 아 - 요

(메) 요

2. 상사 ♩. = 46~55

(메) 엘 - 널 널 널 상 사 도 야

(매)



한 풀 의 종 자 가 - 싹 이 - 나 서

(밭)



에 넬 넬 - 넬 사 앙 사 데 야

- (매)
- 만곡장에 열매로고나
 - 또 한 농사 일꾼들아
 - 어하 농사 장하구나
 - 힘을 합해야 려는일이
 - 농사 밖에 또 있는냐
 - 어하 농사 장하구나

— 끝마칠 때 —

(선소리꾼)



어 여 - 라 훨 - - 훨

(농군들)



어 여 - 라 훨 - - 훨

〈경기 15〉

상사테야(논맴)

가평군 상면
입소리

(메) 성주필(1922.남.토민)
(반) 김귀현(1922.남.토민) 등
素 89-4-27A

♩. = 55-60

(메) α
 12
 8
 얼 렷 렷 사랑 사 테 야
 (메)
 이 팔 - 청 춘 소 년 - 들 아 (반)
 (메)
 우 리 일 심 - 합 력 하 야
 (반)
 에 - 널 널 사 앙 사 테 야

- (메)
- 농사 일에 힘을 쏟시다
 - 어 렷 렷 상사 테야
 - 이 농사를 힘을 써서
 - 풍년 들면 더욱 좋지
 - 풍년 들면 부모 봉양도
 - 하고 보고

<경기 16>

어릴릴 상사(논맹)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설악면 신천리

전계덕(1913.남.청평 출생.
11세에 신천 이주) 창
素87-5-12-2B

♩. = 50

(받)

어 - 릴 - 릴 상 - 사 [데 야 / 도

(매)

상 사 허 - 는 농 부 님 네 (받)

(매)

이 내 마 읍 이 가 는 데 루 <말 -> (받)

(매) $\lceil 3 \rceil$

서 - 마 지 - 기 는 배 미 가 (받)

(매) ○ 반달만큼 남았으니

〈경기 17〉

1. 자진 방아

2. 치나 칭칭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북면 목동1리

이복규(1924.남.상면 연하리
목골출생.3세에 마장에 움.
1945년에 목동1리 이주) 창
素 87-5-12-1A

1. ♩. = 100

(받)

에 이 혀 라 방 아 요

(메) ○ 자진 방아 그만 두고
○ 치나 칭칭이러 넌겨 본다

2. ♩. = 75

(받)

치 나 칭 칭 나 네

(메)

사 램 은 많 구 소 린 적 다

(받)

치 - 나 칭 칭 나 네

(메)

열 시 물 - 이 하 더 래 두

<경기 18>

두레타령(애벌매기)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장석만(1915.남.토민) 창
87-5-12-1A

♩ = 150

*참고용

— 방아소리는 목이 메어 재니까
두레타령으로 넘긴다 —

<SR>

에 에 에

혜 혜 이 여 라

두 우 어 — 어 라

여 백

4. 고양시의 논땀소리 <경기 19~50>

4.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3, 4>

고양시에서는 구 고양군의 벽제읍 성석1리, 송포면의 대화리와 법곶리, 신도읍 지축1리, 원당읍 식사3리, 일산읍의 산황1리와 일산7리 및 화전읍 현천3리의 논땀소리가 녹음되었다.

고양시는 서울에서 서북방으로 인접한 도시로서, 북한산을 경계로 서울의 도봉구·성북구·종로구와 접하고 남쪽으론 은평구에 통해 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마주 본다. 북쪽으로는 파주시, 동쪽으로는 양주군과 접한다. <도1, 3>

고양군은 신도읍의 북한산일대와 벽제읍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잔구성(殘丘性) 평야지대이다. 특히 한강유역인 송포면·일산읍·지도읍 일대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고양시 일산지구인 舊송포면 대화리의 성저리(城低里)와 가와지(家瓦地)<도 4>의 4070±80B.P, 4330±80B.P년대 토탄층에서 나온 벼씨와 인접한 舊일산읍 주엽리에서 출토된 들문토기의 태토분석으로 확인된 벼 규산체로 볼 때, 늦어도 기원전 2천년경에는 대화리에서 벼가 재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¹³⁾

고양(高陽)이라는 지명은 조선 태종 13년(1413)에 고봉·덕양·행주·황조(現일산구 주엽

13) 임학중, “도작농경의 여명,” 『겨레와 함께한 쌀』(국립중앙박물관, 2000년), 11쪽 참조.

동)·부원(現서울의 용산일대)을 합병하면서 고봉(高峯)과 덕양(德陽)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백제시대엔 백제왕족 다음가는 귀족으로 왕비를 배출한 집안이 세거했던 곳이라 알려져 있다. 백제가 고구려에 밀려 공주 땅으로 옮긴 시기에 고구려는 고봉에다 달을성현(達乙省縣)을, 행주에다 개백현(皆白縣)을 설치하였다. 現서울에 설치한 북한산군과 함께 이후 77년간을 경략하였으나 신라 진흥왕(540-575) 때에 신라, 백제의 연합작전에 밀려났다. 555년에 진흥왕은 북한산에다 순수비(巡狩碑)를 세운다. 통일신라시대의 경덕왕 16년(757)에 고양은 서울과 함께 한양군(漢陽郡)이 되어 現광주(廣州)에 치소를 둔 漢州에 소속되었다.¹⁴⁾

조선시대에 고양은 관서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관문인 교통의 요지로서, 현 백제읍 고양리 소재 벽제관은 명나라 사신들이 예의를 갖추어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하룻밤을 묵었던 역관이였다. 또한 봉화독이 벽제읍의 문봉리·성석리와 지도읍 강매리에 있어서 평북 강계와 의주의 소식을 목멱산(서울의 남산)에 전해주었다. 그밖에 고양은 국가의 강무장(講武場)과 왕실의 수렵장으로서의 구실을 하였다. 선왕의 능침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연산군 때는 왕의 수렵을 위해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부터 쫓겨나기까지 하였다.

1999년에 고양시로 승격하여 구 고양군내의 서편인 송포면과 일산읍(내곡리는 제외), 원당읍 식사리, 벽제읍 일부(성석리·설문리·문봉리·사리현리·지영리)는 일산구로, 나머지는 덕양구로 구획되었다. 상기 녹음마을 중 현천리와 지축리를 제외하고는 일산구에 위치한다.<도 3> 참조

성석(城石)1리 진밭(泥田村)은 일산에서 58번 군도로를 따라 성석4리 잣골로 들어와서 이전 교(泥田橋)를 지나 우측에 있는 마을로 이전부락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예전부터 김씨가 많이 살았던(조선조 효종 이후에 집단거주했다고 한다) 탓에 김(金)밭으로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해 진밭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¹⁵⁾

대화리(大化里)의 구두레(형님두레)는 뱀개마을(金東·金西·楊村)두레인 바, 조사당시인 1984년도엔 500여 년 전에 입촌하였다는 진주 강씨 5, 6호와 창녕 조씨 2가구 및 420여 년 전에 들어왔다는 금녕김씨 김문기의 후손들 110여세대가 살고 있었다. 낮은 잔구(殘丘)들을 둘러싸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앞으로 “경기도 일산미”가 생산되는 평야가 펼쳐 있었

14) 이은만 편, 『고양군 지명유래지』(고양문화원, 1991), 19쪽.

15) 『고양군 지명유래집』, 상계서, 526쪽.

다. <도 4>에서 보는 바와같이 근처에 탄화미가 출토된 성저리와 가와지가 있다. 김동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엔 동짓달에 도당굿을 하던 도당산이 있다. 예전엔 망종(양력 6월6일이나 7일)무렵이면 보통 모를 다 심지만, 늦는 집은 하지(양력 6월 21일이나 22일)까지도 심는다. 모 심고나서 18-20일 만에 호미로 애벌을 매고, 열흘만에 손으로 두벌을 매었다. 삼동은 개별적으로 피사리를 뽑고 만다.

대화리에서는 모를 내고나면 바로 두레설 계획을 했다. 두레패의 인원은 22-23인이 적당하다고 한다.¹⁶⁾ 새벽 3시면 벌써 오늘 매는 논이 주인댁 일꾼이 복을 치고 마을을 돌아다닌다. 3시반에서 4시 사이에 주인집에 모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5시면 이미 논에 들어가 엎드린다. 이 때는 논맴소리를 하지않는다. 9시에서 9시반 사이에 아침 셋밥이 나온다. 셋밥을 먹고는 농악을 한바탕 울린후 담배 한 대 피우며 조금쉬다가 논바닥에 들어서자마자 노래하기 시작한다. 일련의 노래가 끝날즈음이면 일도 일단락 나며, 12시 반이나 13시정도가 된다. 자리때미할 논(이동하여 가서 매야할 논)이 있으면 1Km이상 떨어진 곳으로라도 이동하여 논을 매지만 이동시에 민바탕의 종기(從旌)만 들고 가며 논바닥이 작을 때는 소리를 안한다. 종기라도 들고 나가는 것은 위치를 알리기 위함이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톨배미논에 와 있더라도 점심은 주인집으로 돌아와서 먹는다. 한나절빵(한나절 매면 끝나는 논)일 경우엔 점심은 오후에 논맴 집으로 가서 먹는다. 식사후엔 잠시 낮잠을 자고나서 농악을 울리며 다시 들로 나간다. 식사와 휴식에 소요되는 점심시간은 1시간 반정도 된다. 논에 들어서면 노래없이 1시간 정도 김을 맨다. 오후4시경에 저녁셋밥이 나온다. 저녁셋밥을 먹고는 논맴소리를 부르는데 오후 5시반이나 6시면 일이 끝난다. 아침 일찍 논매기를 시작해서 저녁 일찍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칠채가락¹⁷⁾으로 귀가길에 올라 동네어귀 가까이 도달하면 흥겹고 조금 느슨한 길놀이 사채로 바꾸어 치면서 주인집으로 들어가 저녁먹고는 한바탕 노는데 장구, 피리도 동원하여 소리판을 벌리곤 했다. 두레김이 끝나면 두레심(결산)을 해서 논이 많아 돈을 내야할 사람은 더 내고 논이 적은 사람은 돈을 받기도 한다. 두벌김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음력 6월 25일에서 7월 칠석 즈음에 하루 날을 받아 풍년을 구가하며 호미걸이 놀이를 하고 두레를 파한다. 호미걸이 행사를 다음과 같이 하곤 했었다: 행사날 아침에 제관이 도당산의 상산나무 아래에다 제상을 차리고서 상산제를 지낸 다음 마을의 놀이마당으로 내려와서 대동제를 지

16) 김현규(대화리 두레의 선소리꾼. 경기도 무형문화재 “고양시 호미걸이”의 예능보유자) 대담.

17) 웃다리농악의 대표적인 가락으로 길곳이나 명석말이 때 친다.(이소라, 『대전웃다리농악』, 대전직할시, 1991)

내는데, 대동제에서는 여자들이 덕담을 하고 고사를 지냈다. 이어서 이웃 두레를 맞이하는 깃절받기와 깃대 채주부리기 및 나이 어린 조사가 깃대에 올라가 농악대의 무동과 얘기를 주고 받는 조사놀리기를 행하였다. 그리고서는 두레꾼들이 뺑 둘러서서 선소리꾼의 북장단에 맞추어 일련의 논맴소리를 한바탕 부른다음, 두레농악대가 집집을 돌면서 풍물굿을 치는 유가제로서 호미걸이 행사를 마쳤다. 깃절받기에 초청되는 두레로는 서촌, 동촌, 내촌, 성저, 강서, 백암 등이 있었다.¹⁸⁾

대화리의 호미걸이는 “고양송포 호미걸이”라는 명칭으로 1998년도에 경기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예능 보유자는 양촌출생 김현규(부친과 조부는 김서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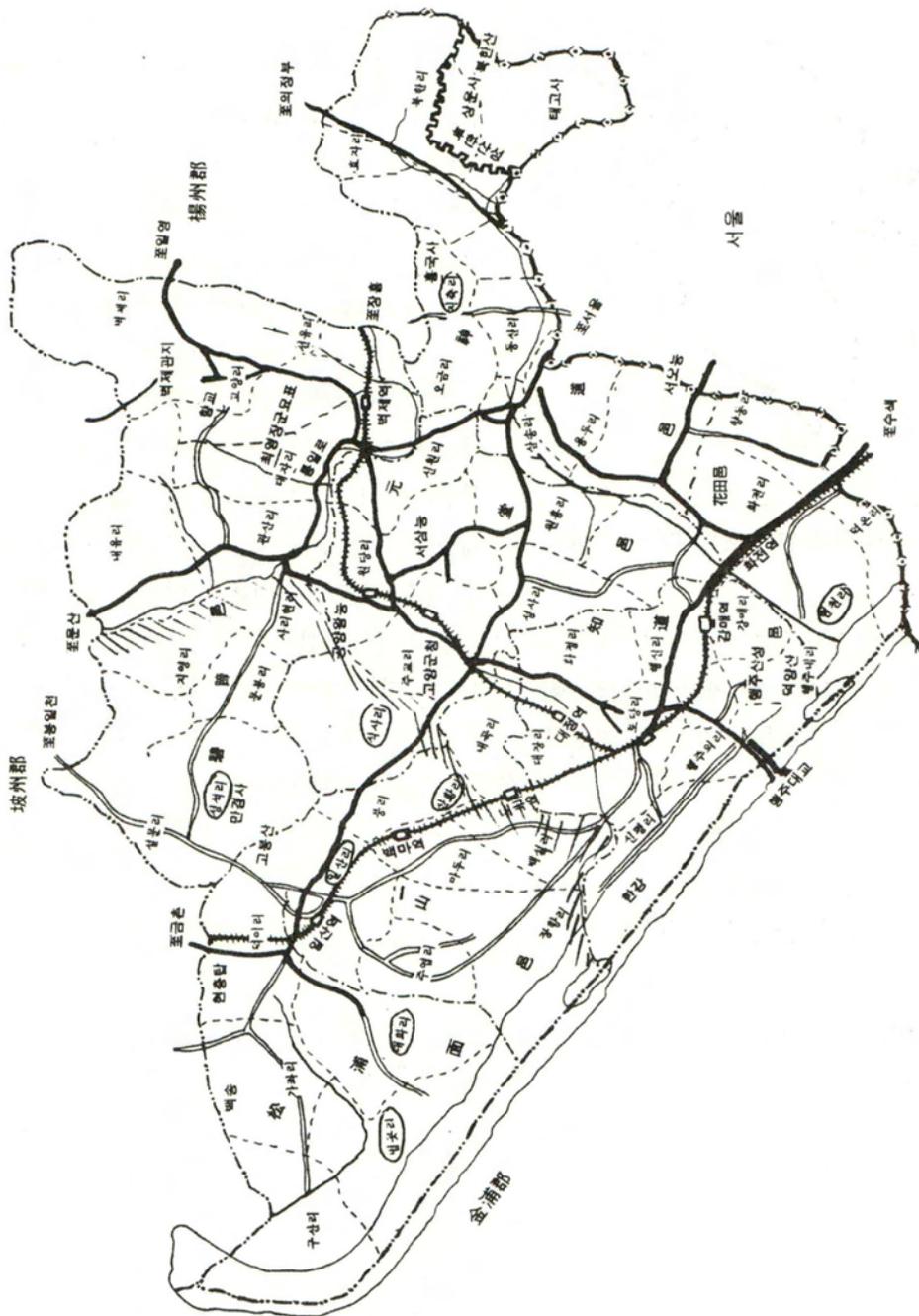
법곶리(법곶리, 法串里)라는 지명은 일제시대에 한강 제방이 축조되기 이전에 한강을 왕래하던 배들이 정박하던 조그마한 포구에서 유래한다. 가창자 김사남은 28대째 거주한다는 토민이다.

지축(紙木丑)리는 지축리의 5개 행정리 중에서도 가장 북동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옛농촌의 자연촌락이 잘 보존되어있는 편이었다. 북쪽으로는 양주군 장흥면과 경계한다. 특히 싸리나무골에는 경주 최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지축리라는 지명은 싸리나무골인 축리와 닥나무가 많아 종이를 만들어 파는 집이 적지않았던 지정동(紙亭洞)에서 따온 것이다.

식사(食寺)3리는 능안골·어침이·방안고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안골엔 평산 심씨가, 후2자엔 경주 정씨, 전주 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식사’란 밥질의 한자 표기인 바,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까지 피신해 왔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웠던 고로 하룻밤을 묵으면서 바라다보니 건너편에 불빛이 보여 불빛따라 찾아간 곳이 절이었음에 유래된다. 어침(御寢)이나 대곶고개 등도 공양왕과 관련된 지명이라 일컬어 온다. 인접지에 공양왕릉이 있다.

산황(山黃)1리는 논농사·밭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북동쪽으로 식사리와 인접한다. 이곳 산의 흙이 다른 곳에 비해 누런 색을 띠고 있어 산황리라 일컫는다. 음력 10월 초하루에 매년 산제를 지내온다고 했다. 소나무 밑에서 자정에 지내는데 농악없이 소지만 울린다. 산황리의 별칭은 당산하울(堂山下鬱)인 바, 산제 지내는 산밑의 나무가 우거졌음에서 연유한다. 별다른 단오풍속은 없다. 추석어나 정월대보름엔 농악을 울리며 놀았다.

18) 김현규 대담. 예전엔 김동, 김서, 양촌이라 부르지않고 서로 ‘건너말’, ‘너머말’로 호칭했다. 양촌에서나 김동에서는 김서를 ‘건너말’이라 불렀다. 양촌서는 김동을 너머말이라 부르고 김동서는 양촌을 너머말이라 불렀다. 고개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건너’라는 어휘엔 도랑건너의 어감이 있다.



<도 3> 고양군 녹음지역(○표)



〈도 4〉 대화리의 벌씨 출토지역(××표)

일산(一山)7리의 마을들은 주로 310번 지방도로와 벽제로 이어지는 58번 군도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음력10월 초하루에 날을 보아 당제를 지내는데, 호당별로 소지를 올려준다. 1979년 이후부터 마을농악이 없어졌다고 한다. 일산이라는 리명은 일제시대에 생겨났다. 한메(송포면 덕이리 한산마을) 또는 한산(고봉산; 큰산·높은산)의 한자표기라고 한다.

현천(玄川)3리 양지말은 대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논농사·밭농사 위주의 촌락이다. 현천리는 1리·2리·3리로 행정구획하는 바, 예전부터 1리엔 충주 지씨와 백천 조씨가, 3리엔 여흥 민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 가

창자 조영용은 38대째 현천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20~30세까지 들에서 두레소리를 하였다고 했다. 현천리엔 고양8현의 한분인 행촌(杏村) 민순(閔純.1520-1591. 여흥 민씨)의 고향으로 묘와 신도비가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천리라는 리명은 골짜기 물이 검은 색깔을 띄웠다하여 부르던 검은 내(거무내, 가무내)·먹골의 한자표기이다.

4.2 고양시 논맴소리의 종류

고양시의 논맴소리로는 고양형 논김양산도<경기 23~27>, 고양형 헤이리 류<경기 31②, 40, 42, 43③>, 자진 놀노리<경기 41>, 화소리<경기 19, 20>, 사두 류<경기 21, 22>, 논김 방아타령<경기 28, 29, 30②, 31①>, 니나누 방아타령<경기 34, 35>, 우겨라 방아<경기 30①, 32, 33>, 땀다<경기 36~39①>, 상사류<경기 31③, 39②, 43②, 45, 48①, 49①, 50①, 50②>, 우야소리<경기 43④, 46, 48②, 49②, 50④>, 몸돌 류<경기 31④, 43⑤, 47, 48③, 49③, 50③> 및 산타령<경기 44>과 기타<경기 43①>를 수집하였다.

4.2.1 고양형 논김양산도 <경기 23~27>

전국의 녹음현장에서 ‘양산도’라 일컬으며 불러주는 곡들을 분류하면, 화순형 논맴양산도와 연파형 논김양산도, 고양형 논김양산도 및 일반 흥민요 양산도가 있다. 이들은 메김소리에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나 받음소리에서 어렵지않게 분별된다. 이 중에서 고양시 지역에서는 고양형이 불리운다. 고양형의 받음소리는 연파형과 비슷하나 다만 후자의 받음소리에서 그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 형태다.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24>의 김현규 창에서는 메김소리의 첫부분(“도 호오 -”)으로 삼는다. 그러나 식사리<26>의 경우에는 완전 탈락한다. 생각건대 연파형 받음소리의 꼬리부분에 메김소리꾼이 소리마중하여 동참 후 본격적으로 맥어나가던 것이 <24>에서는 메김소리꾼 혼자서 부르고, <26>에서는 완전 탈락한 것이라 보여진다.

고양형의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다.

호미걸이<23~25> : 에 에, 에 에이에 에에- / 에에 에어리 도호오 화아
 식사리 <26> : 에 - 이엥에 - , 에-이 에- 헤-에-엥, 이이에 오 호아
 성석리 <27> : 에-에 - , 어리 - , 도호 - 으요

메김소리의 의미구는 4음보 씩이며 “... 늪어지면 못노나니” “슬슬 동풍...” “... 휘털 버리고 내가 돌아간다”의 가사를 쓰고 있다.

<27>에서와 같이 노래하기 전에 메김소리꾼이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네를 불러들이며 입을 모아 일제히 소리가 나오도록 준비시키는 말은 경기지방 회다지 때에 흔히 보는 형태로서 경기도 민요의 한 특색으로 꼽힌다. 고양시 논맴소리에서 수집된 예들을 모아보면 <표 3>과 같다.

연파형의 받음선율은 끝을 들어올려 번음이 특징인데 비해 고양형은 한풀 낮은 음에서 불러 땀는다. <25>는 슬쫓대선법이며 쫓대음과 그 4도윗음 요성이 있고 쫓대음에서 종지한다. <26>의 (받)은 S1.v4.t1이다. <27>은 S2.v4.t4(단.퇴성함)이다.

〈표 3〉 고양군 논맬소리에서 모갑이의 서두풀이

<경기>	지역	서두 풀이
<27>논김양산도	벽제읍 성석1리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 - 옛날옛적 옛노인네 만리장성소리 한마디 느럭느럭 하여보소-
<19>긴소리 (좌 류)	송포면 대화리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 - ” “자, 오늘 날두 선선하구 김두 널만하구 이집이 떡발이 세가마 서말 석되 서흙 서작이니, 옛날옛적 젓날젓적 떡거머리 총각적 현 패랭이 고렐적 나무젓시 맛있을적에 노인네 허던 두레소리 우 럭 우럭 해봅시다 - ”
<20>긴소리 (좌 류)	원당읍 식사3리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 - ” “이만 못한 곳에두 떡이 석섬 서말 서<되> 서흙이 남소 - ”
<32>우겨라방아	일산읍 산황리	“자, 군방님네” “우리 허리드 아프구 그러니 방아타령이나 해 가 며 김좁 맵시다 잘두 좁 매. 김 좁”
<43①>긴소리	송포면 범꽃리	좌우측 군방님네 -, 옛노인 허시던 말삼 잊어버리지 않았거든 새 루 새법 내지말고 한마디 해 봅시다

4.2.2 고양형 헤이리 류 〈경기 31②, 40, 42, 43③〉와 자진 놀노리 〈경기 41〉

고양시에서 가창자들이 어러리소리<31②>는 나무꾼의 소리, 놀노리<40>, 놀노리소래는
낭구꾼의 소래<41>, 훌호리소리는 나무꾼의 소리<42>, 훨노리소리는 상두군의 노래<43
③>라고 맥이면서 논맬 때 불렀던 소리들은 <41>의 자진놀노리를 제외하고는 고양형 헤
이리류에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파주형 헤이리 류보다 짧아 짜른 헤이리 류에 속한다. 나
무꾼소리보다는 회다질 때나 논맬 때의 소리로 애용하면서도 메김구에 나무꾼의 소리임을
밝히는 것은 이 노래의 출처가 송추부근의 서산 나무꾼들에게서 나왔다고 구전됨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¹⁹⁾ 이들의 받음구 예는 <표 4>와 같다.

이들의 받음구는 모두 중간에 호리·노리·헤리·휘리 등 ‘리’를 보유한다. <41>을 제외
하고는 받음선을 첫행은 동음연타 뒤에 2, 3도 상행곡선을 이루며, 제2행에선 비교적 높은 음
에서 시작하여 짚게 굴곡을 짓다가 하행하여 기음종지로 맺는다.

19) 이소라, 『농요의 길을 따라』(밀알, 2001). ; 이소라, 『파주민요론』, 전계서, 제10장 참조.

〈표 4〉 고양시 논맴소리중 헤이리 류

<경기>	지 역	받 음 구	비 고
<31②>	일산7리	호 호 호 리/ 호 오호 호 야	(매)와 (받)이 각각 (12/8)박 2마디씩. S1.t1.
<40>	대화리	놀 놀 놀 노리/ 노 - - 야	(매)와 (받)이 각각 (12/8)박 2마디씩. S1.t1.v4,(5.2).
<42>	벽제동	어 허 어 어, / 어 어어 에 에, 헤리노 오 야	(매)는 4/4 두마디.(받)은 4/4 + 6/4. L1.t1.v5.
<43③>	법꽃리	훨 훨 훨 휘리/ 휘 허허 허허 야	(받)은 (12/8)박 2마디. S1.t1.
<41>	대화리	허 -어 허, / 어 허 허 야 / 닐 닐 닐, 헤리/ 조호 호 오 야	*자진놀노리 (매)와 (받)이 각각 (4/4)박 4마디씩이 원칙임.L4+(술)라레미.t1.{L4의v4, (술)라레미의 미에 요성}.

자진놀노리<41>는 대화리 가창자가 부르고 있는 명칭인 바, 받음선율의 전체 소요시간은 놀노리<40>에 비해 짧지 않지만 말붙임이 배로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갖게 느껴지는 까닭으로 붙은 곡목이라 이해된다.

4.2.3 쇠소리 <경기 19, 20>, 사두 류 <경기 21, 22>

송포 호미걸이에서는 ‘긴소리’라 이름하여 논매는 첫소리로 <19>를 부른 다음 이어서 <21>을 가창한다. <20>은 원당읍 석사리, <22>는 송포면 법꽃리의 토민들이 가창하였다.

모두 유장한 논맴소리이다. <19, 21>을 대화리에서는 앞,뒤 두패로 나누어 소리를 받았다. 예를 들어 앞패가 예-이 에---,를 부르면 뒤패가 예-이 에- 어이-,를 부르고 또 앞패가 사 ---, 이 -,를 부른다. 뒷패가 이어- 어-어-,를 부르고 나면 이번에 앞,뒤패가 다함께 나머지 어어- 어- 어- 를 제창했다.

쇠소리류는 과천시·남양주시 및 양주군에서도 발견된다.

사두류는 과천시와 양주군 및 김포시에서 논맴소리로 수집되며, 안양시 호계1동에서는 봉분을 조금 돋운 후에 다지는 잣은소리²⁰⁾로서 녹음한 바 있다. 맥반형식으로 가창되나, <22>에서는 가창자 김사남이 받음소리 부분을 한번 독창하고 나면 세패로 나누어 이를 복창하였

다고 하니, 메김구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패가 “아 - 아 - ”를 부르면 두 번째 패는 “쥐 - 여어 어 - ”를, 세 번째 패는 그 나머지를 소리내었을 것이다.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

<19>대화 : 에-이 에--, 에-이 에-- 어이-, 사 ---, 이 -,
 이어- 어-어-, 어어- 어-- 어 -

<20>식사 : 에 헤헤에 - , 에 헤헤에 - , 수아- 아- 아,
 에헤에- , 에헤- 헤이헤

<21>대화 : 에 - 에--, 에 --- 이 - , 사 - 두어 -

<22>법곳 : (A)아-아-, (B)쥐-여 어어-, (C)어-어-리, 사-두어

<19,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비고정(非固定)장단곡이다. <19>는 S1.t4.v4. <20>은 S1.t4. v1,4,5. <21>은 S1.t4. v1,4. <22>는 S1(단.첫행은 라-도라 대신에 라-시라로 진행함).t4. v1,4.로서 모두 술선법이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종지한다.

4.2.4 논김방아타령 <경기 28, 29, 30②, 31①>, 니나누 방아타령 <경기 34, 35>, 우겨라 방아타령 <경기 30①, 32, 33>

방아류 민요엔 논김방아타령, 우겨라방아타령, 니나노방아타령, 방아소리(에이여라 방아호), 긴방아(받음구에 ‘방아’라는 어휘가 일반적으로 들어나지않는 형), 예기나 방해, 경기민요의 자진방아타령(뺏다 형), 덜커덩쫓는 방아, 방애로 노자, 경북궁타령, 잔소리경북궁타령 등이 있다. 그밖에 방아류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전북형 방개류가 있다.²¹⁾ 이들 중, 고양시의 논맴소리로서는 전3자와 뺏다 형(후술)이 발견된다.

논김방아타령과 니나노방아타령의 메김소리는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받음구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는 원칙상 별뜻없는 입말로 일관한다. 그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기호로 8분의6박 1마디를 표시해 본다면, 각각 7마디씩이다. 받음선율은 S1줄대선법이며 줄대음의 4도 또는 5도윗음에서 종지한다. 메김선율은 1악티브가 넘는 넓은 음역을 쓴다. (메)의 채보부분에선

20) 이소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문화재청, 2000), 169쪽.

21) 이소라, “경북궁타령 攷,” 『민속학연구』(국립민속박물관, 2001).

쫓대음보다 낮은 음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28> 지축 : 앵 헤앵/ 에 헤이 에헤 요 호, / 에헤-이 앵-헤이/ 애,헤이 아--/

호양 호야/ 어허 야, / 에 헤/

<29> 현천 : 행 행/ 행헤 요, / 헤히 헤헤/ 에헤 야하/ 하 하/ 아하 아하, /행 헤/

<30②>식사 : 에 행/ 에헤 요, / 에이 에앵/ 에-헤이 야-/ 어야 디양/

어 야, / 에 행 /

<31①>일산 : 헤 - / 헤에 요, / 에이 에/ 에헤 야/ 에야 - / 에 야/ 에 헤/

니나노방아타령의 반복구 예에서는 다음과 같이(기호는 3분박4박 1마디 표시) ‘우겨루방아, 니나누방아가 좋소’와 같은 의미구가 들어간다. <35>에서는 받음말이 고정되어 있으나, <34>에서는 전문소리꾼이 부르는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에서처럼 후반부를 니나누방아 대신에 ‘이방아가 똬방아냐 ..’ 등으로 대체해 나간다. 받음선율은 4마디 씩이다.

<34>대화 : 에 - - 헤야, / 에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너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니나누 방아가 좋 다/

<35>성석 : 앵 행 (헤)헤 요, / 어라 우이겨루 방아 야/ 네누,나누,니나나니로 고나/

니나누 방아가 좋 소/

우겨라방아는 <30①>에서처럼 니나노방아타령에 속하는 <35>의 반복구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에-ㅇ 앵 에에헤 요오오오, 어라 우겨루 방아로구나”를 계속 받음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지만, 니나노방아타령에 속하는 <34>에서처럼 그 후반부에 ‘니나노’형만 현실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뿐 잠재적으로는 ‘니나노’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33>의 경우도 있다. <32>에서는 ‘월출동녕에 저기 저달이 막 솟아온다’ 부분과 ‘젊은이 과수는 에헤로 밤벗집 싸누나’ 부분을 받음소리꾼들이 따라 불렀는데, “에헤/에헤이에이 하야-/허라 우겨라 / 방아로 구나”(8분의6박 4마디에 궁하며, S1.t4)에 이어 ‘일락은 서산에 헤떨어지고’나 ‘노들강변’이하에도 합세하였더라면 ‘니나노’부분이 안나왔을 뿐 <34>와의 구별이 수이 되지않았을 것이다. <33>은 S1쫓대선법이며, 쫓대음에서 종지한다.

4.2.5 뺏다 <경기 36~39①>

‘송포 호미걸이’에서는 <36>을 ‘자진방아타령’이라 일컫는다. 노랫말에는 ‘방아’가 나오지 않는데도 굳이 곡명을 ‘자진방아타령’이라 함은 그 유래에 기인한다. 즉, 서울의 선소리 산타령 패에서는 방아타령에 이어 자진방아타령을 불러왔는데 그 받음구의 끝부분은 ‘방아홍아로다’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메김구의 끝말은 ‘뺏다’로 고정된다.²²⁾

<36>에서는 “뺏다 뺏다, 새 새소리 뺏다에-, 예요, 예요, 에이에-에-야 허어야 허야, 헤에 어리 뺏다”를 받음소리꾼들이 부르되 두 번째 받을 때는 ‘- 세소리 뺏다에-’ 다음에 ‘얼씨구나 절씨구나 등글래 절루만 쫓여라’가 삽입되어 받음구가 (고정구+변화구+고정구)로 이루어진다.

성석<37>, 법곶<38>, 화전<39①>에서도 뺏다 류를 논맴면서 불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맥받형식인지는 불명이다.

<36~38>의 음조식은 S1꺾대전법에 t꺾대4. v꺾대1,4 이다.

4.2.6 상사류 <경기 31③, 39②, 43②, 45, 48①, 49①, 50①, 50②>

고양시에서는 잦은 상사류를 논맴 때나 회다질 때 부른다. 그 받음구 예는 “에 네엘넬 상사 디야”<31③>, “엘 넬넬 상사 도야”<48①, 49①, 50②>, “넬 넬넬 상사 디야”<39②>, “네엘 네엘넬 상사 도야”<43②>, “얼 량렁 상사 도야”<45>이다. (매)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씩이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고양시에서는 ‘송포 호미걸이’의 것<45>과 같은 ‘얼렁렁’ 보다는 ‘엘넬넬’ 내지 ‘넬넬넬’이 보편적이다. 전자는 전라도의 터다짐소리에서 선호하는 것이므로 후자가 보다 경기도 적(的)이다. 상사‘디’야 보다는 상사‘도’야가 더 우세하다.

<45>는 S1.t4.이다. 받음소리의 시작을 한번은 질러내고 또 한번은 눅쳐받기를 반복한다. <43②, 50②>는 S1.t4. <39②>의 (받)은 S3.t4. <49①>은 M1.t4. <31③>은 M2.t4. <48①>은 D4.t3. 이듯이 모두 중간음에서 종지한다.

<50①>은 지축마을의 느린상사이다. (매)와 (받)이 내재 4박 1마디이다. 받음구 예는 “앵-헤,에일/ 사항사하/ 동호야하”이다.

22) 이소라, “경복궁타령 攷” 전계서, 239쪽.

4.2.7 우야소리 <경기 43④, 46, 48②, 49②, 50④>

우야소리는 경기지방에서 논매기 끝이나 회다지 끝에 부르는 일노래이다. 고양시는 그 문화중심에 들어 거의가 맥반형식으로 가창한다. 지축<50④>에서는 논매기를 끝맺는 신호로 몸돌 또는 우야소리를 1회 가창하는 것으로 보아 메김구를 부르지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받음구 예는 우후야 훨훨<46, 49②, 50④>, 우야훨훨<48②>, 우후야라 훨훨<43④>과 같이 대동소이하다. “우(후)야훨훨”이 우후야‘라’ 훨훨 형(型)보다 대다수를 차지한다. 우야소리는 일명 ‘새쫓는 소리’로도 통하는 바, 새를 소재로 한 메김구를 잘 쓴다. 풍년이 들어 알곡을 쪼으러 올 새들을 쫓는 것을 예상하여 부르는 풍년구가의 의미가 있다. 일산7리의 김성배는 우야훨훨을 논맬 때는 안부르고, 회다질 때만 부른다. 회다짐 용으로는 새가 죽은이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실어나른다는 북방민족의 신앙이 잔재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대화<46>는 출현음이 라도레미 이며 기음의 4도 윗음인 레에서 ‘도’로 떨어뜨려 맺는다. <43④, 49②>는 S4.t4, 성석<48②>은 M4.t6g 이다.

4.2.8 몸돌 류 <경기 31④, 43⑤, 47, 48③, 49③, 50③>

몸돌류는 논을 다 매갈 무렵에 한 지점을 향하여 에워싸며 모여들면서 부르는 서부경기도 출처의 에염싸는 소리이다. 고양시는 그 문화중심지대에 속한다. 맥반형식으로도 부르고<43⑤, 47> 메김구없이 1회 또는 몇회 복창하고 논밖으로 나가기도 한다<31④, 48③, 49③, 50③>. 그 받음구 내지 반복구 예는 “에이(히)여라 몸돌”<31④, 49③>, “에헤이리 몸돌”<43⑤>, “에헤이여라 몸돌러”<47>, “에어라 몬돌”<48③>, 에어라 몸돌<50③>로 대동소이하다.

<47>은 송포 호미걸이의 것으로, “에헤이여라 빙빙”을 복창하며 맺는다. 받음소리는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47>은 S1.t5g. <31④, 49③>는 S1.t5, <43⑤>는 S1.t4, <48③>은 S2.t5. 로서 술선법이며, 기음의 4도 또는 5도윗음에서 종지하되 이를 퇴성하기도 한다.

4.2.9 산타령 <경기 44>, 기타 <경기 43①>

<44>는 지축리 최창성 창이다. “엥 행 네호올 래야/ 네나, 나니가 산이로호 구나”는 받음구 내지 반복구로 보인다. “이산 저허산 양산간에/ 울고- 간다고/ 예루화 곡,산이로 고- 나”는 메김구에 해당하며, 선율 3분박4박 3마디에 얹어 있다. 경기 뒷산타령이나 서도 뒷산타령은 ‘나지나 산이로구나’로 시작하고 있으나 반복구와 가락이 이와 다르다. S1.t4.v1 이다.

<43①>은 송포면 김사남의 제보인 바, 논매는 첫소리로 느릿하게 “어허리- 오호 - 불”을 부른다고 했다.

4.3 고양시 논맬소리의 성격

고양시의 논맬소리에는 고양형 논김양산도, 고양형 헤이리 류와 자진 놀노리, 쇠소리, 사두 류, 방아타령(논김방아타령·니나누 방아타령·우겨라 방아·땀다), 상사 류, 우야소리, 몸돌 류 및 술선행법의 산타령 류(“엥 행 네호올 래야/ 네나, 나니가 산이로호 구나”)와 “어허리 오호불”이 있다.

고양형 논김양산도는 연파형 논김양산도와 비슷하나 다만 후자의 받음소리에서 그 끝부분이 떨어져나간 형태다. 연파형의 받음선율은 끝을 들어올려 번음이 특징인데 비해 고양형은 한풀 낮은 음에서 불러 맺는다. 술선행법이며 굿대음에서 종지하는 경향이다.

고양형 헤이리 류와 이른바 자진놀노리는 모두 파주형 헤이리 류보다 짧아 짙은 헤이리 류에 속한다. 회다질 때나 논맬 때의 소리로 애용하면서도 메김구에 나무꾼의 소리임을 밝히는 것은 이 노래의 출처가 송추부근의 서산 나무꾼들에게서 나왔다고 구전됨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받음구 중간에 호리·노리·헤리·휘리 등 ‘리’를 보유한다. 자진놀노리를 제외하고는 받음선율 첫행은 동음연타 뒤에 2,3도 상행곡선을 이루며, 제2행에선 비교적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짙게 굴곡을 짓다가 하행하여 기음종지로 맺는다.

쇠소리와 사두 류는 비고정 장단곡이며 유장하다. 술선행법이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종지한다.

논김방아타령·니나누 방아타령·우겨라 방아·땀다 형은 모두 방아타령 류에 속한다. 전3자는 받음소리 부분에서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입말로만 엮어지는 논김방아타령이 고형(古型)일 것으로 여겨진다. 음역이 넓다. 땀다 형은 선소리산타령 계통에서 부르던 자진방아타령에서 유래되며, 음조식은 S1굿대선행법에 t굿대4. v굿대1,4 이다.

상사류로는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인 네넬넬상사와 함께 느린 상사(“엥/ 헤, 에일/ 사항사하/ 동호야하”)가 수집되었다.

우야소리는 경기지방에서 논매기 끝이나 회다질 끝에 부르는 일노래로서 고양시는 그 문화중심에 든다. 받음구 내지 반복구로는 “우(후)야 훨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술선행법인 예도

있고 라선법, 미선법인 예도 있다. 술선법이 더 많지만 미선법, 도선법의 예도 있다. 모두 중간음에서 중지한다.

몸돌 류는 서부경기도 출처의 에엌싸는 소리이며 고양시는 그 문화중심에 든다. 받음구 내지 반복구로는 “에여라 몸돌” 형이 많은 편이다. 술선법이며, 기음의 4도 또는 5도윗음에서 중지하되 이를 퇴성하기도 한다.

논맴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메김소리꾼이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네를 불러들이며 입을 모아 일제히 소리가 나오도록 준비시키는 말은 경기지방 회다지 때에 흔히 보던 형태로서 경기도 민요의 한 특색으로 꼽힌다.

고양시의 논맴소리는 고양형 논김양산도, 고양형 헤이리 류와 자진 놀노리, 쇠소리, 사두류, 논김방아타령, 우야소리, 몸돌소리 등, 고양시 지역이 문화중심권에 놓이는 노래들 및 넬넬 상사와 같이 경기도적인 특색이 가미된 노래들이 주종을 이루며, 술선법계가 주를 이룬다. 고양시는 경기도 중에서도 더욱 경기도적인 중부경기도 민요권을 대표하는 논맴소리지대라 일컬을 수 있다.

<경기 19>

논맴 긴소리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메) 김현규(1942.남)
(반) 김형진, 김형호,
김호권, 김선규
이소라 채보(1985.녹음)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 - "

"예 - "

"자, 오늘 날두 선선하구 김두 널만하구
이집이 떡밭이 세가마 서말 석되 서홉 서작이니
옛날 옛적 젓날 젓적 떡거머리 총각적
헌 패랭이 고멜적 나무젓시 맛있을 적에
노인네 허던 두레소리 우럭 우럭 해봅시다 - "

"예 - "

♩ = 43~50

(메) X

에 이 에 -- -- -- 이에

<복> / Sim.

예 -- 이 에 -- -- 어 이

사 -- -- -- 이

이 -- -- 여 -- -- 어 -- -- 어

어 -- -- 어 -- -- -- 어

(받)

에 이 에 - - - - -

에 이 에 - - 어이

사 - - - - 이

이 - 여 - 어 - 어

어 - 어 어 - - - 어

(매) 우 려 - - - - - 우 려 - - - - -

받 아 마 - - - - - 주 소

(받) 에-이에에- , 에-이에- 어이- ,
 사- , 이- , 이여-어-어- , 어-어-어

(매)

요내 — 춘새 — — 기 은 —

다 지나 — 를 가 고 —

황국 — 단풍이 — 돌아올오네 —

(밭) 에-이-에-에 —, 에-이-에- 어이 —,
 사 —, 이 —, 이여 — 어 — 어 —, 어 — 어 — 어

<경기 20>

긴소리(수아)

고양시 원당읍
식사3리

이천봉(1916.남) 창
88- 5- 25B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네 - "

"에 - "

"이만 못한 곳에 두 떡이 석섬 서말 서디
서흠.이. 남.소 - "

"에 - "

♩ = 150 *참고용





젊 어 간 노 호—미 자 하 하—



늙 어 허 허 지 며 허 는



나 는 못 노 으 리 히 라

(받) 에 헤헤에—, 에 헤헤에—, 수아—아—아아,
 에 헤에—, 에 헤— 헤-이 헤

<경기 21>

사두여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메) 김현규
(받) 김형호, 김형진
김호권, 김선규
이소라 채보(1985녹음)

♩. = 43-50

(메) 30

어 — — 허 이 에

<복예> / Sim.

혜 에 — — 어 리 이

<복예>

<복예>

사 — 두 여

<복예>

(받) 27

에 — 에 — — —

<복예>

에 — — — 이

<복예>

24

사 — 두 여

<복예>

(매) 
 사두여 - 소리 - 로 - -


 또 녀 - 어 를 - - 갔 네 -
 (받) 예 - 예 -, 예 - 이 -, 사 - 두 여 -

(매) 
 강산 불 변 - 에 해 에 -


 재 봉 춘 - - - 일 세 -
 (받) 예 - 예 -, 예 - 이 -, 사 - 두 여 -

<경기 22>

사두소리(논맴)

고양시 송포면
법꽃리

김사남(1917.남.토민) 창
素 88-5-26B

— "아"소리를 무척 길게 낸다. 똥구녕에서 숨을 쉬는 듯이
김사남이 한번 내주면 3뼉으로 나누어 복창한다 —

♩ = 150

(A)

아 - 아 -

취 여 어 - 어

어 - 어 리

사 - - - 두 - 여

(B)

아 아 아

취 여 - -

어 - - 리 -

사 하 아 하 두 여

(C) ㅈ
아 - - 아 - -

취 여 - -

어 - - 어 리

사 하 아 하 두 여

<경기 23>

논김 양산도(고양형)

고양시
호미걸이

호미걸이 보존회 창
- 보급용 -

♩ = 60~67

(받)

에 에 에 에 에이 에 에 - 에

<북> 3 3

에 - 에 에 어 리 도 - 호 화 - / Sim.

(매)

도 호 오 / Sim.

노 세 - 노 세 - 저 젊 어 놀 - - 아 - / Sim.

늪어 - 지 면 못노 - 호나 - - 니히-

(받)

〈경기 24〉

논김 양산도(고양형)

고양시
호미걸이

(매) 김현규
(반) 고양호미걸이전수보존회
1990년대 후반 보존회제작테잎

♩ = 60 (매)

에 에 에 에 이 에 에 에 -
<북> - 3 - 3 - 3

에 - 에 에 어 리 도 - 호 오 화 아
/ Sim.

♩ = 67 (반)

에 에 에 에 이 에 에 에
- 3 - 3

에 에 어 어 이 도 호 화
/ Sim.

(매)

도 호 오 오
/ Sim.

노 세 - 헤노 세 저 젊 어 놀 - - 아 - -
/ Sim.

<경기 25>

논김 양산도

고양시
호미걸이

김현규 창
이소라 채보(1980년대 녹음테이프)

♩ = 60 실음은 단3도 더 높음.

(매)

에 - 에 - 에 이 에 에

<푸>

에 - 어 - 리 도 - - 화

♩ = 67

(반)

에 헤 에 이 에 에

에 에 어 - 리 도 - 화

에 어

노 세 - 노 세 - 저 절 어 놀 - - 아 -

논김 양산도(계속)

<1990년대>

늑 어 - 지 면 못 노 오 호 나 - - 니 히 - -
/ Sim.

(받)

에 에 에 에 이 에 - - 에 -
- 3 - 3 -

에 에 어 어 이 도 호 화 -
/ Sim.

<1980년대>

늑 어 - 지 면 못 노 - 호 나 - - 니 히 -
/ Sim.

(받)

에 에 이 에 - - 에

에 - 어 리 도 - 화
/ Sim.

<경기 26>

논김 양산도

고양시 원당읍
식사3리

(메) 이천봉(1916.남)
(반) 이금만(1934.남.토민)
素 88-5-25B

(반) 에-헝, 에이에헤에-ㅇ 에요아

(메) 노자 노자 젊어 노자
늙어지며는 못노리라

♩ = 150 (반)

에 이 앵 에
에 이 에 헤 - 에 - 앵
이 이에 오 호 - 아
(메) 간 다 - - - 가 노 - - 호 라 하
나 느 - 촌 가 한 다 -
[4] 휘 러 - 리 버 리 - - 고 -
[3] [3]
내 가 돌아 - 가 - 안 다

(메) 습습 뭉뭉에 ~ 꽃잎 비는 오건만
시화 연꽃에는 입만 새겨 노자

〈경기 27〉

논김 양산도

고양시 벽제읍
성석리(진밭)

신천희(1919.남.토민)
이원희(1921.남.토민)
素 88-5-26-2A

서두풀이 :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네 —
 옛날 옛적 옛노이네 만리장성소리 한마디
 느려 느려 하여보소 —

$\text{♩} = 150$

(발) π

에 에

어 리

도 호 으 요

<경기 28>

논김 방아타령

고양시 신도읍
지축리

최창성(1914.남.토민) 창
素 88- 5- 26A

♩. = 35 - 50

(받)

영 해 영 에 헤 이 에 헤 요 호

에 헤 - 이 영 헤 이 에 헤 이 야 - -

호 양 호 야 어 - 허 야 에 헤

(메) ○ 이 소리가 웬 소리가
우리 농부의 소리로 에루화
또 나 간다

♩. = 53-60

(메)

쫓 - - 타 - 조 옷 쿠 나

이 노 - 래 - 가 웬 노 래 나

이 논 김 을 매 - - 면 - 서

이 소 호 리 - 를 허 는 구 나 하 -

〈경기 29〉

논김 방아타령

고양시 화전읍
현천3리

조영용(1932.남.토민) 창
素 88- 5- 26A

(메) ○ 쫓타 지역구나
간다 가요 나는 가요
내가 가며는 아주를 가나
아주를 간다고 잇일 소나

J. = 40~57

(메)

조 옷 타 - - 지 영 쿠 나

노 들 - 강 변 비 들 기 한 쌍

푸 른 콩 알 을 입 에 다 물 고

암 늪 이 물 어 서 솟 늪 을 줄 계

암 늪 솟 늪 수 허 는 소 리

늪 은 과 수 담 배 길 허 구

소년의 (하) 과 - 수 는
 에 루 화 밤 붓 짐 산 - 다 -
 (반) 레 - 오 레 - 오 레 - 오 레 요 -
 레 히 레 레 에 - 레 야 하
 하 하 - 하 하 아 하
 령 레

*호미로 논맴 때 가창했다.

<경기 30>

1. 우겨루 방아
2. 논김 방아타령

고양시 원당읍
식사3리

이금만 창
素 88-5-25B

1. 선율은 논김 방아타령 참고 -

- (받) 에-ㅇ 영 에 에헤 요오오오
어라 우겨루 방아로다 (0:19)
- (매) ㅇ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저기 저달이 막 솟아 온다 (0:22)
- (받) 에-ㅇ 영, 에 에헤 요오오오
어라 우겨루 방아로구나 (0:18)
- (매) ㅇ 절반이 썩 넘어 다 늙었으니
다시 젊기는 하나같이 영 돌아 졌다 (0:21)
- (받) 에헤용 어러양 에 헤에 요오오오오
어라 우겨허루 방아로구나

2. ♩ = 50

- (매) ㅇ 종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저달이 막 솟아 온다

(받)

에 령 에 헤 요 - -

에 이 에 영 에 - 헤이 야 - -

어 야 더 양 어 - 야 - 에 령

(매)

종 - 다 - - 지 영 구 나

하 늘 천 자 따 지 나 땅 에

집 우 나 - 집 자 루 집 을 - 짓 고

날 - 일 자 - 영 창 문 허 니

달 월 자 루 만 달 아 만 놓 고

밤 중 이 며 는 나 지 미 만 나

거 드 렷 - 거 허 허 리 - - 고

에 루 화 늘 아 나 보 - 자

〈경기 31〉

논맴소리

고양시 일산읍
일산7리

김성배(1935.남.토민) 창
素 86-10-26B

1. 방아타령

♩ = 50

(반)

혜 혜 에 요 -
에 이 에 - 에 - 혜 야 - -
에 야 - 에 - - 야 -
에 - 혜

(매) ○ 좋구나 또 좋구나
노자 노자 꺾어서 놀아
늬구서 병들면 나 못노리라

2. 호로리

♩ = 55-50

(반)

호 호 호 호 리
호 - 오 - 호 호 - - 야

(매) ○ 어러리 소리는 나무꾼의 소리다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입을 두고 내가 가네

3. 상사

♩. = 55

— 군방님네 —

(매) ○ 금년 농사 잘두 지머는



오 곡 잡 곡 이 풍 년 이 들 어



에 네 열 벨 상 사 디 야

(매) ○ 앞이 피고 꽃이 피면

○ 오곡 열매 맺혔으니

4. 몸돌

♩. = 55

— 맥이고 받진 않는다 —



에 이 여 라 몸 — 돌



에 이 여 라 몸 — 돌

* 우야월월은 논맴 때는 안부르고, 장사지낼 때 부른다.

<경기 32>

우겨라 방아(논렘)

고양시 일산읍
산황리

(메) 이창하(1922.남.토민)
(받) 임순선 등
素 88-5-26B

"자 - 군방님네"

"예 - "

"우리 허리두 아프구 그러니
방아타령이나 해 가며 김 좀 맷시다. 잘두 좀 매. 김 좀"

(메) ○ 에 좃타 주었구나
방아짚는 군방님네
알구서 짚소 모르고 짚소
<경>신년 경신<월> 경신시에
강태이공의 조작 방아로구나

(받) 해 해 해이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녕에 저기 저달이 막 솟아온다

♩. = 35-40

(메) *f* 좃 - 타 - - 지 열 구 나

강 상 에 돛 없 는 - 뜨 흐 느 - 니 배 는

ff 뱃 전 을 두 리 등 설(ㅎ) 을 리 -- <면> 서 - <살>

어기여 허 디 여차 닷 감 는 - 소 리
 선 부 의 일 천 의 - 간 장 이 - 에 투 화
 물 꿀 듯 - 허 - 헌 다
 (받) 다 에
 헤 에 헤 이 에 이 하 아 -
 헤 라 우 겨 라 방 아 로 - - 구 나

- (예) ○ 노들강변 비들기 한쌍
 푸른콩 하나를 입에다 물고
 암늪이 물어서 수눔을 주구
 수눔이 물어서 암늪을 주며
 암늪 수눔 어루난 소래
 늪은이 과수는 담배질 려고
 짙은이 과수는 에헤로 밤붓질 사누나<싸누나>
- 난사랑에 대를 심어
 그대를 곱게길러
 한강수에 낙숫대라
 냇구 보며는 농사로다
 못 냇으면 상사로다
 상사 농사 매듭을 지어
 어기어 디여차 노래를 부르자

〈경기 33〉

우겨라 방아

고양시 송포면
범포리

김사남(1917.남.토민) 창
素 88-5-25A, 88-5-26B

- 헤 헤 야 어여러. 우겨라 방아로고나
노간다 때려 부셔라 저리 쪼어 노자
늪어 병이나 들면 에헤리 나는 못노리라
- 일락은 서산에 해는 쪽 멀어지고
월출 동녘에 저기 저달이 막 솟아 온다

♩. = 42-36

(메)

엇 - - 타 - - 하 좋 - 구 나

해 멀 어 - 지 - 자 달 솟아 - 오 니

지 는 - 지 - 해 를 누가 불 들어 <농 느> 호 나

♩. = 55

(받)

에 헤 에 - 헤 요 호 -

어 - 라 우 겨 허라 방 아 로 구 나 -

(매)



이 밤 아 저 밤 아 다 저 차 놓 고



쌀 (ㅎ) 방 아 를 - 쫘 <였> 구 나

(밭) 해 해 해 해 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느니가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누 방아가 좋다)

(매) 엇 타 주었구나
 절반이 툽 쫘어 다 늙었으니
 다시 굶지는 곳집이 뺨 들어졌네

(밭) 해 해 해 해 요호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매) 일락은 서산에 해는 툽 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저달이 막숫아 온다

(밭) 해 해 해 해 요호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경기 34〉

니나누 방아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메) 김현규
(반) 김선규 등
이소라 채보(1985녹음)

♩. = 50

(메) α

에 - 야 - -

<복 예>

에 라 우 겨 라 방 아 로 구 나

너 니 가 나 하 누 나 니 가 네 누

에 해 루 방 아 가 좋 다

(반)

에 해 야 -

에 라 우 겨 라 방 아 로 구 나 -

너 니 가 나 누 나 니 가 네 누

니 나 누 방 아 가 좋 다
 (메) 아
 옛 - 다 좋 - 구 나
 이 방 아 가 원 방 아 나
 아 맷 녀 옷 녀 엔 경 상 방 아
 여 주 - 이 천 자 - 차 방 아
 풍 진 - 김 포 는 밀 타 리 방 아
 날 구 장 천 쟁 어 - 도

햇 방 아 뿐 이 로 고평 호 나

(김선규 등)
에 헤 헤 헤 요 -

에 라 우 겨 라 방 아 로 구 나 -

화 초 밭 에 학 두 루 미

두 날 개 를 둥 둥 치 며

짜 른 목 을 길 게 늘 여

길 게 - 쭈 윽 하 고

아 주 나 감 돌 아 - 든 다

<경기 35>

나나누 방아(호미질)

고양시 벽제읍
성석1리 진밭

(메) 신천희
(반) 신천희, 이원희
素 88-5-26-2A

* 곱방이라고도 일컬었음.

♩. = 37~30

(반)

엥 해-오 해 해 요 -- --

<실제 녹음>

엥 해-오 해 요 -- --

어 라 우이겨 루 방 아 - 야 -

네 누 나 누 니나 나 니로 고 나

니 나 누 방 아 가 좋 - 소

- (메)
- 아~타~ 조웃쿠나
오다 가다 만난 님은
정어 어이 깊었던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이루에 만난 것이
에루화 후회로다
 - 훗타 조훗쿠나
노들 강변 비들기 한쌍
검정콩 하나를 물어다 놓고
암늬이 물어서 솥늬를 주고
솥늬이 물어서 암늬를 줄제
노인 과수는 심판것 대고
소년 과수는 에루화 밤뭇집 산다

<경기 36>

뗏다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메) 김현규
(받) 김형호, 김형진
김호권, 김선규
이소라 채보(1985녹음)

♩. = 60

— 가창자는 자진방아타령이라 일컬었음 —

(메)

뗏 다 뗏 다 새 새 소리 뗏 었 다

<복> ♩ ♩ ♩ / Sim.

에 에 — 요 — 에 요

에 에이에 에이에 — 에 에이야 — — 히이야 — —

히 히이 야 헤 — 어 리 뗏 다

(받)

뗏 다 뗏 다 새 새 소리 뗏 었 다 — —

에 에 — — 요 — 에 — — 요 —

에 이에 — 에 — — 야 — — 히이야 — —

히 — — 야 해 에 어 — 리 뗏 다

(매) 뗏 다 뗏 다 정월 이 라 대보름날에

귀모 리장군 긴 코 배기 — 액막이연 이 뗏 다

(반) 뗏 다 뗏 다 새 새 소리

며 었 다 — — 에 얼 씨 구 나

절 씨 구 나 둥글래 절루만 쫓 여 — 라 — —

에 에 — 요 — 에 — 요 —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traditional Korean song. It consists of two staves of music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melody is written in a treble cle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below the notes. The first staff contains the first two lines of the song, and the second staff contains the next two lines. The lyrics are: "에 이 에 - - 에 - - 야 - - 허이 야 - -", "허 - - 야", "헤 에 어 - 리 뗏 다".

에 이 에 - - 에 - - 야 - - 허이 야 - -
허 - - 야 헤 에 어 - 리 뗏 다

<경기 37>

뗏다

고양시 벽제읍
성석리 진밭

신천희(1919.남.토민)
이원희(1921.남.토민)
素 88- 5- 26- 2A

♩. = 60

— 논맴 때 부르기도 했다(이원희 대담) —

뗏 — 다 뗏 다

새 소 호 리 뗏 — 다 —

에 에 헤 요 호

에 헤 야 — 에 히 에 헤

에 헤 야 — — 에 야

어 히 야 — 에 헤

<경기 38>

뺏다 류(논맹)

고양시 송포면
법꽃리

김사남(1917.남.토민) 창
素 88-5-26B

♩. = 60~75

얼 - 씨 구 나 절 - 씨 구 나
 등 그 대 절 루 만 지 영 - 라 - -
 에 에 - 헤 요 -
 에 - 헤 요 호 - 에 야 하
 에 - - 야 - 헤 헤이 리
 좋 다

○ (*뺏다 뺏다) 새 소리가 뺏다
 에 에 헤 요 에 헤 요 에 야 에 헤 야
 헤 헤 리 좋다

*채보자가 부른 부분임.

<경기 39>

1. 뗏다
2. 넬넬넬 상사

고양시
화진읍

조영용 창
88-5-26A

1. - 논 흙칠 때 -

" 뗏다 뗏다 휘 수러리 뗏다하
에 헤이 헤헤야 에헤 헤이 에헤이
에헤이야하 아아아하 헤-ㅇ헤 "

2. ♩. = 30

(발)

넬 - 넬 넬 상 사 디 야

Detailed description: A musical score for a single line of music. It starts with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a 12/8 time signature. The tempo is marked as ♩. = 30. The melody consists of several notes: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 quarter note B-flat4,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flat4, a quarter note A4, a quarter note G4, and a quarter note F4. The lyrics '넬 - 넬 넬 상 사 디 야'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re is a fermata over the second '넬' and a wavy line above the '넬' notes.

〈경기 40〉

놀노리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메) 김현규
(받) 김형호, 김형진
김호권, 김진규
이소라 채보(1985 녹음)

♩ = 50-55

(메) 놀 놀 놀 노 - - 리

놀 노 리 노 아

(받) 놀 놀 놀 노 리

노 - - - - 야

(메) 신 봉 - 사 - 의 - -

거 동 읍 보 아 라

(받) 놀 놀 놀 노 리

노 - - - - - 야

(메) 상 두 뭇 체 - - -

들 씨 - - - - - 잡 고

(밤) 불 불 불 노리 노 - - - 야

(메) 길 건 - - - - - 체 북 을 - - -

정 히 - - - - - 하 고

(밤) 불 불 불 노리 노 - - - 야

<경기 41>

자진놀이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메) 김현규
(반) 김호권, 김형호
김형진, 김신규
이소라 채보(1985 녹음)

♩ = 75

(메) α

허 어 허 허 허 어 야

<복> Sim.

널 널 널 허 리 조 - - 호 호 야

(반)

허 어 허 어 허 허 야

널 널 널 헤 리 조 호 호 오 야

(매) 아 - 아 아 하 아 야

늘 노 리 소 래 는 남 구 꾀 의 - 소 텔 세 -

(발) 허 어 허 어 허 허 야 -

닐 닐 닐 허 리 노 - 호 오 - 야

(매) 아 - 아 아 하 아 야

가 세 가 세 늘 러 를 가 - 세 -

(매) 아 - 아 아 하 아 야

봉 도 따 고 - 님 도 호 - 불 - 점 -

<경기 42>

홀호리(논맹)

고양시 벽제동

(메) 신천희(1919.남.토민)
 (받) 이원희(1921.남.토민)
 素 88-5-26-2A

♩ = 46-50

(메) ○ 호 호 호호 호—
 홀호리 정충에 놀아 보소

(메)

호 호 호 호 호 오 야

홀 호 리 소 리는 나무꾼의 소리다 하

(받)

어 허 어 - -

어 - 어 어 에 - - - 헤 리 노 - - 야

- (메) ○ 호 호 호호 호야
 이팔 청춘 소년들아
- 호 호 호호 호야
 늙은이 보구서 니가 못지 마소
- 호 호 호호 호야
 호랑나비 찬바람에
- 호 호 호호 호야
 울고 가는 저기턱아

<경기 43>

1. 논맴 긴소리
2. 네엘넬넬상사
3. 휘러리소리
4. 우야소리
5. 몸들

고양시 송포면
법꽃리

김사남(1917.남.토민) 창
素 88-5-25A, 88-5-26B

(모같이): " 좌우측 군방님네 -
옛노인 하시던 말삼 잊어버리지 않았거든
새루 새법 내지말고 한마디 해봅시다 "

1. *참고용. "어허리 - 오호 - 불"

2.

♩. = 50-53

(받)

네 엘 네 엘 넬 사 앙 사 도 야

(메)

상 사 허 는 - 우 리 - 동 관

(메) ○ 여러 손님 듣기가 좋게

3.

♩. = 55-60

(받)

휘 휘 휘 휘 리

휘 - - 허 - 허 허 - 허 야 -

— 메김구는 참고용 —



- (메)
- 월리리소리를 잘하시면
 - 가는길을 누가 막나
 - 월리리소리를 잘하시면
 - 돌아간 맹인이 춤을 등실추노라
 - 먼데사람 듣기가 좋게
 - 가칸데 양반은 보기가 좋구나

4. ♩. = 50~55



- (메)
- 새가 새가 날아든다
 -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 말 잘 혀는 영무쟁가
 - 춤을 잘추(는) 학두루미나
 - 몸체 좋다 공<작>이나
 - <높이> 뻗다 종달새 소리
 - 열두시 정각을 가리키는 구나
 - 앞치 뻗다 굴뚝새나

* 4는 메김구 사이에 받음구없이 연달아 가창되었으나 <SR>로 정리함.

(메)



우 야 - 소 리 새 날 리 가 - 네

(메) ○ 새두 날리 나두 나리
○ 뭉땅 날리 연안가 부다

5.

♩. = 67~80

(받)



해 해 이 리 몸 - 들

(메) ○ 이쪽 저쪽 다 매고
몸들 손이 땀네

<경기 44>

네흘래야(산타령)

고양시 신도읍
지축리

최창성(1914.남.토민) 창
素 88- 5- 26A

♩. = 43~50

(발)

에-ㅇ 행 네 호 오 홀 래 야

영 행 네 호 을 래 야

네 나 나 니 가 산 이 로 호 구 나

(메)

이 산 저 허 - 산 양 산 간 에

울. 고 가 - 나 다 - 고

에 루 화 곡 산이로 고 - - 나

〈경기 45〉

상사도야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메) 김현규
(반) 김형호, 김형진
김호권, 김선규
이소라 채보(1985녹음)

♩. = 60-67

(메)α 열 열 열 상 사 도 야

(반)A 열 열 열 상 사 도 야

(메) 상 사 소 리 가 어 쯤 나 좋 은 지

(반)B 열 열 열 상 사 도 야

(메) 어 깨 춤 이 절 로 나 네 (반)A

(메) 한 머 리 는 질 러 를 받 고 (반)B

(메) 또 한 머 리 는 녹 쳐 를 받 소 (반)A

〈경기 46〉

우아훤훤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메) 김현규
(받) 김형호, 김형진
김호권, 김선규
이소라 채보(1985녹음)

♩. = 67

(메) xx
우 후 야 훤 훤

(받)
우 후 야 훤 훤

(메) (받)
우 후 야 소 리 는 새 쫓 는 소 리

(메) (받)
웃 는 에 다 간 찰 벼 를 심 고

(메) (받)
아 랫 는 에 는 매 벼 를 심 어

(메) (받)
수 엷 이 빨 게 서 돼 지 찰 이 나

〈경기 47〉

몸들려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메) 김현규
(반) 김형호, 김형진
김호권, 김선규
이소라 채보(1985녹음)

♩ = 67

(메)α
에 헤이 여 라 몸 들 려

(반)
에 헤이 여 라 몸 들 려

(메) (반)
일 락 석 양-에 해 떨 어 지 - 네

(메) (반)
물 소 리 는 - 가 까 오 고

(메) (반)
빙 빙 들 아 라 따 리 몸 들

(메)
에 헤이 여 라 빙 빙

(반)
에 헤이 여 라 빙 빙

〈경기 48〉

1. 엘넬넬 상사

2. 우야 훨훨

3. 몬돌

고양시 벽제읍
성석1리 진밭

신천희 창
88-5-26-2A

1. ♩. = 50

(발)

에 — 르 넬 넬 상 사 도 야

(매)

이 정 저 정 들어 불 제

- (매)
- 상사 허시는 우리 동관
 - 인심이 좋아서 상살 냐가
 - 배가 고파서 상살 냐가
 - 상사 소리 또 고만 두고
 - 다른 노래로 원겨를 볼소

2. ♩. = 60

(매)

말 잘 허 — 는 영 무 샌 가

(발)

우 — 야 — 훨 훨

3. ♩. = 50

— 북창하고 논밖으로 나온다 —

에 이 라 몬 돌

<경기 49>

1. 엘넬넬 상사

2. 우야소리

3. 몸돌

고양시 원당읍
식사3리

이금만 창
88-5-23B

1. ♩. = 50

(받)

엘 넬 - 넬 상 사 도 야

- (매)
- 노세 노세 꺾어 노세
 - 늪어나 지머는 못노리로다
 - 한강수가 깊다구 해두

(매)

내 마음 만 으은 못 깊으 리 - 라

2. ♩. = 50-55

(받)

우 후 야 율 - 율

- (매)
- 칠팔월이 되었는지
 - 새날리는 소리가 웬 소린가

3.

- 매김구없이 몇회 반복하여 부르고는 논뼤으로 나온다 -

에 이허 여 라 몸 - 돌

<경기 50>

1. 느린 상사
2. 잣은 상사
3. 몸돌
4. 우야

고양시 신도읍
지축리

최창성(1914.남.토민) 창
素 88-5-26A

1. *참고용.

♩ 150

(반) 내재4박, 1마디

영 해 에 일 사 항 사 하 동 호 야 하

(메)

상 사 - 로 호 - 다 상 사 로 구 나

2. ♩. = 50~55

(반) 12/8

엘 넬 네 렬 넬 사 앙 사 하 도 야

(메)

울 다 조 홏 타 잘 두 나 허 현 다

(메) ○ 상사로다 상사로구나

3. - 끝맺는 신호로 한번 부른다 -

12/8

에 여 라 몸 - - 돌

4. "우후야 훨훨"을 논렘때나 장사지낼 때, 맨 끝에 한마디 넣음으로써 끝나는 신호로 삼기도 한다.

5. 과천시시의 논맴소리 <경기 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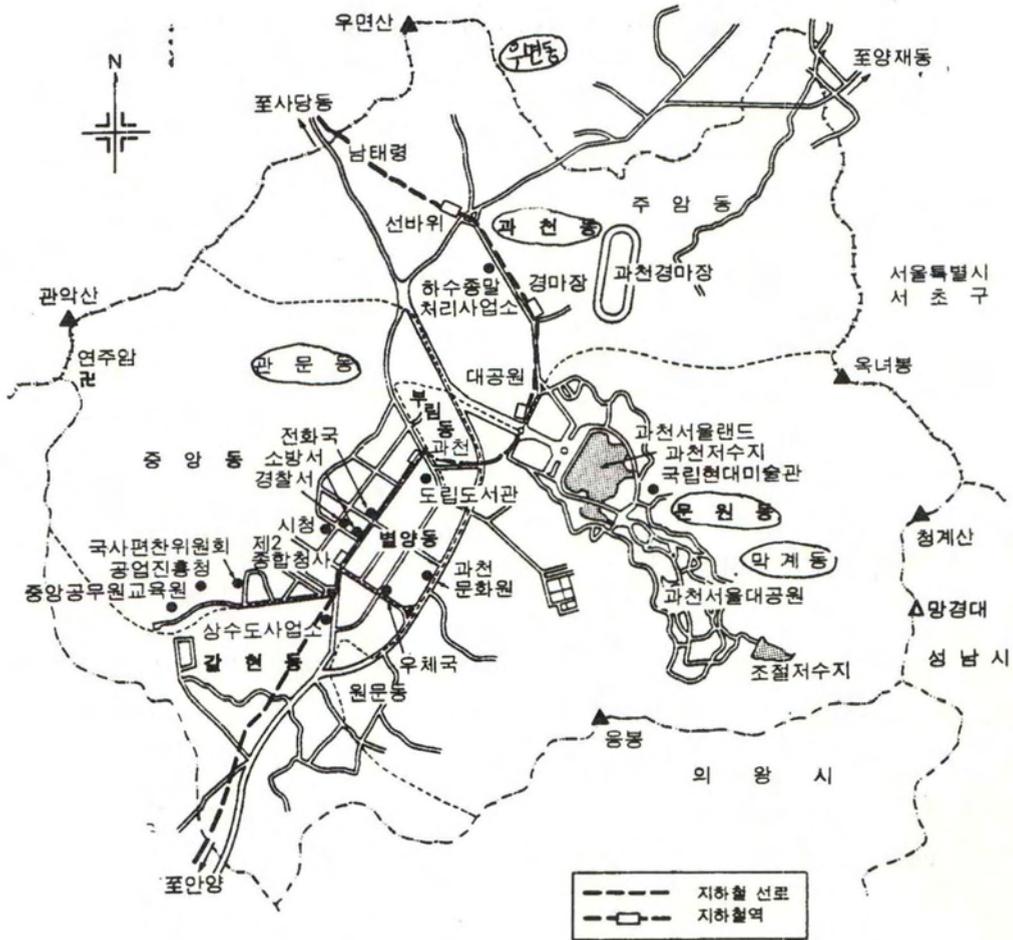
5.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5, 6>

과천시에서는 과천동, 관문동, 막계동, 문원동 및 우면동(현재는 서울의 서초구 우면동)의 논맴소리가 녹음되었다.

<도 5>의 북동부에서 남서부로 이어지는 중앙부는 낮은 구릉과 평지이며, 서쪽과 동쪽은 산악지대이다. 서쪽은 관악산(629.1m)과 우면산(290m)을 경계로 서울의 서초구와 인접한다. 관악산과 우면산 사이의 남태령(南泰嶺)고개는 옛부터 수원, 안양을 거쳐 서울로 가던 길목이었다. 동쪽은 광주산맥의 지맥인 청계산(618m)과 옥녀봉·응봉(349m) 등의 봉우리들이 서울과 성남시 및 의왕시와 마주한다.

과천시 하천의 대부분은 양재천으로 흘러들며, 극히 일부의 물만이 안양천에 흡수된다.²³⁾ 양재천은 관악산의 동남쪽 계곡과 청계산 서쪽 계곡의 물을 모아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울의 서초구 양재동을 관류하여 강남구 개포동·대치동과 송파구 삼전동에서 탄천(炭川)과 합수하여 한강으로 유입된다. 舊과천현 지역이던 양재동엔 삼남(三南: 충청, 경상, 전라)으로 통하는 역이 있었다.

23) 『과천향토사』 上(과천문화원, 1993), 26쪽.



〈도 5〉 과천시의 녹음지역(○표)

과천지역은 삼한시에 마한 땅이었다가 삼국시대에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413-491)이 동왕 63년에 국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추진한 남진정책에 밀려 백제가 수도를 한산에서 웅진(現 공주지역)으로 옮기자 경기도 전지역이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으며 과천지역은 고구려의 울목군(栗木郡)이 되었다. 신라 진흥왕 14년(553)엔 신라에 복속되어 통일신라 말기까지 울진군(栗津郡)으로 불리웠다. 고려 태조 23년(940)의 행정지명 개칭 때엔 밤 등의 과수가 많다하여 과주군(果州郡)이라 칭해졌다. 고려 성종(982-997) 때에 지방토착세력과와의 관련성이 있음직해 보이는 별호제(別號制)가 확립되었는데 과주군의 별호는 부안(富安)

또는 부림(富林)이었다. 조선조 태종13년(1413)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과천지역은 광주목(廣州牧) 소속의 과천현(果川縣)이 되어 ‘과천’이란 지명이 비로소 등장한다. 과천현의 치소는 읍내리(官門里)였다. 과천현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과천시 지역, 서울의 서초구 지역(반포동·방배동·서초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잠원동 등)과 동작구 일부(노량진동·동작동·본동·사당동·흑석동) 및 관악구 남현동, 안양시의 동안구 지역(비산동·평촌동·호계동 등)과 만안구 안양동, 군포시의 금정동·당동·당정동·부곡동·산본동이 이에 해당한다.²⁴⁾ 과천현은 조선조 고종32년(1895)의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과천군이 되고 군내면(현 과천시 일대)·동면(현 서울의 서초구 우면동 방면과 과천시 주암동 일대)·남면(현 군포시 일대)·상서면(上西面; 현 안양시 동안구 방면)·하서면(현 안양시 만안구 방면)·상북면(현 서울의 동작구 사당동 방면과 서초구 반포동 방면)·하북면(서울의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의 7개면을 관할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과천시 녹음마을은 우면동이 과천현 내지 과천군의 동면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그 치소가 있는 현내면(縣內面) 내지 군내면 지역이다.

1914년의 군·면 폐합시에 동면의 주암리를 군내면에 병합시켜 과천면이라 일컫고는 시흥군에 편입시켰는데, 그당시 과천면은 관문·문원·갈현·하리·막계·주암의 6개리였으며 현 과천시의 관할범위는 이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13년(1789)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 현릉원으로 이장한 이후 정조의 원행(園行)거동은 1790-1800년간에 1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제1-5차 거동과 제11차 원행하향(園行下向) 길은 과천로를 통했고 그 이외엔 시흥로를 이용했다. 전자의 경우, 돈화문, 남대문, 노량진, 남태령(본래의 이름은 ‘여우고개’), 과천현 행궁(行宮)과 현 과천시 갈현동을 거쳐 현릉원으로 향했으며 약 6100여명의 인원과 말 1417필이 동원된 대규모 행차였다.²⁵⁾

과천에서는 서울의 5대강(江) 시장인 마포장(생선과 새우젓을 사기에 좋았다)·노량진장(옷감이나 생필품)·송파장·광나루장 및 행주산성방면의 장을 주로 다녔다. 그밖에 소(牛)를

24) 『과천향토사』 上, 상계서, 104쪽.

25) 『과천향토사』 上, 상계서, 209쪽 이하. : 제1차 거동 때 돌아오면서 과천현에 이르러 정조는 과천 동헌을 부림현(富林軒, 내사를 온은사(穩穩舍)라고 명명하고 친히 편액을 썼다. 현재 과천시 중앙동사무소 옆에 있는 ‘온은사’(지방유형문화재 제100호)현판이 그것이다.

거래하기 위해서는 수원장이나 광주군의 경안장을 이용했다. 일제시대에 남서울을 공장지대로 만든다하여 영등포에 시흥군청이 들어서고 안양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되면서 생긴 안양장에도 생필품을 사러다녔다. 과천에는 장이 서지 않았던 고로 화성장과 동대문시장도 이용하는 적도 있었다(막계동의 손효목 대담).

과천동·문원1통에서는 초벌과 두벌매기를 호미로 하고, 세벌은 손으로 훔쳤음에 비하여 (박정식, 고경남, 장업운 대담), 막계동에서는 초벌만 호미로 매고, 두벌과 세벌은 손으로 훔쳤다(손효목 대담).

문원동 1통에서는 논맬 때 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맥었다(고경남). 갈현동 두레가 문원동 두레를 도중에 만나게 되면, 농기를 툇 꽂어놓고 징으로 종고 3회를 치면서 지나가겠다는 표시를 한다. 후자가 징3회로 화답해 주면 그뿐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무리지어 싸움을 하게 된다. 상대방 농기의 팽장목을 먼저 뺏는 쪽이 이긴다. 7월백중에 소잡고 팔떡 찌고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호미걸이 놀이를 했다. 징·쟁쇠·장구·북·제금·날라리를 동원하여 밤이 깊도록 놀곤 했었다. 음력 정월 보름이면 부림동 벌판에서 과천(문원, 부림) : 말죽거리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했다. 굶기가 한아름되는 줄을 디리는 일은 강의 사공들이 와서 도왔다. 줄을 당길 장소로 매고가며 부르는 줄맬소리가 따로 없이 농악만 치고가는 것은 경기도 일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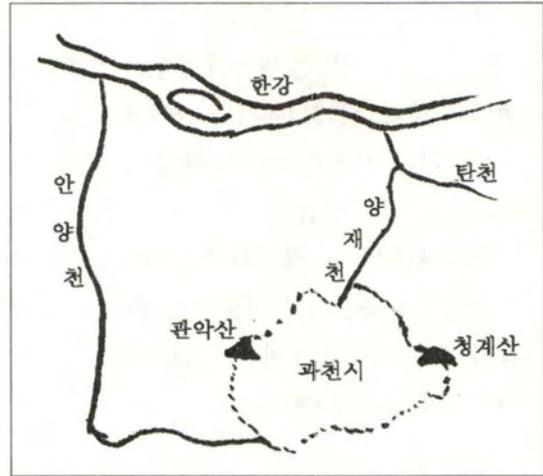
관문동의 정세준도 어릴 때 정월대보름 줄을 다렸다고 했다. 이곳은 예전부터 과천 관아의 문이 있어 관문골(官門洞)로 불리웠다. “과천서부터 긴다”는 속언은 삼남지방의 사람들이 한양갈 때의 길목인지라 도적이 많았던 남태령을 무사히 넘기가 어려웠고, 또한 이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통과세를 받아냈던 과천현감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과천동은 과천면 하리(남태령 밑이라 하여 下里라 일컬음)일대와 우면산 밑의 동네를 합하여 생긴 명칭이다. 하리에 위치한 삼거리의 예전에 한양가는 나그네들이 남태령을 넘어 동재기나루(銅雀津)로 갈 것인지, 우면동 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할려고 잠시 머뭇거렸던 곳이다. 과천7통 벌말(坪村)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앞마을인데 그 토민인 박정식은 두레논을 맬 때 30-40명이 공동작업하였고, 장구를 치며 맥었다고 한다. 또한, 젊은 총각이 죽으면 친구들이 고깔을 쓰고 줄무지를 해 나갔다.²⁶⁾ 막계동에서는 10-30인이 두레로 논을 맬다. 초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과 세벌은 손으로 훔친다. 논매고 나서 소타고 들어오지 않았다. 7월백중에 소잡

26) 이 때는 요령과 북뿐만 아니라 징·쟁과리·제금을 걸들이며 쇠납을 불고 춤추며 나간다. 서러운데 춤추고 나간다하여 이와같은 줄무지를 ‘울락불락’이라고 한다(박정식 대담).

아 먹고 놀았다. 막계(莫溪)라는 이름은 맑은 물이 흐른다는 ‘맑내’에서 온 것으로 청계산의 청계(淸溪)도 같은 의미라고 한다. 청계산 골짜기의 물은 양재천에 합수되는데, 지금은 이 골짜기를 막아 과천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다. 과천저수지 안 쪽엔 서울대공원이, 그 옆으로는 경마장이 들어서 있다.

우면동(현재는 서울의 서초구 우면동)엔 전형적인 북방식 지석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조사 당시 그 일대가 ‘고름장바위’라고 불리웠다 한다.²⁷⁾ 지금은 ‘예술의 전당’이 자리잡고 있다.



<도 6> 과천시와 양재천·안양천

5.2 과천시 논맴소리의 종류

과천의 논맴소리에는 사두소리<경기 51>, 방아소리<경기 52~54>, 방아타령<경기 55, 59>, 우겨루 방아<경기 58>, 예기나 방애<경기 56②>, 긴소리<경기 57>, 싸소리<경기 60>, 엘넬넬 상사두야<경기 61~63>, 우야소리<경기 64, 65>, 몬돌소리<경기 66, 67> 및 넘사소리<경기 56③> 등이 있다.

5.2.1 사두소리 <경기 51>

사두소리는 드물게 수집되는 논맴소리이다. 고양시와 양주군에서 발견되는 논매는 사두 및 안양시 호계동에서 봉분을 조금 돌운 이후에 다지는 달구소리로 수집되는 그것의 과천형이다.

<51>은 막계리에서 손으로 흙칠 때(초벌만 호미로 매고, 두벌과 세벌은 손으로 흙쳤다)의 첫소리로 불리웠다. 처음에 눈에 들어서면 회방아때처럼 ‘곤방네’를 찾는다. 맥반형식이며,

27) 『과천향토사』 上, 전계서, 163쪽.

그 받음구는 “에-이, 에헤-헤에헤 에-오, 싸아어, 하, 아두, 우여 - ” 이다²⁸⁾. 받음소리가 유장하여 고양군의 송포면 법곶리에서는 세패로 나누어 받고, 송포면 대화리에서는 두패로 나누어 받았다 하니, 막계리에서도 그러했을 가능성이 많다.

매김구는 처음에 “어허우어어”라는 별뜻없는 입말로 시작되며, 이어서 4음보(그 1음보는 4 또는 5자 구성이다)로된 의미부가 나온다.

라춧대선법으로 해석된다. 춧대음인 라를 길게 뻗고 요성하는 경향이 보인다. 춧대음의 4도윳음에서 종지하되 이를 퇴성한다. <51>의 끝2행 첫부분인 ‘서리’에서 춧대음 아래로 슬음이 짧은 음가로 출현한다. 라도레미솔의 미 또는 솔 대신에 파가 쓰인 경우(<51>의 제8·14·16행)도 보인다.

5.2.2 방아소리 <경기 52~54>

과천시에서 수집된 방아소리는 짙은 방아소리<54> 내지 중거리 방아류<52, 53>에 속한다.

<54>는 관문동에서 호미로 논맬 때 불렀던 소리이다. 막계동의 사두소리<51>에서처럼 노래 시작전에 군방님네를 부르고 있다. 받음구는 “에이여라 방아요”이며 3분박4박 1마디안에 들어있다. 매김구는 2음보가 선율1마디 안에, 또는 4음보(그 1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가 3분박4박 2마디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

매김가사를 보면, ‘방아’를 물레방아의 방아로 이해하기도 하고, 호미로 논바닥을 찡는 행위를 방아공이로 방아를 찡는 일에 빗대기도 한다. 힘들고 지루하지만 호미질하고 나면 임도 보고 친구들과 술마실 일이 기다리니 열심히 일하자고 고무하거나, 늙어지면 못노나니 젊어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자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젊어서 노자’류의 노랫말도 있다.

방아소리 류는 전파권이 상당히 넓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광주군·남양주·연천군·포천군 등 동북부 방면이 전파의 강세를 보인다. 고양시에서는 녹음되지 않았으며 파주시에서는 연천군 인접의 적성면과 그 아래의 법원읍에서만 수집되었다.

<54②>의 음조식은 S1.t4g. v1,2,4,5 이다. (받)은 기음의 4도윳음에서 시작한다.

<52, 53>의 중거리방아는 <54>의 짙은방아에 비해 속도가 느릿하게 불리울 뿐 별다른 차

28) 받음구의 ‘사두’ 또는 ‘사디’는 상사두야나 상사도야의 ‘사두’ 또는 ‘사디’와 유관한 어휘가 아닐까 여겨진다.

이는 없다. 받음구는 “에이여라 방하요”<52>, “에이여라 방아요”<53>이다. 각각 막계동과 과천7통에서 수집되었다. 막계동의 손효묵은 호미로 논을 맬 때는 힘이 들어 사두·방아타령·양산도 같은 긴소리들은 잘 안부른다고 했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일심으로 김을 매고보면 쌀풍작을 이룰 수 있다는 풍년구가의 내용과,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는 중농(重農)사상을 담은 가사로 되어 있다. <52>는 S1.t4g.v1,2,4,5. <53>은 S1.t1.v1,4,5.의 음조직을 가졌다. (반)의 시작음은 둘다 기음의 4도윗음이다.

5.2.3 방아타령 <경기 55, 59>, 우겨루 방아 <경기 58>, 에기나 방애 <경기 56②>

<55, 59>는 각각 과천7통과 문원동에서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 계통을 논매면서 부르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문원동에서는 <59>를 후술하는 <57>에 이어 부른다.

<55>의 반복구 해당부분은 “엥헤야 에헤양 에헤헤헤 야하/ 어라 우겨어루 바양로호 구나”이며 3분박4박 2마디에 배정되어 있다. S1선법이며 음역이 1악티브 된다. <59>의 반복구는 “에헤용 에헤양 에헤이 야/ 어-거 우겨허라, 방하로호 구나”이며 4분의12박 2마디에 배정되어 있다. 음조직은 S1.t4.v1,4,5,8,9.이며, 음역은 9도로 1악티브를 약간 넘는다.

<58>은 관문동 출신의 김수원 창이다. 받음구가 “에헤 헤야, 에헤 우겨루 방아로, 고나”이다. S1.t4 이다. <58>의 제2행 ‘에’에서와 같이 미 대신에 조금 올라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우면동 출신인 권덕만(<표 1> 참조)은 ‘뽕방아’라 이름하면서 “에헤 에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라고 가창하였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계통인지, 단순한 맥받형식인 우겨라 방아 계통인지는 불명이다.

<56②>는 과천 토민인 정세준이 관문동에서 논흙칠 때 불렀던 소리이다. 호미로 매는 방아소리<54> 때처럼 ‘군방님네’<56①>를 먼저 찾고 있으나 “사양사 타령이나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56②>는 상사소리<63> 다음에 가창된 것으로 해석된다.

<56②>의 받음구 예는 “헤- 에야 헤- 에야, 헤이- 요-라, 에기나 방애-로 고-나”이다. 받음 선율은 화순형 양산도 곡풍이다. 화순형의 논맴양산도²⁹⁾는 전남의 화순군을 중심으로 그 북쪽의 담양군, 순창군 및 남원·진안과 홍성군, 경기도의 안산·평택·성남시에까지 올라온다.

<56②>는 화순형 양산도류의 받음구 중 ‘양산도’가 탈락되고 ‘방애’로 대체된 양상을 보인다.

<56②>의 음조식은 S1.t1.v1,4이다. 기음의 6도윗음에서 5도윗음으로 하향하면서 굴러내려오는 경향이다. 기음의 4도윗음에서 시작한다.

5.2.4 긴소리 <경기 57>, 싹소리 <경기 60>

<57>은 문원동의 고경남 창이다. 호미로 매거나 손으로 훔칠 때의 첫 논김소리로 유장하지만 받음구와 선율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었다. 받음구는 “에기야, 오호-이, 에헤에 에헤에야, 방-헤이에이-히, 에-헤야”이다. 메김소리는 방아타령 류임에 비해 받음소리는 평택지방의 ‘에기야 방게홍게가 논다’ 등이 참고된다.

메김구의 선율은 S1.t1.v1,4,6. 의 음조식을 가지며, 기음의 8도윗음에서 시작하고 음역은 1악티브에 이른다.

받음선율은 eabd`a`를 주요구성음으로 하며 음역이 넓어 11도에 이르고, 기음중지한다. d`는 퇴성하면서 b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전북 등, ‘방게홍게논다’지역의 영향이 있는 선법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57>(반)의 제3행 후반부에서 a(f#)-e로 하행할 때 짧게 f#을 거침으로 인하여 메김선율과 같은 술선법의 영향도 보인다.

<60>은 문원동에서 논매기를 일단락하고 논둑으로 나오기 직전에 불렀던 소리이다. 가장자인 고경남은 여럿이 개보심으로 부르면 해질녘의 산등성이로 기어넘어가던 소리라고 표현했다. 노랫말은 “에에-이, 쉬히 -, 싹아 - ”이다. 고양시 대화리의 것<19>은 논매는 처음에 맥받형식으로 불리웠다. <60>은 4도음역으로 좁으며, 선율진행은 단3도로 짧게 치고 올라가서는 장인(長引)했다가 3도 내지 4도아래의 기음까지 퇴성하여 맺는 식으로 단조롭다.

5.2.5 엘넛넛 상사두야 <경기 61~63>

<61, 62, 63>은 각각 문원동, 과천7동, 관문동에서 수집되었으며 그 받음구 예는 “엘넛넛 상사두야” “에헬넛넛 사향사도호야” “에렐넛, 넛 사향사디하”로 대동소이하다. 舊우면동에도 상사류 논맴소리가 불리운다. 받음선율이 3분박4박 1마디이므로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선율 1마디를 차지함이 일반이나 <61>에서는 4음보씩 2마디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 1음보는 3~6

29) 이소라, “논김 양산도 攷,” 『한국민요학』 제7집(한국민요학회, 1999), 176쪽 이하.

자 구성이다.

<61>은 S2.t4.v1,4. <62>는 S1.t1.v1,4,5. <63>은 S1.t4g.v1,5 의 음조직을 보인다.

5.2.6 우야소리 <경기 64, 65, 67끝부분>

<64, 65>는 각각 문원동과 막계동에서 녹음되었다. 舊우면동에서도 녹음된다. 우야소리는 새날리는 소리라고도 일컬어지는 바, 경기도가 출처지인 노동요이다. 논맴 때는 풍년구가의 의미로 풍년이 들어 새들이 모여들을 상상하여 부른다고 할 수 있다. 회다질 때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신고 천상의 세계로 간다는 시베리아 방면의 민간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과천시에서는 과천7통과 관문동, 막계동의 동일 가창자로부터 회다질 때의 우야소리가 확인되었다.

막계동<65>의 손효목은 우야훤훤을 부르며 눈을 휩싸가면 메뚜기, 뱀, 개구리 등이 놀라 휘- 달아나곤 했다고 하였다.

<65>는 맥반형식으로 가창되었으나 <64, 67>은 독창 또는 제창으로 녹음되었다.

받음구 내지 반복구는 “우야 훤훤” 또는 “우후야라 훤훤”<64> 이다. 3곡의 가사에 모두 ‘웃넉새’ ‘아랫넉새’가 등장한다. <65>는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64>는 솔도레의 3음구성이다. <65>도 그러하며 기음의 4도윗음에서 중지한다. <67>의 제3행 이하를 보면, S4.t5.v4,5.의 음조직을 가졌다.

5.2.7 몬둘소리 <경기 66, 67앞부분>

몬둘 류는 서부 경기도가 문화중심인 예염싸는 소리이다. 고양시와 화성시를 비롯하여 김포·파주·평택·부천·시흥·안산·의왕·광명·구리·화성·안양시와 연천·양주·광주군에도 전파되어 있다.

과천시에서는 막계동<66>과 과천7통<67>에서 수집되었다.

<66>은 맥반형식으로 가창되었으며, 그 받음구가 “에이여라 몬둘이요”이다. (메)와 (반)이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자 구성이다. 음조직은 S1.t4g.v1,4,5. 이다. (반)은 기음의 4도윗음에서 시작한다.

<67>은 몬둘과 우야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 선율 첫2행의 노랫말은 “에이 여허라 몬둘이요”이며 솔라도레의 주요구성음 중 도에서 시작한다. ‘몬둘이요’의 ‘요’는 도표를 길게 뻗다가 솔로 퇴성하여 매듭짓는다.

5.2.8 넘사소리 <경기 56③>, 일반 양산도

<56③>은 관문동 정세준의 제보인 바, 논매기를 매듭지을 때 “넘사”라고 외쳤다고 한다. 드문 예에 속한다. 그는 호미로 맬 때의 방아소리<54>와 논흙칠 때의 에기나 방애<56②> 및 그 밖에 상사<63>를 논맴소리로 가창하였다.(<표 1>참조)

<56①>에서 메김소리꾼이 “군방 군방님네 - ”하고 외치고는 “자,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사양사 타령이나 한번 해봅시다”하는 것을 보면 “에기나 방애” 전에 먼저 상사<63>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56②>를 부르고 넘사<56③>로 끝맺음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천 토민인 손효묵은 막계동에서 논김매던 시절에 양산도도 노래했다하며 일반 양산도 계통을 가창하였다(素91-9-19A ; “에 헤이여 -, 일락은 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 동쪽에 달이 솟아 온다 / 에헤이여 ..”).

5.3 과천시 논맴소리의 성격

경기도의 농요권을 모시는 소리에 기하여 중부·남부·서북부 및 동부권으로 나누면 과천시의 농요는 고양시의 그것과 더불어 중부 경기도권에 소속된다. 남부 경기도권은 충청도, 서북부 경기도권은 황해도, 동부 경기도권은 강원도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음에 비해, 중부 경기도권의 그것은 경기도 농요로서의 특색과 그 순수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과천시의 이웃인 안양시의 농요가 남부 경기도권을 막 벗어나 중부 경기도권에 진입한 농요라고 한다면, 과천농요는 중부 경기도권으로서의 좀더 안정성을 가지는 농요라 할 수 있다.

중부경기도의 대표적 농요지대인 고양시의 논맴소리와 비교해 보면, 방아타령 계통(경기민요 방아타령과 우겨루 방아)·사두소리·싸류·우야소리·몬둘 류가 불리움은 중부경기도로서의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동북부 경기도적인 방아소리와 서남방의 에기나 방애가 있는 점과 헤이리 류(홀호리 류)가 없는 점은 고양시와 구별된다.

대개는 솔(라)도레(미)의 솔선법계에 속한다. 사두소리는 라췌대선법이지만 췌대음인 라 밑으로 솔이 짧은 음가로 출현한다. 기음 또는 그 4도윗음에서 종지하되 이를 퇴성하여 기음인 솔에서 끝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솔도레를 주로 요성한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3분박4박 내지 내재 4박 1마디로 채보된다.

(반) *f* ϵ *mp*
 에 이
 에 해 해 에 해 에

mf *f* *mp* *P* *P*
 자 아 어 하
 아 두 우
 여
 (미) *mf* ϵ
 어 러 우 어 어
 명 사 십 리
 해 당 화 야 - 1
 꽃 이 *mp* ϵ *mf* 지 - 1 다 고
 (반) 서 러 마 소

<경기 52>

방아 소리

과천시
막계동

손효목(1912.남) 창
素 91-9-19^A

실음은 4도 더 낮음 (미) ♩ = 150

(대제2막) (바리)

에 이 여 우 - 라 -

방 아 아 요

! = 34~39 (반)

에 이 여 라 방 아 요

♩ = 120 (미)

이 방 아 - 가 -

♩ = 150

누 방 아 - 나

(미)

집 서 대 주 - 오 - 에

크 - 나 방 아 - 요

(반)

(매) 이 방아를 쪼여보면 /
 백옥같은 흰쌀일세 /
 여러분의 잡술 식량 /
 이 방아가 뉘방아뇨 /
 밥도 술도 어디 있나 /
 우리 일심이 김매여서 /
 곡식가꿔 놓고 보면 /
 천지 영웅 받은 곡식 /
 가을이면 결실 내여 /
 서서타작 하여 보면 /
 곡식가마 산뎀 밀세 /
 우리 많이 먹고 사는 /
 우리 힘이 아니라노 /
 여러분과 협심해서 /
 일시한시 노지말고 /
 일을 하는 원본이요 /

♩. = 40~47

(매) 천 하 지 대 본 - 이 - 녀 (밭)

(매) 농 자 뉘 에 이 도 앓 는 가 (밭)

(매) 열심히 우리 동지 /
 합심 전력 하여 보소 /

<경기 53>

방아소리

과천7통

(메) 박정식
(반) 박정식, 이승재
素 91-8-29^A

(메) 방아 소리가
점점 적다 /

<경기 54>

방아소리(호미)

과천시
관문동

정세준(1929.남. 80년대에
부림동 이주) 창
素 91-8-29^A

♩ = 150

① (선소리권)

(봉구조)

군 방 군 방 녀 네

에

(선소리권)

자 해 는 지 구 해 니

방 아 라 령 이 나 한 번 해 볼 시 다

(봉구조)

예

② ♩ = 46~55 (매)

(반)

해 이 여 - 리 방 아 - 요

(매)

에 이 여 라 방 아 - 요

(반)

방 아 방 아 - 물 레 냥 아

(매)

이 방 아 을 쟁 구 - 나 니

임 도 보 고 - 뱃 밭 도 보 고

(반) //

(매) 노자 노세 풀어서 노자
뉘어지면 못노나니 /

<경기 55>

방아타령

과천7동

박정식 창
素 91-8-29^A

♩. = 35~43

영혜야 영혜야 영혜야 영혜야 하. -

어라 우저 어쿠방 아르호호 구나

노잔다 매려복서라

저리 곱어 어허불아 -

나히 많어허어

백수가 - 된다면

영혜이루 다시(회)노지는

못하 어리라 -

호호 - 쿠나

키영 구나

모함다가다 만나시인임은

정 은 어 허 이 이
 깊 어 영 더-린 지
 에 헤 루 사-킨 것 이
 후 회 르 다

서산에 헤지는 해는
 앵헤루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마다고
 나를 싫다고
 에헤루 가시는 남은
 가고 싶어 가느냐

<경기 56>

에기나 방애(논흙치는 소리)

과천시
관문동

정세준(1929.남. 관문출생.
80년대에 부림동 이주)
素 91-8-29^A(8.30녹음)

① $\text{♩} = 150$ (선소리꾼)

군 방 군 방 남 너
자 일 락 서 산 에 해 는 지 고
자 사 안 사 라 령 이 나 한 번
해 분 시 다

Detailed description: This block contains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marked with a circled '1' and a tempo of 150. It features a vocal line in G major with lyrics and a piano accompaniment consisting of four staves with rhythmic patterns and chords. The lyrics are: '군 방 군 방 남 너 / 자 일 락 서 산 에 해 는 지 고 / 자 사 안 사 라 령 이 나 한 번 / 해 분 시 다'.

② (대)

에 . 에 해 야
아 해 해 이 야 . .
해 이 라
에 기 나 방 애 로 고
나
(반) 해 에 야

Detailed description: This block contains the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marked with a circled '2' and '(대)'. It continue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에 . 에 해 야 / 아 해 해 이 야 . . / 해 이 라 / 에 기 나 방 애 로 고 / 나 / (반) 해 에 야'.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various rhythmic figur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Korean song in G major, 2/4 time. The score consists of ten staves of music with lyrics in Korean. The lyrics are: '헤 아 야 - 라 요 나 방 아 나 고 나 노 자 절 어 (으) 노 자 - - - - - 는 어 허 병 들 며 - - - - - 나 는 못 노 리 르 - - 구 나 - - - - - 일 락 서 산 예'.

해는 딱 멀 어 지 - 구 요 -

워-철 추 - 오 동 녀 에

저 달 만 쏘 는 다 -

(반) f 해 해 아 -

f 여 에 아 -

f 혜 이 요 라

에 기 나 밤 아

f 교 - 나

남 사

<경기 57>

논김 소리 I

과천시
문원동

고경남(1914.남.토민) 창
素 91-8-23^{2B}

-호미 또는 손-

♩ = 150 (mf) f

에 기 이= 호미 또는 손-

에 호미 에

헤 이 야 바 헤 이 에 이 히

(반) f

에 기 이=

오 호 이

에 해 에 에 해 이 야

실음은 반음정 더 높아졌음

바 오 해 이 에 이 리

에 . . . 해 야

(미)
(내세막)
(미미)

저 영 구 나 저 영 구 나

모 다 가 만 나 한 남 은

연 봄 이 리 아 하 - 나 히 변

에 해 루 - 못 살 거 - 았 구 - 추 나

(반)

〈경기 58〉

방아 타령

과천시
관문동

김수원(1898.남. 관문리
출생. 안양시 거주)
素 91-8-23^B

♩ = 150 (반)X

에 헤 헤 야 -
에 헤 우 저 루 방 아 로 고 나
이 방 아 저 방 아 다 더 쪼려 놓 고
장 구 후 배 (ㅎ) 미 히 르
에 헤 루 님 어 풀 가 나 다

(매)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월출동녕에 달솟는다 /

<경기 59>

논김 소리 II

과천시
문원동

고경남(1914.남.토민) 창
素 91-8-23^{2B}

① <S.R> 해석악보

♩ = 100 ~ 75

중모리

1. 에 헤 용 에 헤 양
에 헤 이 야 - -
어 거. 우 거 헤 라
방 하 르 - 호 구 나 Fine.
방 앓 대 절 곳 대 는
다 저 채 허 미 (하) 고 -
인 쉰
저 - 영 미 소 르 -
에 헤 리 방 앓 품 팔 이
가 하 라 라

2 *f* 에 헤 몽 에 헤 - 앙
 에 헤 이. 야 - -
f 어 거 우 거 라
 방 카 르 - 구 나
 이 리 녕 성 저 리 녕 성
 틀 으 러 진 근 십
f 만 락
 바 - 이 - 앙 처 - 허 은
 에 헤 리 궁 구 후 - 2
 려 - 러 라 D.C

② 원 채보 악보 ♩ = 150

(내리 4, 1, 1, 1)
1. 에 헤 용 에 헤 양
에 헤 이 아 - 아
f 어 거 우 겨 허 라
방 하 르 - 호 구 나 Fine.
방 앓 대 절 곳 대 는
다 저 췌 허 미 (하) 고 -
인 췌
저 영 미 소 르 -
에 헤 리 방 아 품 팔 이
가 라 자
(받) f
2. 에 헤 용 에 헤 - 야

<경기 60>

논김 소리Ⅲ

과천시
문원동

고경남 창
素 91-8-23^{2B}

— 끝날 무렵 —

에 - 에 이

쉬 히

호 아 아

〈경기 61〉

엘넬넬 상사두야

과천시
문원동

고경남(1914.남.토민) 창
素 91-8-23^{2B}

♩ = 40~60

(B*)

어 - 2 널 널 상 사 두 야

(반)2

(매)

사 앙 사 부 사 는 등 기 사 다

(반)

(매) 해는 빨리 가는데
 어서 김매고 가잔다 /
 다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구나 /

<경기 62>

에헐렐넬 상사도야(호미)

과천시
과천동

(메) 박정식
(반) 박정식, 이승재
素 91-8-29^아

♩. = 35~40

(반)아

에 헐 렐 넬 사 항 사 도 호 야

(반)아

(메)

상 사 소리 만 지-할 반 취 면

(반)아

(메) 상사로다 상사를세 /
술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 /
배가 고파두 상사로다 /

〈경기 63〉

에레렐렐 상사디아

과천시
관문동

정세준(1929.남) 창
素 91-8-29A

♩. = 38~50

(메) *f* 에 레 렐 - 렐 렐 사 앙 사 - 디 히

(반)

(메) 디 야 . 디 야 사 앙 사 디 야

(반)

(메) 노자 노자 젊어서 노세 /
 누구 병들면 못노나니 /
 상사소리 맞춰가며 /

<경기 64>

우후아라 훨훨

과천시
문원동

고경남 창
素 91-8-23^{2B}

<S.R> ♩ = 60~43
 우 후 아 라 훨 훨
 ♩ = 150
 (새의 새소리) 우 후 아 라 훨 훨
 <S.R>
 웃 녀 새 는 알 루 가 고
 아 래 녀 새 는 위 루 간 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발에 앉지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눈물난다.

<경기 65>

우야훤훤

과천시
막계동

손효목(1912.남) 창
素 91-9-19^A

♩. = 75

(04)~ (반)

우 야 훤 훤

(04) (반)

아 랫 녁 새 야 웃 녁 새 야

(04) (반)

모 두 날 러 들 - 어

<경기 66>

몬들이요

과천시
막계동

손효목(1912.남) 창
素 91-9-19^A

$\text{♩} = 38 \sim 43$

(메) 에 이 여 라 몬 들이 - 요

(반) 에 이 여 라 몬 들이 요

(메) 열 마 지 기 - 닌 바 미 가

(반)

(메) 반 달 걸 이 남 었 고 나

(반)

(메) 우리 협심 끝나므로 /
합심이야 끈칠소나 /

<경기 67>

몽들소리

과천시
과천동

창 : 박정식, 이승재
素 91-8-29^A

$\bullet \text{♩} = 150$

(내재가만)
에 이 여 허 라
몬 들 이 요
못 녀 새 는
알 로 가 고
아 렷 녀 새 는
을 루 간 다
우 야 칠 칠

$\bullet \text{♩} = 40-43$

6. 광명시의 논맴소리 <경기 6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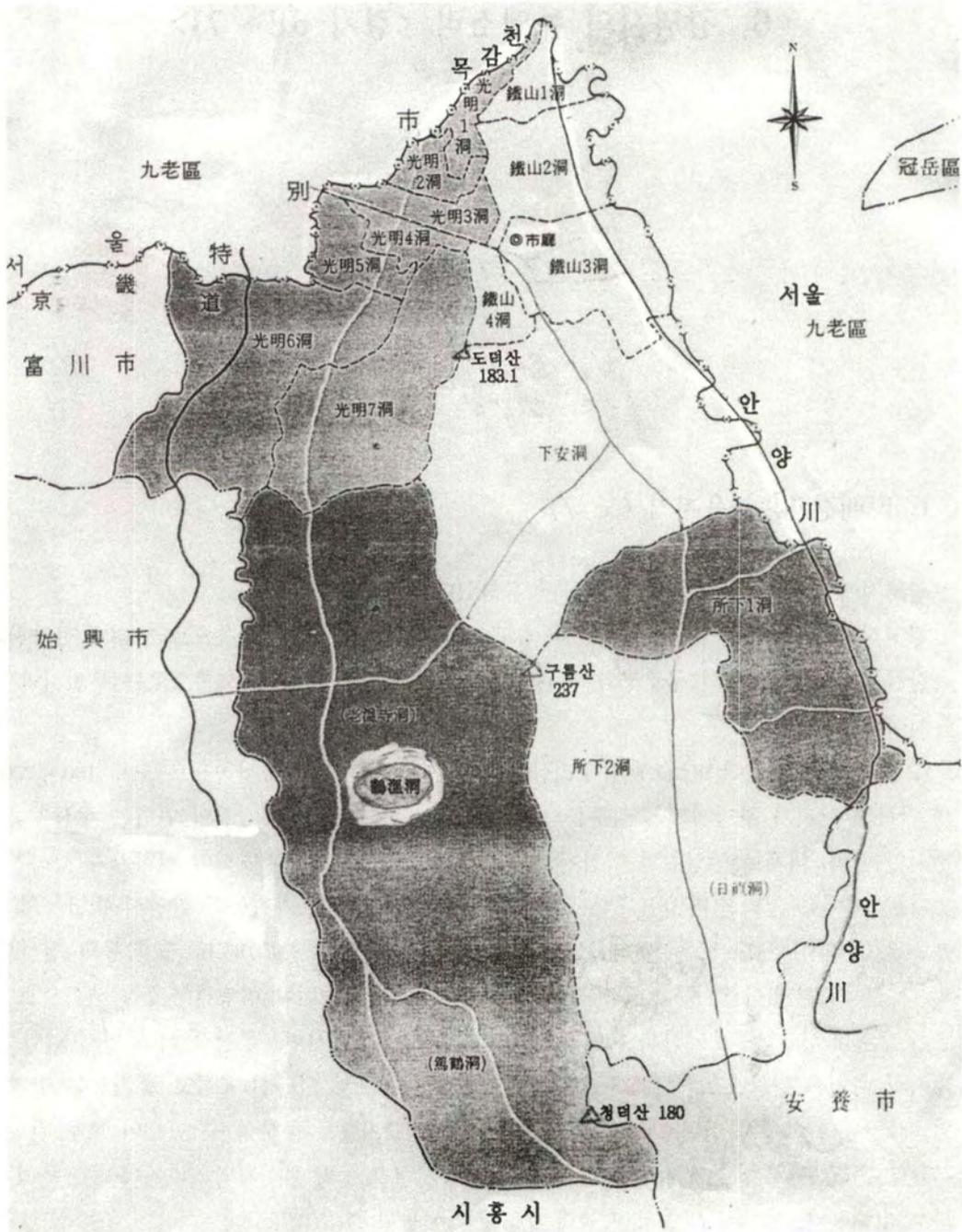
6.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7>

광명시에서는 학운동의 논맴소리를 녹음하였다.

광명시는 중서부 경기도에 위치한다. <도 7>에서 보는 바처럼 북쪽으로는 대개 안양천과 목감천을 경계로 서울의 구로구와 마주하며, 남동쪽으로는 안양시, 서쪽으로는 부천시와 시흥시에 인접한다.

수원 북쪽의 광교산(582m)에서 수리산(修理山, 474.8m)을 거쳐 북서쪽으로 고도 100~200m의 구릉성 산지가 광명시의 중심부를 지나 안양천과 그 지류인 목감천이 만나는 철산동까지 뻗쳐있는 바, 대체로 안양천과 목감천 사이의 낮은 구릉지대에 광명시의 변화가가 자리잡고 있다. 남쪽에는 청덕산(書讀山, 書德山이라고도 일컫는다. 180m. 가학동과 안양시 박달동의 경계), 구름산(雲山, 237m. 노온사동과 소하2동의 경계), 도덕산(道德山, 183.1m. 광명7동과 철산4동 및 하안동의 경계)이 약 3.5 Km 간격으로 서 있으며, 이 산줄기에 병행하여 동·서쪽으로 도로가 달린다 <도 7>. 도덕산의 북동쪽 산기슭에 광명시청·시민운동장 등이 들어서 있다. 광명시의 하천은 남북으로 뻗은 산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안양천 본류로 흘러드는 안양천의 제1지류와 서쪽 목감천으로 모여드는 안양천의 제2지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안양천 본류로 흘러 든다. 광명(光明)시의 지형은 그 이름처럼 햇불의 불꽃모양이라거나 꽃봉우리 같다고 평해진다. 임야가 광명시 전역의 46%를 차지한다.³⁰⁾

30) 『광명시지』(광명시지편찬위원회, 1993), 83쪽 이하, 90쪽.



〈도 7〉 광명시의 행정구역과 학운동의 위치

소하동·학온동·철산동에 분포하는 고인돌 유적지는 광명시 지역에 청동기시대의 인거를 증명해 준다.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하여 이곳을 차지했을 적엔 고구려의 잉벌노현(仍伐奴縣: 지금의 시흥·광명·안양시 일대)에 속했다.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엔 율진군의 영현인 곡양현(穀攘縣) 땅이었다. 고려 태조23년(940)엔 금주(衿州)로 개칭되었으며, 성종 14년(995)엔 수주(富平)에 속하였다. 조선조 태종14년(1414)엔 과천을 합하여 금과현(衿果縣)이라 하였다가 몇 달이 안되어 폐하고는 다시 양천현을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이라 하였고 동 16년(1416)에 금천현(衿川縣)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조 고종 32년(1895)엔 시흥군에 속하였다.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안산과 과천군이 시흥군에 통합되면서 시흥군의 서면에서 4개 리·군내면에서 1개 리·남면에서 3개 리를 합하여 시흥군 서면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이후 30여년간 변동없이 지속되었다. 1979년에 시흥군 서면이 소하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에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되면서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1983년엔 시흥군의 소래읍 옥길리 일부가 광명시로 편입되었다. 1992년 현재로 광명시에는 8개의 법정동(가학동, 노온사동,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하안동)과 17개의 행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학온동(鶴溫洞)은 행정동이며 2개의 법정동이 있는 바, 가학동(駕鶴洞)의 ‘학’과 노온사동(老溫寺洞)의 ‘온’을 따서 학온동이라 칭한다. 가학동은 예전에 학(鶴)의 서식처가 있었던 데서, 노온사동은 조선조에 이 지역에 노온사(老溫寺)라는 사찰이 있었던 데서 지어진 지명이다. 노온사동엔 ①가락골 ②논사리 ③가운데말 ④능말 ⑤새터말 ⑥사들(沙垆) ⑦동창골 ⑧아랫장절이 ⑨웃장절이 ⑩‘외넘어’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①~②는 학온 1통, ③~⑤는 학온 2통, ⑥은 학온 3통, ⑦~⑩은 학온 4통을 이룬다.

본서의 녹음마을은 학온동 2통인 노온사동 가운데말(中村; 학온2통 2반)이다. 가운데말은 능말(陵村: 학온2통 1반)과 새터말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능말과 마찬가지로 남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조선시대엔 시흥군 남면 아방리(阿方里, 아왕리, 양왜)라고 했다가 1914년에 시흥군 서면 노온사리로 개칭되었다. 고려 명장 강감찬의 후예들인 금천 강씨의 세거지였던 능말에서 강봉서(영회원³¹⁾)의 능참봉을 지낸 후손들이 분가하여 터를 잡은 이후로 김해 김씨, 남원 양씨가 입촌하여 30여호가 함께 살고 있다. 능말과 새터말 주민들과 더불어 음력 10월2일에 산신제를 지내며 줄다리기를 행한다(‘아방리’줄다리기로써 2002년도 전국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품하였다). 본서의 논맴소리 가창자들은 남원 양씨인

31) 永懷園(사적 제357호)은 소현세자(1612-1645)의 빈인 민희빈 강씨(愍懷嬪姜氏)의 묘소이다. 본래는 아왕능(阿王陵, 아기능, 애기능)이라 불리웠다. 능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말’이라 일컫는다.

양주완과 양주만이다.

가운데말의 논은 왜정 말기에 저수지가 생기기 전까진 모두 건답이었고 천수답이었다. 논 매기 때는 선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맥였다. 우야소리를 논맴 때는 부르지않고 회방아 끝날 무렵에 부른다. 발면적은 논의 4분의1 정도였으며, 1994년도 녹음 당시 발작물은 콩, 보리 등이었다. 1모작을 지었으며 양력 4월 곡우 무렵에 못자리를 해서는 5월에 모내기를 했다. 모낸 후 보름있다가 호미로 애벌을 땀으며, 열흘 후에 호미로 두벌김을 매었다. 다시 10일 후에 손으로 논을 훑었다. 6.25사변이후로 논맴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여 1958년경 이후론 전혀 부르 지않게 되었다. 애벌과 두벌매기 때에 두레가 섰다. 두레가 설 때는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 세로로 쓴 기를 앞세워 들고 나갔다. 사들(沙袋)가 선생두레였고 아방리 두레가 제자두레였다. 영등포로 장을 보러다녔다.

6.2 광명시 논맴소리의 종류

노은사동 가운데말의 논맴소리에는 논김양산도<경기 68>와 방아소리<경기 69>, 상사<경기 70> 및 문돌소리<경기 71>가 있다.

이들은 모두 맥받형식으로 가창되었다. 그 받음구는 <표 5>와 같다.

〈표 5〉 광명시 학운동 아방리 논맴소리의 받음구례

종 류	악보<경기>	받 음 구 례	음조직
논김양산도	<경기 68>	흥에 헤 헤 헤, 어허- 허오, 이리도- (또는 “흥에- 헤 헤-헝, 오호 -, 이리도 -”)	S1쫓대.t4. v1,4,5.
방아소리	< 69>	에이여라 방아요	S1.t4(단.끝을 올리 기도 함).v1,5.
상사소리	< 70>	어러헐 리얼릴, 사항사 도호야	*참고용(D1.t1.)
문돌소리	< 71>	에헤이 여허라 문돌 이어	D1.t1.

6.2.1 논김양산도 〈경기 68〉

경기도에서 가창자들이 논김을 매면서 불렀다는 ‘양산도’곡을 분류하면 화순형 논맴양산

도, 고양형 논김양산도, 연파형 논김양산도 및 일반 흥민요 곡풍의 양산도를 원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³²⁾ 이들은 받음구 내지 후렴구에서 차이가 나며, 메김소리는 선율과 가사가 통용되어 쓰이곤 한다.

<68>은 고양형 (논김)양산도에 속한다. 고양형이나 연파형은 받음구에 ‘양산도’의 어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에 헤기나 양산도로고나헤”에서와 같이 ‘양산도’를 보유하는 화순형과 일단 구별된다. 연파형 양산도의 예로서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농요단의 경우를 들면, 그 받음구 “에헤- 에헤 ~ ~ 에헤, 에헤-, 오호오-오-, 이일다-아, 오호오-”에서 고양형 양산도와와의 차이는 끝부분인 “이일다-아, 오호오-”에 있게 된다. 연파형 양산도의 이념형³³⁾에 있어서는 마지막 “오호오-”의 시작음이 기음의 4도윗음과 같은 높은 음으로 시작하여 ‘호’부분에서 짧게 치고 올라가서는 끝 ‘오’부분에서 4도이상의 윗음으로 장인(長引)한다. 이에 비해 고양형 양산도는 그 이념형을 고양시 송포 호미걸이의 <경기 23>에서 찾아볼 때, 그 받음구 “에 에, 에에 에이 에 에에-, 에에에어리 도호화”의 끝부분인 ‘도호화’의 선율이 기음으로 하행하여 맺고 만다.

고양형 양산도의 이념형적 특색인 받음구 끝부분이 기음으로 하행하는 현상이 <68>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양형에다 소속시키는 것은 연파형의 특색적 요인이 분류의 지표로서 더 무게를 가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68>의 제3행은 4도윗음으로 장인하다가 (받)의 끝을 짧게 올리나 제11행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메김소리꾼인 양주만이 혼자 부른 결과로, 받음소리꾼들이 따로 있을 때 소리마중하였다가 맥이던 습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표 5>의 음조직에서는 제3행을 무시하고 t4로만 기록하였다.

논김양산도는 술선법이 지배적인데 <68> 역시 S1죽대선법으로 술선법에 소속된다.

6.2.2 방아 <경기 69>

<69>는 방아타령 류(논김방아타령이나 우겨라방아 및 흥민요 방아타령)와 구별되는 이른바 ‘방아소리’이다. 전자는 고양시 등 중부경기도적인 특색이면서 노동요로서의 전파권이 후

32) 이소라, “논김양산도 攷,” 『한국민요학』 제7집(한국민요학회, 1999).

33) Max Weber의 이념형적 개념구성에 해당한다. 이는 경험적인 규칙성과 동기의 의미이해를 동시에 중시하기 위해 베버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념형은 사회과학이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유개념(Gattungsbegriff)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로써 이념을 현실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여 우리의 지식을 정확히 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김문환, “막스 베버의 음악사회학,” 『음악사회학』, 이건용 번역, 민음사, 1993, 171쪽).

자에 비해 훨씬 좁다. 후자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 논맴소리로 쓰이는 예가 광범위하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포천군·연천군·남양주 등 동북부 방면이 보다 강세를 보였고, 고양시에서는 녹음되지 않았다.

<69>는 술선법이다. 느리게 부르는 중거리방아가 아닌 짜른방아에 속한다. (메)와 (받)이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김포 통진의 밀타리 쌀을 찧는 방아, 여주 이천지방의 명물인 자채쌀(일찍 추수하는 올벼의 종류임)을 찧는 방아, 산골마을의 디딜방아, 평지 마을로 들어서면 축력(畜力)에 의해 돌리는 연자방아, 산골짜기의 수력(水力)을 이용하는 물레방아 등 여러가지 방아를 동원하여 곡식을 다 찧고나니 하루해가 넘어가 버리고 날이 어두웠다는 뜻으로 가사가 이해된다. 아마도 노온사동의 가운데말에서는 호미로 논감을 매면서 방아소리를 즐겨 불렀을 것이다.

<69>의 제1행은 “에이여라 방아요”의 ‘요’부분을 기음의 4도윗음에서 그대로 맺지않고 끝을 장2도위로 짧게 들어올렸다. 일반 받음소리꾼일 경우엔 언제나 이와같이 짧게 들어올리진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6.2.3 상사 <경기 70>

<70>은 테잎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참고용 선율이다. 일반속도보다 조금 느릿하게 가창된 연고로 받음구가 “어덜덜덜 상사도야” 대신에 “어러-헐 러덜덜, 사항사 도호야”로 풀어서 발음한다거나 메김구에서도 ‘영감’을 ‘영가함’으로 ‘보소’를 ‘보호소’로 ㅎ 글자를 덧붙이고 있다. ‘러덜덜’ 다음에 숨을 쉬는 것도 느릿하게 가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메)와 (받)은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으로 채보되어 있다. 그러나 ‘어러-헐’의 ‘러’를 장인하는 습관 때문에 4박중 제1박이 길어지게 된다.

메김구에서 논주인이 술병을 들고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뒤라 맛이 더욱 좋을 술마실 생각을 하며 얼른 눈을 매자고 독려하는 의미가 들어 있을 것 같다.

6.2.4 몬돌 <경기 71>

<71>은 논매기가 끝날 무렵, 에음을 싸면서 부르던 소리이다. ‘몬돌’이란 ‘몸을 ‘돌’려가며 씹을 싸가는 모습을 형용하는 ‘몸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메)와 (받)은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4박중 그 1박의 속도가 선율채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M.M. 46~50으로 가창되었다. 노동요에 있어서는 이때의 1박이 M.M.50인 경우가 ‘보통

속도’(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 내지 6자 구성이다. “두렁잡이가 골을 뚫었으니 몬돌 손에 밭을 다치지않게 이리저리 살펴가라” 거나 “뒤쳐진 곳으루 손을 주게” 등과 같이 작업 관련의 내용과 “한섬지기 논을 다 매었으니 맛있는 막걸리 상급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주인 영감에게 득달하는 정경을 가락을 넣어 읊고 있다.

6.3 광명시 논맴소리의 성격

광명시 노온사동 가운데말의 논맴소리는 고양형에 가까운 논김양산도와 몬돌소리가 불리우며 위치상으로도 고양시나 서울방면의 중부경기도에 과천시보다 더욱 접근해 있으며 모심는 소리에 있어서도 중부경기도의 소리인 열소리가 불리운다(素94-7-6B)는 점에서 중부경기도권에 소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중부경기도권인 고양시의 논맴소리와 비교해볼 때, 방아타령류가 불리우지 않고, 훌호리소리 류(헤이리 류)가 없는 점, 방아소리를 부르는 점 등에서 차이가 난다.

<경기 68>

논렘 양산도

광명시
학운동

양주만(1929.남.토편) 창
이소라 채보(94-7-6)

= 150

(발)

흥 에 헤 헤 행 -

오 호 -

이 리 - 도 -

- 이하. T.P 되었으나처음의 조로 채보함 -

(매)

오 호 -

선 소리 - 소 리 에

풍 년 이 - 오 구 요

만 물 중 에 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traditional Korean song.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first staff has the lyrics '잘 매 나 - 주 - 소'.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발)' and has '흥 에 헤 헤 헤 -'. The third staff has '어 허 - 허 오'. The fourth staff has '이 리 - 도'. There are wavy lines above some notes, indicating a specific melodic style.

잘 매 나 - 주 - 소

(발) 흥 에 헤 헤 헤 -

어 허 - 허 오

이 리 - 도

(메) ○ 오호 - 명사십리 해당화는
꽃진다구 서러마라

<경기 69>

방아(논맹)

광명시
노온사동(학운동)

창 : 양주완(1919.남.토민)
양주만(1929.남.토민)
素 94-7-6B

♩. = 55-60



에 이 여 라 방 아 요 -

- (메) ○ 이방아가 뉘방아냐
- 김포 퉁진 밀타리 방아



여 주 후 이 천 에 자 채 - 방 아



말 - 루 들 어 서 연 - 자 방 아

- (메) ○ 산골로나 디딜방아
- 물루 들어서 물레 방아
- 이방아를 다 쪼구 보면
- 저녁놀이 되워졌네

<경기 70>

상사(논맴)광명시
노은사동(학운동)

* 참고용

창 : 양주완(1919.남.토민)
양주만(1929.남.토민)
素 94-7-6AB

♩. = 35~40

— 북치면서 맥였다 —

(매) ○ 상사 부사가 동부사라



어 러-헐 러 얼 털 사 항 사 도 호 야



권 영 가 함 의 거 등 을 보 호-소

(매) ○ 술병을 들고 분주하구나

<경기 71>

몬돌

광명시
노온사동(학운동)

창 : 양주완(1919.남.토민)
양주만(1929.남.토민)
素 94-7-6B

♩. = 46~50

— 에엌싸는 소리 —

*첫 행은 음정 불안하여 <SR>



에 헤이 여 허 라 몬 들 이 - 여

(메) ○ 두렁 잭이가 골을 뚫었으니



몬 들 손 에 발 다 치 일 라

- (메) ○ 이리 저리 살퍼를 가소
- 뒤쳐진 곳으루 손을 주게
- 한섬 지기 논배미가
- 반달 만큼 남었 구나
- 권 영감아 이리 좀 오소
- 한섬 지기를 다 매었으니
- 상급이 라거이 나와 야지

7. 광주군의 논맴소리 <경기 72~89>

7.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8, 9>

광주군에서는 광주읍 태전리, 남종면 분원리와 금사리, 도척면 노곡리, 실촌면 수양1리와 수양4리, 오포면 양벌리와 추자리, 중부면 광지원리, 초월면 지월1리 및 퇴촌면 광동1리의 논맴소리를 녹음하였다.

광주군(廣州郡)은 북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주군의 양서면과 마주본다. 동으로는 앵자봉(666.8m)과 천덕봉(634.5m)의 능선을 경계로 양평군 강하면·여주군 금사면과 인접한다. 남쪽은 정개산(406.7m)·국수봉(427m)·정광산(523.5m)·노고봉(578.6m) 등을 경계로 이천시 신둔면과 마장면, 용인시 내서면과 모서면에 인접한다. 서쪽은 불곡산(344.5m)에서 금단산(534.7m)·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경계로 성남시와 접해있고, 또한 서북방으로는 서울의 강동구와 접해 있다.

광주군은 한강과 한양에 접해 있다는 인문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한강 수운(水運)시대가 지났고, 군의 관할 면적이 매우 축소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부고속도로가 군내를 관통하는 등,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다.

광주군은 광주산맥의 영향권내에 있는 관계로 임야지가 8할되며 다수의 지역이 산세(山勢)로 덮여있다. 오포면 양벌리 부근의 경안천(京安川)유역과 동부읍의 한강유역에 다소 평야가

조성되었다. 계곡이 많음에 따라 발달한 군내의 세천(細川)들 모두가 북 또는 북동쪽으로 흘러 한강을 향한다.

군내의 선사 유적으로는 도척면 궁평리(일명 궁뜰)의 구석기유적지가 있다.

일찍이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쫓기어 남하하여 회안국(淮安國)을 세웠으며 이를 토대로 백제의 하남위례성이 건설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에 밀려 백제는 지금의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 일대에다 도읍을 정한 바 있다.³⁴⁾ 그후 백제 개로왕이 그 21년(475)에 고구려 장수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 동생 문주왕이 도읍을 웅진(현 공주)으로 옮기자 이로부터 60여년간 광주 땅은 고구려지배를 받았다가 신라 진흥왕 때인 553년엔 신라의 영토가 된다. 광주(廣州)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23년(940)부터이다. 현종9년(1018)의 지방제도가 8목(牧)으로 개편되었을 때에 광주목은 지금의 광주군을 비롯하여 이천·과천·죽산(竹山)·양평·용인 등의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 후 5도가 설치되었을 때, 이 지역은 양주와 광주에서 이름을 딴 양광도(楊廣道)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은 큰 변동없이 조선조에 이어졌다.

일제는 1910년에 군치소(郡治所)가 있던 남한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별도로 군내면을 설치하고, 세촌면(<도 9>의 세천면에 해당)을 중부면에 병합하였다. 1912년에는 <도 9>의 월곡면, 송동면, 일용면, 성곶면, 북방면을 수원군과 시흥군에, 초부면을 양주군에 이관시켰다. 1914년에는 왕륜면·의곡면을 수원군·시흥군에 편입시키고, 군내면을 중부면으로 개칭하였으며, 양평군 남종면을 광주군에 편입시켰다. 1917년에는 남한산성 부근인 중부면 산성리에 있던 관청을 경안면(慶安面) 경안리로 옮겼다. 1939년에는 경안면을 광주면(廣州面)으로 개칭하였다.

196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를 성남에 대거 이주시켜 1964년 2월에 중부면에 다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서울의 확장에 따라 1968년에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과 대왕면의 일부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1973년엔 성남시를 신설함과 동시에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의 일부가 성남시 관할로 변경되었다.

1979년엔 광주면이, 1980년엔 동부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로는 2읍 8개면에 106개의 법정리가 존재한다.<도 8>

34) 『광주군지』(광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55~142쪽. 春宮里는 1914년도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서부면의 春長과 宮村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명이다. 마을 가까이에 위치한 二聖山(209.8m)에는 包谷形의 석축산성인 이성산성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거하면 광주고를 사람들은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많이 지었다. 사람이 많이 사는 인근의 한양에 송과나 판교 또는 광나루 집산장을 통해 내다 팔기는 쌀보다 채소류를 농사짓는 것이 훨씬 이익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과의 무우, 분원의 배추, 실촌의 고추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³⁵⁾

초월면 지월리(草月面 池月里)는 ‘도수랭이’마을로도 통한다. 1989년도의 녹음당시, 논은 1000마지기(1마지기=200평)·밭은 400마지기 되며, 각성반이 촌으로 80호 전부가 농가였다. 밭작물은 주로 채소다. 애벌은 호미로 매고, 두벌은 손으로 흠친다. 정월보름이면 줄다리기를 했고 집들이 농악을 치며 고사소리도 했으나 줄맬소리(줄을 매고 줄당기기 현장으로 운반해 갈 때 부르는 소리)는 없다.³⁶⁾ 음력 4월 초파일엔 대동(大同)천렵놀이를 했다. 지월리라는 지명은 마을 한가운데에 큰 논배미 하나가 못(池)을 이루고 있어 지곡(池谷, 못골)이라 하였다가 달이 비치면 매우 아름답다 하여 월(月)을 첨가하였다고도 하고 또는 초월면의 월을 따서 지월리(池月里)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지월리에는 자연마을이 셋(1, 2, 3리) 있으며 2리는 경수리(鏡水里), 3리는 설월리(雪月里)로 통한다.

광주읍 태전리(胎田里)는 조선조 성종의 태를 묻은 태봉산(胎峰山)이 있고 또한 화전(火田)이 많다는 데서 태전리라 불리운다 한다.

남중면 금사리(南終面 金沙里)는 옛부터 마을앞 개울에서 사금(沙金)이 났다하여 불리우는 이름이다. 현재는 팔당댐의 건설로 수몰되어 버렸다. 호미로 논맬 때나 두벌 때에 북을 치면서 노래했다.

남중면 분원리(南終面 分院里)는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는 사기그릇을 관장하던 사옹원(司饗院)의 현지 제작소가 있던 곳으로서 분점(分店)이라는 뜻에서 분원이라 불리웠다. 이곳에는 옹기와 사기를 구워 파는 시장이 오랫동안 번창하였으나 을축년(1924) 대홍수 이후로 갑자기 쇠퇴되었다. 호미로도 논을 매고 손으로도 흠치는데, 북을 치면서 소리를 맥였다. 줄다리기를 했다.

도척면 노곡리(都尺面 老谷里)는 마을뒷산의 모양이 노루(獐)형국이고 마을은 그 노루의 목

35) 『광주군지』, 상계서, 240쪽. 조선조 성종 때의 『동국여지승람』에는 이곳의 산물로 밤, 앵두, 능금, 옷, 자초, 수철, 석회, 실, 목화, 삼베, 자기, 도기, 은어, 잉어, 쏘가리, 누치, 밀어, 게 등을 들먹인다.

36) 햇불놀이, 답교놀이나 거북놀이를 하지않았다. 면소재지 마을(곤지암리)에서도 매년 줄다리기를 했는데 길건너편과 길아랫편으로 편을 갈랐다.

(項)부분에 위치한다 하여 노루목(獐項)이라 일컫던 것을 행정구역 개편시에 노곡리(老谷里)라고 하게되었다고 한다. 줄다리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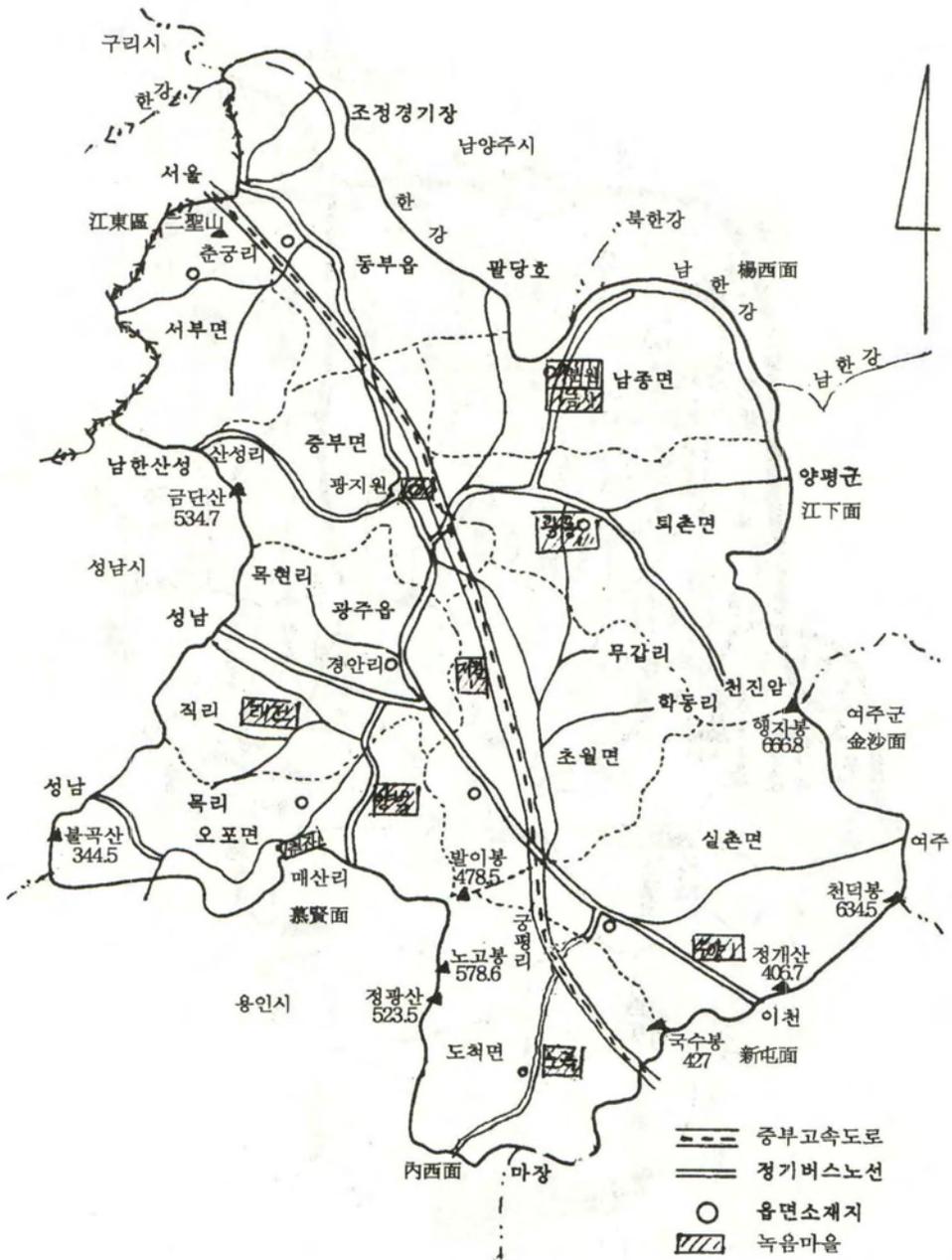
실촌면 수양리(實村面 水陽里)의 이름은 구수동(九水洞)과 구양동(龜陽洞)의 합성어이다. 구양동은 이 마을의 양지쪽에 거북 형상의 큰바위가 있어 불리운 명칭이며 구양이 또는 이를 줄려 ‘갱이’라고도 부른다. 그밖의 자연마을로는 복상골(伏象谷 ;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세가 코끼리가 엮드려있는 형국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돌문이(이곳에 돌을 쌓아 만든 큰 石門이 있었다), 어둡골(높은 2개의 산 사이에 마을이 위치하여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이 있다.

오포면 양벌리(五浦面 陽伐里)는 1915년의 리명 개편시에 양촌리(陽村里)·벌리(伐里)·둔전말(屯田洞)을 합하였을 때 생겨난 명칭이다. 양촌리는 조선조 후기부터 양씨(楊氏)의 집성촌이라 하여 양촌(楊村)으로 이름하다가 뒤에 陽村으로 적었다고 한다. 벌리는 마을 앞 넓은 농경지가 있는 고로 벌말(野村)이라 부르던 것을 같은 음을 따서 벌리(伐里)라 하였다. 둔전말은 고려시대부터 주둔하는 군대의 식량을 대는 둔전(屯田)이 있다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양벌리는 물이 풍부한 곳이라 물품을 필요성이 없었다고 한다(신문창 대담). 줄다리기를 할 때는 부인네들 편과 남자 편으로 편을 갈랐으며, 줄맴소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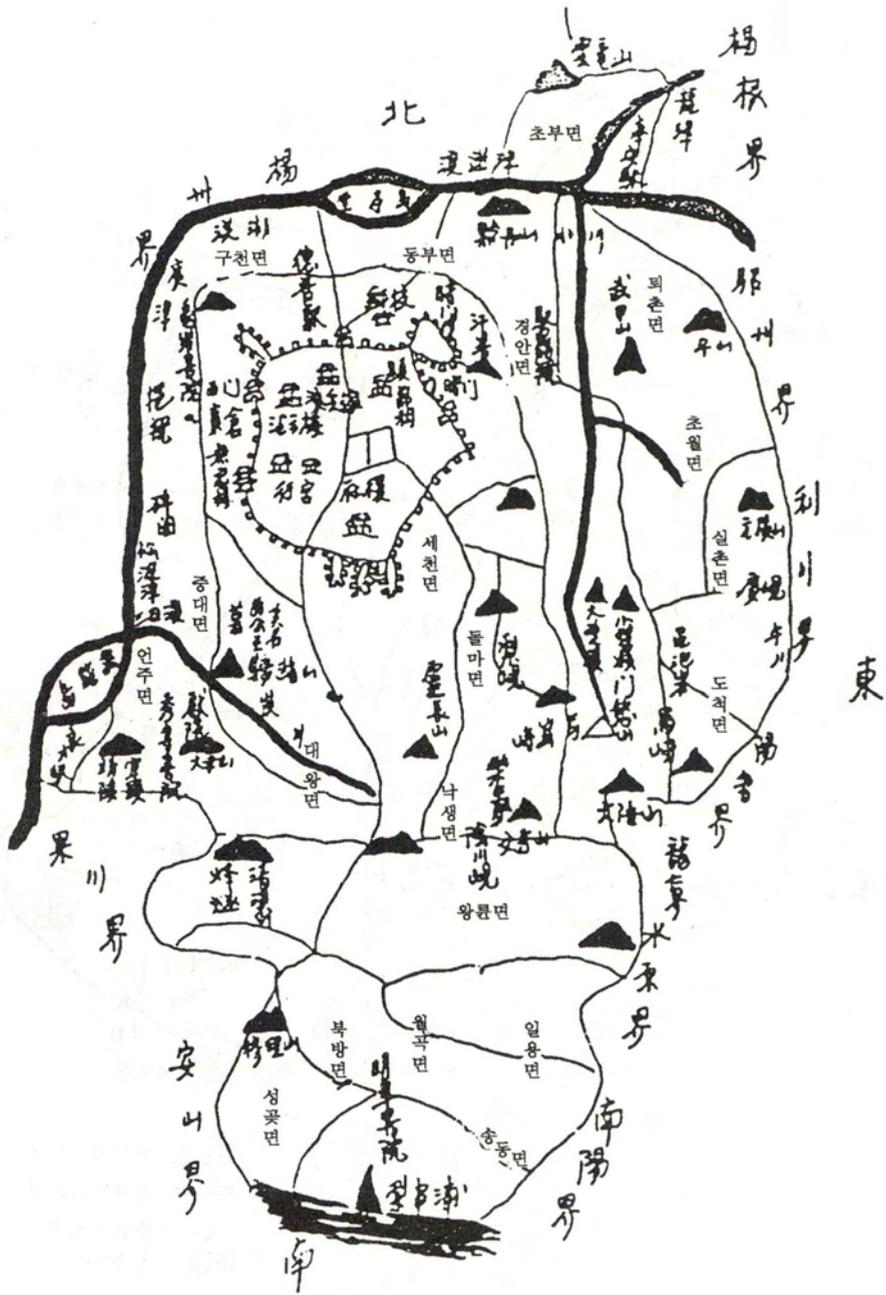
오포면 추자리(五浦面 楸自里)는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자연취락인 추곡리(楸谷里, 가래울)와 자작리(自作里, 자작이)의 합성어이다. 추곡리는 이 마을에 가래(楸)가 많아 불리운 이름이다. 자작리는 조선조 선조때 경원부사를 지낸 정응규가 이 마을에 정착하여 일가를 이루고는 자작일가(自作一家)하였다고 하여 자작동(自作洞)이라 하였다고 한다.

중부면 광지원리(中部面 光池院里)는 여주군 능서면의 영릉(英陵 ; 세종과 소헌왕후의 능)에 왕래하던 임금들이 쉬던 역원(驛院)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 옆의 연못에 햇별이 비치면 연못이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웠던 고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퇴촌면 광동리(退村面 光東里)는 1923년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광복동(光復洞)과 동지벌촌(東地筏村)을 합하여 부르게 된 지명이다. 광복동은 풍광(風光)이 아름답고 항상 햇별이 가득한 마을이라 하여 ‘광백이’이라 불리우던 것의 한자명이며, 동지벌촌은 조선조 인조때에 병자호란을 만나 군량미를 전국 각지에서 거둬드릴 적에 군량미를 많이 내는 넓은 벌판마을이라는 뜻으로 일컫게 된 이름이라 한다.



<도 8> 광주군의 행정구역과 녹음지역



〈도 9〉 廣州郡 古圖(英祖 때)

7.2 광주군 논맴소리의 종류

광주군의 논맴소리에는 들레, 짝었네야, 꿏었네, 한마디 오하류, 두마디 오호야소리, 논김행상, 몬돌, 방아(중거리방아·짜른방아), 상사, 우야소리 류 및 대허리 등이 있다. 마을별로 녹음된 논맴소리 종류는 <표 6>과 같다.

〈표 6〉 광주군 조사마을의 논맴소리 종류

지역 종류	광주읍 태전	남종면 금사	남종면 분원	도척면 노곡	실촌면 수양1/4리	오포면 양벌	오포면 추자	중부면 광지원	초월면 지월1	퇴촌면 광동1
들레소리	○						○		○	
짝었네야							○	○		
꿏었네		○			○	○	(○)	○		○
오하 류				○	○				○	○
두마디 오호야				○	○	○				
논김 행상					○					
몬돌	○							○		
(긴방아)						(○)	(○)			
방아소리	○	○	○					○		
상사	○	○	○			○	○	○		○
대허리							○			
우야						(○)				

7.2.1 들레 <경기 76①, 77②, 89②>

이는 서남부 경기도의 논맴소리이며, 용인·안성·화성·시흥·의왕시에서도 발견된다. 광주군에서는 초월면 지월1리<76①>와 광주읍 태전리<77②> 및 오포면 추자리 출신의 가창자<89②>로부터 수집되었다. 태전리의 가창자 김대천(1901.토민)은 논을 손으로 훑치면서 들레소리를 부른다고 했다.

<76①>은 받음구가 “들레야 들레야”이다.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

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3자 내지 7자 구성이다. 받음구중 ‘둘레’라는 말은 “핑핑 잡어 둘러주게”라는 메김구에서 보듯이 논흙칠 때의 작업을 묘사한 ‘둘르다’의 뜻이라고 여겨진다. 출현음은 라도레미 이다. 음역이 좁으며 동음연타적인 진행이 적지않다. 도에서 중지하되 이를 퇴성한다. 1박의 속도는 M.M.60이므로 1회 받음소리의 소요시간은 4초정도된다.

<77②>의 받음구 예는 “둘레야 둘레야, 에허어리 둘레야”이며, 선율 3분박4박 2마디에 배정되어 있다. 메김구는 1회만 녹음되었는데, 그 제1행의 가사와 선율이 모두 길어져 변격(變格)을 이루고 있다. 미라도의 ‘미’가 받음 올라가서 파라도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선법과 도선법의 공존현상을 보인다. 중지음은 미선법의 라 또는 도선법의 미이되 <77②>의 제4행 선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의 끝을 솔로 치켜올려 맺기도 한다. 기음요성을 한다.

<89②>는 오포면 추자리 출신으로 1950년대에 추자리에서 멀지않은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로 이주한 전만길 창이다. 손으로 흙치는 두벌 때의 소리로 가창되었다. 메김소리가 길게 녹음되어 있으나 채보된 선율부분인 첫2행의 가사 즉, “에 헤이리 둘레 요/ 오호 호호 둘레 야o” 또는 “에 헤이리 둘레 요/ 오호 넘차 둘레 야o”을 받음구로 본다면, 받음선율은 3분박4박 2마디이므로 메김구도 4음보(그 1음보는 4 또는 5자 구성)가 선율 내재4박에 배정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게재한 노랫말의 매행(“여보시오 농부님네, 요내말씀 들어보소”)을 1회의 메김구로 해서 맥반형식으로 부르면 될 것이다. 끝행은 “오 넘차 꿩었네야, 에허 꿩었네야”로 되어 있는 바, 둘레소리의 메김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포면 양벌리에도 두벌매기 소리인 ‘꿩었네’ 곡이 불리우는 것으로 보아서 ‘꿩었네’ 곡이 전해있는 흔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받음선율의 음조식은 M3.t1.v1,4. 이다.

7.2.2 짝었네야 <경기 82①, 89①>

짝었네야는 중부면 광지원리의 토민 강보석<82①>과 오포면 추자리 출신 전만길<89①>로부터 수집되었다. 안성시와 용인시에서도 발견되지만 민요권은 둘레소리보다 더 좁다.

받음구 예가 “오하 오이너미차 짝어 내야”<82①>, “어화넘차 짝었네야”<89①>라 하여 호미로 지심을 짝어내는 것을 묘사한 듯한 어휘를 가진 것으로 미루어 호미로 매는 애벌매기 때 부름이 제격이라 여겨진다.

<82①>은 (매)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음조식은 D1.t1.v1,3 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퇴약별 아래에서 힘들게 호미질하는 일을 ‘논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낙천적,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젊어노세’

라는 어휘도 젊었을 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자는 방향으로 더 이해가 된다.

<89①>의 받음소리는 3분박4박 1마디 씩이며, 미라도 또는 도미솔의 음구성을 하고 있다. 도미솔의 밑음인 도에서 중지한다. 논매기꾼인 동료들을 ‘군방님네’로 부르고 있다.

7.2.3 꿩었네 <경기 78~80, 81②, 82④, 89②의 가사 끝행>

꿩었네는 호미로 파 엮었던 지심이 꿩었다는 뜻으로 두벌매기 때에 손으로 훑쳐 몽기면서 하던 소리이다. 이천시, 용인시, 안성군, 여주군, 양평군 등 동남부 경기도에서 불리운다.

광주군에서는 퇴촌면<78>, 오포면 양벌리<79>, 실촌면 수양4리<80>, 남종면 금사리<81②>, 중부면 광지원리<82④> 및 오포면 추자리<89②>의 가사 끝행>에서 나왔다. 그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

- <78> : 에헤 꿩아왔네야/ 어하 두루기 좋아
- <79> : 꿩었네 씨었네/ 휘휘 두르기 좋아
- <80> : 꿩었네 씨었네/ 요리조리 잘씨었네
- <81②> : 오호 꿩었네/ 어하 두르기 좋아
- <82④> : 꿩었네 꿩어왔네/ 오호 두름이 좀좋와

꿩었네 곡의 이념형(전술 註참조)은 <78>처럼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 씩이다. <82④>에서는 짧게 “에이여라 꿩왔네”를 받음구 자리에 놓으면서 메김소리도 절반으로 줄인 예가 보이는 바, 이는 가창자의 임의로 갖게 부른 형태라 볼 수 있다.

<78>은 D1꺾대.t1.v1,3. <79>는 D3.t1. <80>은 D1.t1.v1. <82④>의 첫4행은 S1.t1.v1.의 음조직을 가진다.

7.2.4 한마디 오하류 <경기 72①, 74, 75, 76②>

한마디 오하류는 한강 이남의 동남방면 논맴소리인데, 광주군에서는 도척면 노곡리<72①>, 실촌면 수양1리 권인수 창<74>, 퇴촌면 광동리<75>와 초월면 지월1리<76②>에서 녹음되었다. 광주군의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이 대동 소이하다.

- <72①> : 오(우)하 오히 네헤(이) 헤야
- <74> : 오하 오힐 네헤 호야

<75> : 오-하, 오힐 네헤 호야

<76②> : 오하 오일 네 호야

한마디 오하 류는 도척면 노곡리<72>에서와 같이 후술하는 두마디 오호야 류와 연결하는 부르는 경우가 많다. 후자는 전자의 잣은소리에 해당한다. <72①>이나 <75>처럼 느리게 소리함이 본래의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72①>은 (메)와 (반)이 3분박4박 1마디 씩으로 채보되었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 또는 5자 구성이다. D1.t1.v3. 의 음조직을 이룬다.

<75>의 받음소리는 첫 ‘오-하’의 ‘오’부분이 장인됨으로 인하여 내재4박의 첫박이 길게 늘어졌다. 느릿하게 불리우므로 메김소리는 <75>의 선율 제3,4행에서 보는 바처럼 3분박4박 2마디로 부르기도 하고 그 이하의 가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절반의 길이로 가창하기도 한다.

M1에 D4를 가미한 음구성을 하고 있다. M1의 기음에서 중지하나 끝을 조금 들어올렸다. 기음과 중간음(미선법의 4도윗음 또는 도선법의 3도윗음)을 요성한다.

<74>는 D3.t1. <76②>는 M4에 D3을 가미한 음구성을 보인다.

<76②>에서는 D3의 기음에서 3도윗음으로 진행하면서 맺는다. 중간음에 요성 예가 나와 있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3~7자 구성이다.

7.2.5 두마디 오호야소리 <경기 72②, 73①>, 논김행상 <경기 87>

두마디 오호야소리는 한마디 오하 류와 함께 한강 이남의 동남방면 논맴소리이며 후자의 잣은소리 형태로 불리우는 예가 많다. 광주군에서는 도척면 노곡리<72②>와 오포면 양벌리 <73①>에서 녹음되었다. 받음구 예는 아래와 같다.

<72②> : 오 호오 호호 이이/ 오호 호이 네헤이 야

<73①> : 호 호 호호 이/ 오호 이야하 네헤 요

<72②, 73①>은 도선법이고 (메)와 (반)이 3분박4박 2마디 씩이며 받음선율 매마디의 시작음이 기음의 5도윗음인 점, 그 시작음이 동음연타적으로 등장하는 점, 중간음중지를 하는 점 등에서 두마디 오호야소리의 일반형에 속한다. 노곡리의 가창자는 “산 천, 초목은/ 에헤리 짚어 가는데”하면서 그 두 번째 마디 첫박의 가사에 ‘에헤리’를 고정어로 쓰고 있다.

논김행상<87>은 실촌면 수양1리의 김쾌복(1913.양평군 옥천면에서 출생하여 8세에 수양1리 이주) 창이다. 호미로 맬 때나 손으로 훔칠 때나 구별없이 이것 하나만 부르며³⁷⁾, 에염싸는 소리도 따로 없다고 했다. 받음구 예는 “어 허 어허 야/ 허 허어이 어 야” 또는 “어 허 어허 야/ 어거리 넘차 어 야”이다. <87>의 느낌이 두마디 오호야와 구별되는 점은 (받)의 끝 ‘야’가 중간음 종지 대신에 기음종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가 가창한 행상(行喪)소리의 받음구는 “에 헤 헤 야/ 어거리 넘차 너 하”이며 기음종지한다. 두마디 오호야소리는 행상소리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요권에서는 논맬 때 <87>에서처럼 논김행상을 부르는 예들이 나온다.

7.2.6 방아(중거리방아·짜른방아) <경기 77①, 81①, 82②③, 83①>

방아류의 논맬소리는 방아타령 류와 구별되는 것으로, 긴방아·중거리방아·짜른방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긴방아가 가장 유장하다. 긴방아는 흔히 받음구에 ‘방야’라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창자들은 방아소리도 방아타령이라 이름하는 예가 적지않다.

광주군에서는 ‘긴방아’라고 이름하며 불러보려는 시도를 한 가창자(오포면 양벌리의 신문창과 오포면 추자리 출신인 전만길)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분류상의 긴방아인지의 여부가 불명(不明)이다.

광주군에서는 광주읍 태전리<77①>, 남종면 금사리<81①>, 남종면 분원리<83①>와 중부면 광지원리<82②③>에서 방아소리가 녹음되었다. <82②>는 중거리방아에, <82③, 83①>은 짜른방아에 속한다. 중거리방아와 짜른방아는 속도상의 차이이며, 받음구는 “에이여라 방아요” “에헤야라 방아요” “에이여라 방아호” “에이여라 방아요” 등, 대동소이하다.

<82②>는 S1.r4.v1.4. 의 음조직을 가진다. 유장하지만 (메)와 (받)이 각각 내재4박 1마디 씩이다.

<77①>의 (받)은 M4(미솔라도)의 구성음을 가진다. 기음의 4도윗음인 라를 그 단3도 윗음인 도홉으로 끌어올리며 맺는다.

7.2.7 상사 <경기 81③, 82⑤, 83②, 84, 85, 89③>

경기도에서 논맬 때에 부르는 상사소리는 주로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인 짜

37) 같은 마을로 보이는 권인수(1923.남.토민)는 한마디 오하소리를 논매면서 주로 불렀으며 상사소리도 논매면서 부르지않았다고 했다. 김쾌복(김태복?)은 권인수보다 10세 년상인바, 김쾌복이 논맬소리로써 <87>하나 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이들 소리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는 말로 이해된다.

른상사 류에 속한다. 광주군에서는 남종면 금사리<81③>, 중부면 광지원리<82⑤>, 남종면 분원리<83②>, 퇴촌면 광동리<84>, 광주읍 태전리<85>와 그밖에 오포면 추자리<89③>의 예가 나왔는데, 모두 짜른상사류에 해당한다. 실촌면 수양1리처럼 논맴 때 상사소리를 안 불렀다는 마을들도 있다<표 6>참조. 금사리의 김학표는 상사소리는 양념으로 조금만 부른다고 했다. 퇴촌면<84>에서는 메김구에 ‘밥을 싸 보소’라는 구절이 나오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에염씨는 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사소리를 가지고 에염소리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받음구 예는 다음과 같다 : “어덜(덜)덜 상사디야”<81③, 83②, 89③>, “어힐러덜덜 상사디야”<82⑤>, “어이덜덜덜 상사데야”<84>, “어덜덜덜덜 상사도야”<85>이다.

‘에넬넬’형이 보다 경기도적인 특색이라 한다면(전술. 고양시 참조), 광주군의 상사소리는 이와 달리 타지방의 ‘어덜덜’형을 선호한다.

<85, 89③>의 메김구에 일반형보다 배로 길어지는 예를 포함한다.

<82⑤>는 S1.t4.v4. <83②>의 (반)은 구성음 도미에 t3(미종지). <84>는 출현음 도레미솔 라시에 t3.v1. <85>는 S2의 구성음이며, 기음의 4도윗음 끝을 조금 치켜올리면서 맺는다.

<89③>(반)의 출현음은 (도)미라도`이며 미에서 종지한다. 미를 죽대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7.2.8 몬돌 <경기 82⑥, 88>, 위야네호 <경기 86>

몬돌소리는 서부 경기도의 대표적인 에염씨는 소리이다. 광주군은 그 전파권의 동남쪽 한계지역이다.

광주읍 태전리<88>에서는 그 노랫말에도 나와있듯이 3회 정도만 ‘먼들’을 외친다. 반복구는 “어 해리 먼들이요”이다. <88>의 음조식은 D2.t3(단. 끝을 올림).이다.

중부면 광지원리<82⑥>에서는 ‘먼들’을 1회만 선입후제창(先入後齊唱)³⁸⁾하고 논밖으로 나온다. 그 가사는 “에 여라 먼들이히요”이다. 출현음은 (솔라)도레미이며, 도에서 종지한다. 도가 최빈다음(最頻多音)이다.

위야네호<86>는 오포면 양벌리의 에염씨는 소리이다. 맥반형식으로 부르며, 그 받음구는

38) 先入後齊唱 : 한 사람이 먼저 소리를 내면 모두들 뒤를 이어 함께 부르는 가창방법.

“위 야하 네 호”이다. 그 메김구에 ‘아랫녘 새’ ‘웃녘 새’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경기도가 출처지인 일노래이며, 회방아 끝이나 논매기 끝날 즈음의 소리로 애창되는 우야소리의 흔적을 나타낸다. 회방아 땀 녹두새 가사를 메김구로 쓸 뿐, 위야네호를 받음구로 쓰지 않는다.

광주읍 태전리에서는 회방아 때 우야소리(받음구는 “위야 훨훨”)를 부르는데, 논맬 때는 이를 가창하지 않는다.

<86>은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음조직은 M2.t4.v1.이다.

7.2.9 대허리 <경기 89④>, 기타 <경기 73②>

<89④>는 오포면 추자리 출신으로 1950년대에 멀지않은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로 이주한 전만길(1917년생) 창이다. 논매다가 대허리소리를 하게되면 허리를 피고 일어나질 못하며 그 논바닥을 다 매기까지 계속 엎드려 일을 해야 한다. 용인군에서는 “에 넘차 단허리야”를 부를 때도 있다고 했다.

대허리는 충북 충주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강원도, 충청도에 넓게 전파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도 광주군 인접의 양평·여주·이천·용인과 안성·평택 등 남부경기도, 평택시에 가까운 남부 화성시 등지에 손으로 논흙치는 소리로 전해져 있다.

<89④>의 받음구 예는 “에 허리 대,허 리야”이다. 받음선율의 출현음은 a, c#이며, 3도 상행-동음연타-3도하행의 음진행을 한다. 기음에서 종지하고 요성한다.

오포면 양별리 신문창(1914.남.토민) 창의 <73②>는 받음구 “헤 헤 헤헤 요/ 요호 오이 에 헤 야하”를 3분박4박 2마디에 엮어 가창한다. 동일 가창자의 두마디 오호야<73①>의 (반)선율과 비교하면 동음연타적 음진행이 적지않음은 공통이나 두마디중 매마디의 끝부분에 있어서 후자는 중간음까지만 하행을 함에 비해 전자는 기음에 까지 하행하는 점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음조직에 있어서 후자는 D2.t3.v1,3.이지만 전자는 S1.t1.v4.이다.

<73②>의 첫 메김소리는 ‘오호-’라는 입말을 넣고 있는데 그 선율이 연파형 논김양산도의 특징있는 받음소리 끝부분을 연상시킨다.

7.3 광주군 논맴소리의 성격

광주군의 논맴소리는 경기도에서도 한강 이북권과는 별개인 한강 이남의 동남부 민요권을 형성한다.

한강 이남의 서남부 경기도소리인 들레·찍었네야·꿨었네가 불리우고 한강 이남의 동남부 경기도소리인 한마디 오하 류와 두마디 오호야소리가 불리운다.

한강 이북의 중부 경기도 지역에서 애창되는 방아타령 류나 논김양산도, 사두소리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중부경기도를 포함한 서편 경기도에 널리 전파되어 있는 예염쌀 때의 몬돌 류와 우야소리 류가 전해져 있는 바, 광주군은 그 전파권의 동남방 한계지역에 속한다.

술선법이나 라선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선법 또는 미선법이 우위를 차지한다. 기음 또는 중간음에서 종지하거나 요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 72>

1. 애벌매기
2. 두벌매기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메) 광금석(1909.남.토민)
(반) 김순봉(1924.남.토민)
素 87-5-27-1A

1. ♩ = 28-30

(메) 오 하 오 - 히 네 - 헤 오 야

(반) 오 - 하 오 히 네 헤 헤 야

(메) 노 세 노 - 세 젊 어 노 세

(메) 늙 어 지면 은 못 노 리 라

(반) 오 우 하 오 히 네 헤 이 헤 야

2. ♩ = 46-55

(반) 오 호 오 호 호 이 이

(반) 오 호 호 - 이 네 헤 이 야

(메) 오 호 호 하 - 하 는

에 해 리 농 군 - 녀 - - 네

(발) 오 호 - 오 호 이 -

오 호 - 이 네 해이 야

야

이 내 말 삼 - 들 으 - 시 고 -

(소 리) 나 - (보 태) 하 소

(메) 산 천 초 - - 목 은 -

(발) 에 해 리 젊 어 - 가 는 - 데

오 호 오 호 이 -

오 호 - 이 네 해 야

(메) 우 - 리 가 사 - 할 며 는 -

몇 백 년 - 살 줄 아 나

<경기 73>

1. 오호이야 네혜요

2. 요호이 에혜야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신문창(1914.남.토민) 창
素 87-5-27-1B

1.

(받)

호 호 - 호 호 이
오 호 이 야 하 네 혜 요

(메) ○ 불상쿠나 가련쿠나
우리 농군이 불상쿠나

2.

(받)

혜 혜 혜 혜 요 -
요 호 오 - 이 에 혜 야 하

(메)

오 호 -
오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전에 비나니다

(메) ○ 일생 일장 혼몽인테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경기 74〉

네혜 호야

광주군 실촌면
수양리

권인수(1923.남.토민) 창
89-4-28A

♩. = 42

(받)

오 하 오 밀 네 혜 호 야

<경기 75>

오힐 네헤호야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1구

조충삼(1920.남.토민) 창
89-4-28A

♩ = 150

(발)

오 오 하
오 힐 네 헤 호 야

- (메)
- 천년 년가 다모였어도
정든님 속 풀을 실적 포라
 - 구이연 단장 자 백화 중에
나라를 들으니 전황이로다

♩. = 35~40

(메)

이 각 저 각 이 앞 지 를 말 - 고
오 동 꽃 술 로 실 적 앞 어 라

- 연소동산 적벽곡일은
이활저리활 날개를 피고
- (묘묘) 상상봉 적곡대위에
- 집전 보검을 실적 물어서
- 보검 자리를 둥글게 쓰고
- 자식새끼를 누우를 놓고
- 비알겨알을 굶어보일제
- 어이나 그 알이 자식 알인가
- 동갈 동걸게 굶는 저알은
- 자신만수를 휴대혈적에
- 이알저알을 굴러를 가며
- 상분 요알을 실적 굴릴제
- 경도 수봉에 붙곤 솟아서
- 구분 저 입살로 실적이 글제

- 적벽 울면서 가는 저 알은
- 영매 수독을 쭉 갈러취며
- 새끼 저벼알 불끈 솟을제
- 계이단 입으로 한번 써 붙어
- 자식 입을 감싸 돌면서
- 명야 죽죽 쭉 미길적에
- 영을 수봉으로 낳는 사람네
- 너이단 저복판 저 검은 골을
- 쇠줄 미어서 택르을 하니

89-4-28B

- 저 백학은 제 짐작하고
 - 우쭈우쭈 춤을 출 적에
 - 태역 삼경시 실쩍 바를제
 - 열두 삼경을 다 넘었으나
 - 잠든 그 풍속 썩 들어설 때
 - 녹혜 녹인 요내 그대맘
 - 역고 잘잘 녹는구나
 - 에이러살고두 저 삼경시에
 - 오반야 그 삼경 다시 돌아왔네
 - (전려) 저 삼경 오밤일까요
 - 깊은 그 정들 풍류로나 돌아
 - 오하 오힐 네혜호야
- 고시례 —

※가사내용이 불명인 것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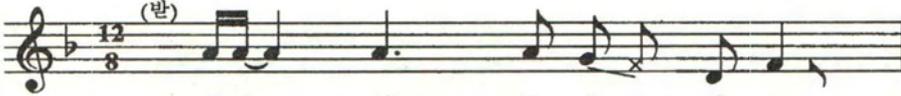
<경기 76>

1. 들레
2. 오하 오일(호미)

광주군 초월면
지월1리

엄기학(1922.남.토민) 창
素 89-4-28A

1. J. = 60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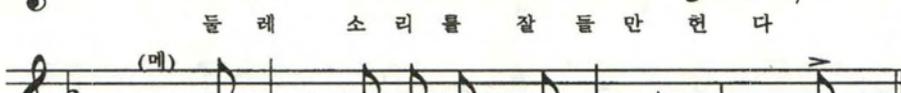
들 레 야 들 레 야 -

(메) 

어 하 는 잘 - 꿇 았 구 나 -

(메) 

들 레 소 리 를 잘 들 만 현 다

(메) 

바 다 같 은 은 배 미 가

- (메) ○ 반달 같이만 남었구나
○ 들레야 들레야
○ 평평 잡어 둘러주게
○ 애벌논을 다물러고
○ 두벌논을 정충거려 허거라

- 어허 이것 참 잘들두 허네
○ 들레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 길가는 사람이 길뭇간다
○ 이는 배미를 둘러주게

2. J. = 52-54

(반) 

오 하 - 오 일 네 - 호 야

(메) 

사 해 창 생 농 부 들 아

- (메) ○ 이내 말삼을 들을 보이소
○ 신통씨 같은 밭에
○ 덕산에 같은 밭에
○ 순임금의 풍년이 왔구나
○ 어허 이것 참 잘들두 현다
○ 오하 소리만 잘들만 허면
○ 막걸리 한조름이 상금이 있구나
○ 오하 오일 네-호야
○ 녹음 방초 성화시에
○ 해는 어이 수이 가노

- 일락 서산에 해떨어 지고
○ 월출 동녘에 저달이 솟네
○ 오하 소리를 잘들만 현다
○ 꺾어 청춘 소년들아
○ 늙은이 망녕에 웃지를 마소
○ 해는 지구 저문 날에
○ 꿀꿀마다 연기가 난다
○ 오하 소리를 고만들 두고
○ 우장을 둘러고 집이를 가세

<경기 77>

1. 방아(호미)
2. 둘레(논흙찹)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김대천(1901.남.토민) 창
素 87-5-27-1A

1.

(받)

에 레 야라 방 아 - 요 -

2.

(매)

둘 레 야 둘 레 야 -

에 러 어 - 리 둘 레 야

(받)

둘 레 야 둘 레 - 야 -

어 러 러 - 리 둘 레 야 -

(매)

일 른 둘 러 서 이 논 배 미 를 다 - 돌 르 - 고

저 논 배 미 루 녀 어 를 가 - 세

<경기 78>

꿨았네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조충삼(1920.남.토민) 창
素 89-4-28B

♩. = 35~40

— 꿨았네는 호미로 파엿었던 밭뎡이가 꿨았다는 뜻으로
흙쳐 뭉기면서 하던 소리이다 —

(발)

에 해 꿨아 앓 네 야

어 하 두 루 기 좋 - 와

(메)
우 리 농 사꾼 여 러 분 들 - 아

허 리 등 실 띠 도 뎡 일 들 러 를 가 며

- 허연 감시에 두렁 들를제
이슬비 방울이 실쩍 떨어져
- 초로인생 백년 간다더니
다들 죽구보면 끝이로고나
- 한사 유방 뜬 말났더니
그 유복 선견이 실쩍 들었네
- 인상 백년이면 여주바러든
아니 노지는 난 못하리라
- 후연 것 담경에 저 백화중에
날아를 드시는 저 나비아
- 이가지 저가지 앓지를 말고
저속에 거미가 줄만 늘인다
- 후연 유복 실적 껴안고
그 깊은 그 정을 다 풀었고나
- 전라통신 바람 불 때에
동남풍 시절을 다 끌어 닫고
- 후연 유방 실쪽 안을 때
만복 시절을 다 끌어안고

〈경기 79〉

꿨었네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신문창(1914.남.토민) 창
素 87-5-27-1B

♩. = 50

(받)

꿨 었 네 색 었 - 네

휘 휘 두 르 기 좋 - 하

〈경기 80〉

꿨었네

광주군 실촌면

이종삼(남. 녹음당시 젊은 편.
어릴 때부터 농사일 했음.
이천군 신문면에서 녹음) 창
素 87-5-21-1B

꿨 었 네 - - 색 었 네

요 리 조 리 잘 색 었 네

꿨 었 네 - 색 었 네

Fine

D.S

<경기 81>

논맬

광주군 남종면
금사리

김학표(1921.남.토민)
89-4-28B

- 호미로 맬 때나 두벌 때에 북을 치면서 부른다 -

- I. 에이여라 방아호
- II. 오호 풀었네 어하 두르기 좋아
- III. 어털털 상사디야 는 양념으로 조금만 했다.
(상사디야로 아랫녘에서 많이 하더군 하며 같이 있던 사람 중 한사람이 말했음)

〈경기 82〉

논맴소리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강보석(1923.남.토민) 창
素 89-4-28B

1. 짝어내야 ♩ = 50~54

(메)

오늘 날 - 은 여 기 서 놀 - 고

(반)

오 하 오이 너미 차 짝 어 내 - 여

(메)

내 일 을 랑 은 어 떤 가 노 호 나

- (메) ○ 노자노자 짝어노세
- 늙어 지머는 못노나니
- 들농사가 잘되머는
- 금년에 풍년은 다되었네

2. (중거리) 방아 ♩ = 150

(반)

에 - - 이 여 - - - - 라

(반)

방 아 요

(메)

오늘 해 는 - - - - 여 기 서 - - - - <놀> - 고

- (메) ○ 내일을 랑은 *화평정 가세 (*특별한 지명은 아니고 단테로 간다는 의미로 쓰였다)
- 간다더니 왜 또 왔나
- 울구 갈 길을 왜 또 왔나
-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 월출 동녘에 달이 솟네
- 간데 족족 정들여 놓고
- 이별이 갖어서 못 살겠네
- 노세 함시다 꺾어서 놀아
- 늣어 지머는 못 노나니

3. 짜른 방아 ; 중거리방아보다 속도가 잦아진다

4. 풀었네 J. = 50-60

(반)

풀었네 - 풀어있네 - -

오호 두름이 좀 좋와

(메)

는 - 다 노 - 자 꺾 - 어 노 - 자 하

늣 - 어 지머는 못 - 노 나 - 니

*참고용(반)

에이 여 - 라 풀었 - 네

(매) ○ 누룽 들면 달도 논다
 (밭) 에이여라 품앗네

5. 상사

♩. = 60-65

(매)



는 잘 매 - 는 우 - 리 농 - 부

(밭)



이 힐 러 얼 털 상 사 디 야

- (매) ○ 이 농사를 얼른 지어서
 ○ 부모님 공양을 얼른 하세
 ○ 상사 소리를 정 잘 하면
 ○ 막걸리 초롱이 <초롱의> 상급을 준다
 ○ 상사 부사는 동지사라
 ○ 간다더니 왜 또 왔소
 ○ 울구 갈길음 왜 또 왔나
 ○ 내 딸 주구 내사위야

6. 문들

(선소라꾼)



에 - 여 라 문 들이 - 히 요

(Tutti)

* 문들을 여러번 반복해 부르지 않고, 1회만 가장하고는 논밖으로 나왔다.
 맑은매고 들어올 때는 소리는 안하고 풍장만 친다.
 논맴소리는 장구치고 북도 치며 부른다.

<경기 83>

논맴(1.방아 2.상사)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

황만복(1915.남.토민) 창
89-4-28B

1. ♩. = 45

— 북을 치며 소리한다 —

*음정불안한 곳 있어 <SR>

(밭)

에이 여 라 방 아 - 요

2. ♩. = 60

— 음정 안정됨 —

(밭)

어 털 털 털 상 사 디 야

<경기 84>

에염싸기(상사)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1구

(메) 조충삼(1920.남.토민)
(밭) 광동리 사람들
素 89-4-28B

♩. = 43~45

조(밭)

어 이 털 털 털 상 사 데 야

(메)

휘 털 농 사 낚 밥 을 싸 보 - 소

농군들 : 고시레 —

선소리꾼 : 아니 밥도 안짓구 고시렐 해?

(*밭음소리꾼들이 빨리 끝내고자 "고시레 —"하고 미리 외쳤기 때문에 선소리꾼이 농담하는 말임)

<경기 85>

상사(논맹)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김대천(1901.남.토민) 창
素 87-5-27-1A

♩.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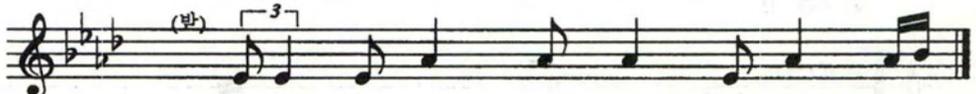
(반)  어 렵 렵 렵 렵 상 사 도 야

(매)  상 사 로 다 능 사 로 다 (반)

(매)  상 사 허 - 먼 우 리 의 남 - 군

 문 까 운 테 잠 칸 만 나

(매) ○ 만단 사연능 허졌더니
○ 만단 사연을 채 못하야,
날이 장차 밝았구나

(반)  어 렵 렵 렵 렵 상 사 도 야

<경기 86>

위야 네호

—논맴기 끝날 무렵—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신문창(1914.남.토민) 창
素 87-5-27-1B

(받) 위 야 하 네 호

(메) 아뻏 녀 새 야 웃 녀 새 야

(메) 늑 두 발 에 앞 지 - 마 - 라

(메) ○ 청포장사 눈물 낸다

〈경기 87〉

논맴소리

광주군 실촌면
수양리1구

김쾌복(1913.남. 양평군 옥천면 고읍내
출생. 8세에 수양1구 이주) 창
89-4-28A

♩. = 60

— 다른 논맴소리는 없음 —

(메)

이 논 배미물 얼른 매고
장구 배미로 넘어가요
어 허 어 허야
[허거리 허 넘어 이 차 어 - - 야

〈경기 88〉

먼들소리(논맴)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김대천(1901.남.토민) 창
素 87-5-27-1A

(발)

어 해 리 먼들이요 -
먼들이 손에 썼는 자는
따루가 세 번 이란 다 -

<경기 89>

1. 찍었네야
 2. 둘레
 3. 상사
 4. 대허리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

전만길(1917.남. 추자출생.
 6.25때 매산 들어옴) 창
 素 87-5-19-2B

1. ♩. = 50

(받)

어 화 념 차 찍 었 - 네 - 야

(매) ○ 여보시오 군방님네, 요내 말삼 들어 보소
 우리 생전 태어나서, 부모님 은공을 못다 갚고

○ 여보시오 군방님네, 부모 은공을 갚으랴거든
 우리 농사가 잘되어야지

2. ♩. = 40-48 - 손으로 품칠 때(두벌) -

(받)

에 헤 이 리 들 - 레 요 -

오 호 [호 - 호 - 들 - 레 야 - ○
 [념 - 차

(매) ○ 여보시오 농부님네, 요내 말삼 들어 보소
 인간 이별은 만사중에, 독수공방이 더욱 설다
 앉았으니 임이 오나, <누웠으니> 잠이 오나
 오 념차 풀었네야, 에히 풀었네야

3. ♩. = 58

(받)

어 털 털 털 상 사 디 야

- (예) ○ 여보시오 농부님네
 ○ 요내 달삼 들어 보소
 ○ 허허 백<사> 장에 모를 심어
 ○ 장일이 훨훨 나왔으니
 ○ 농부님들 들어 보소
 요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4.

(받)

에 허 - 리 대 허 리 - 야

- 논매다가 "대허리다" 하면 못매어도 쫓아간다.
 논을 안 매도 일어나지 못한다. 그 끝까지 다 매야 일어선다 —
- 용인군에서 "에 넘차 단허리야"를 부를 때도 있다 —

8. 구리시의 논맴소리 <경기 90~97>

8.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0>

구리시에서는 갈매동 담터마을, 교문1동 한다리와 아치울(아천동), 동구동의 동창마을, 사노동의 두레목골의 논맴소리를 녹음하였다. 수택3동의 토평동엔 논매던 시절에 논이 없었다.

구리시는 왕숙천이 한강에 합류하는 하곡에 펼쳐진 구릉지 및 충적지로, 아차산 일대의 한강유역에 위치한다. 서북쪽은 광주산맥의 서부 가장자리에 해당하여 아차산(286.8m) 등 산지를 이루워 구리시의 지형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현상을 보인다. 남쪽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의 강동구와 마주본다. 동쪽과 북쪽은 왕숙천과 왕숙천의 지류들인 용암천·불암천을 경계로 남양주시의 도농동·퇴계원면·별내면과 인접한다. 서쪽은 서울의 노원구·중랑구·광진구에 접해 있다.

왕숙천은 포천군 내촌면 신입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토평동에서 한강에 흘러든다. 왕숙천 유역은 고도 400m 이하 부분이 9할이상을 차지하며, 경사가 10°이하인 완사면이 40% 되고, 토평동과 돌섬을 중심으로 범람원을 형성하였다. 1916-1963년간의 홍수기록을 보면, 한강유역에는 연평균 2회의 홍수가 있었다고 한다.³⁹⁾

아차산은 한강유역의 군사상 요충지인 고로 장안성·아차산성 등 3개의 성곽이 있다. 아차

39) 『구리시지』 上(구리시, 1996), 26쪽 이하.

산에서 동두동의 검암산(177.8m), 갈매동의 팔강산 방향으로 뻗은 능선이 서울과의 경계를 형성하였고, 검암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간 구릉지가 동구릉을 싸안았다. 동구릉엔 건원릉(조선조 태조 이성계의 묘소)을 비롯한 9기의 능이 있다. 갈매동과 인창동·사노동에는 40~100m에 달하는 구릉지가 전개된다. 이 구릉지는 배수가 잘 되고 토양층이 두꺼워 주택지와 과수원·밭으로 이용되며 저지는 논으로 개간되어 있다.⁴⁰⁾

구리시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선사시대로부터 인거하기 좋은 여건이었다. 삼한시대엔 마한의 영역이었다. 한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삼국시대엔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고, 아차산은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고려시대엔 지금의 양주군 지역이 견주(見州)로 불리웠고, 지금의 서울방면은 양주 또는 남경(南京)으로 불리운 바, 구리시 지역은 후자에 속했다.

조선조에 와서는 서울의 변방으로서, 양주부 또는 양주목이 따로 위치하였으며, 구리시 지역은 양주에 속해 있었는데,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양주목 구지면(楊州牧 龜旨面)으로 등재되어 있다.

1914년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구지면 10개리와 망우리면 15개리, 그밖에 노원면·미음면·진관면·별비면의 일부를 합하여 구지면의 ‘구’와 망우리면의 ‘리’를 따서 구리면(九里面)⁴¹⁾을 신설하였으며, 그 면사무소를 교문리에 두었다.

1963년의 행정편제 때에 옛 망우리면 방면이 서울에 편입되는 등 구리면 지역은 옛 구지면 정도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1973년엔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하였고, 1980년엔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되었다. 1986년에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어 남양주군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갈매동 담터마을은 북·서쪽으로 낮은 야산이 집에 담을 쌓아놓은 듯 마을을 싸고있다하여 ‘담터’라 칭해졌다. 갈매2동에 속한다. 담터에서는 양력 5월 20일께에 모내기를 하고, 한달 있다가 호미로 애벌을 맨다. 또 열흘 후에 손으로 두벌을 맨다. 세벌매기는 안한다. 보리베기는 6월에 하고 벼베기는 추석지낸 후 양력 10월 초순에 했다. 갈매1동의 할아버지 도당굿보다 날을 먼저 잡아 음력 3월초에 격년으로 할머니 도당굿을 지낸다. 행상나갈 때 쇠납을 붙였고, 두레목골이나 파주시의 광탄면 용미리에서처럼 광밖에 서서, 광안으로 달굿대를 넣고는

40) 『구리시지』 上, 상계서, 22쪽 이하.

41) 구지면의 龜가 구리면의 九로 바뀐 것은 동구릉(東九陵)의 九를 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달구질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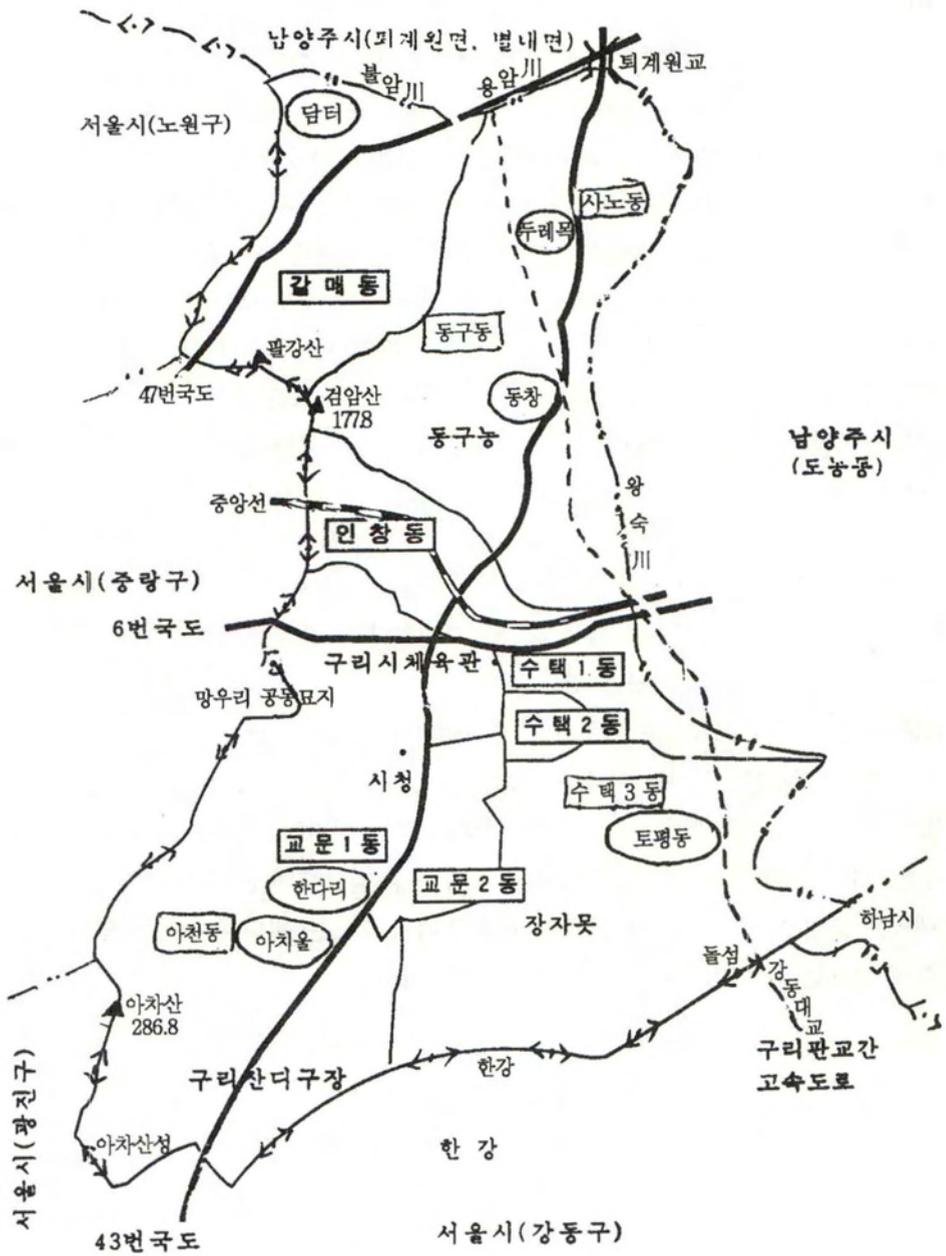
사노동(四老洞, 또는 沙老里) 두레목골(두레물골)에서는 산에서 갈을 뜯어다가 모자리하고서는 양력 6월에 모를 내고 40-60일 지나서 호미로 초벌을 땀다. 다시 한달 있다가 손으로 두벌을 훑쳤다. 1960년경까지 노래부르며 논일을 했다. 마을엔 넓은 논이 없었다. 용두레질 하며 물을 품었다. 1모작지대이며 모내고나서 보리타작을 하였다. 양력 10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벼를 베기전에 대동놀이로 한번 놀았으며, 11월에 벼타작을 했다. 매년 음력 10월 초이틀에 당집에 올라가서 산제를 지냈다. 예전엔 산제 때에 굿도 했다고 전하나 제보자인 김명수는 이를 보지못하였으며, 유교식으로 지냈다. 줄다리기는 하지않았다. 제물로는 소1마리와 돼지를 썼는데, 산에 끌고 올라가 잡았다. 젊은 사람이 죽으면 줄무지⁴²⁾한다. 조선조 태조의 장례에 영월에서 부역되어왔던 추씨가 정착한 곳이라고 한다. 행정동으로는 동구동에 속한다. 법정동인 사노동엔 안말(응달말)·두레목골(건너말)·양지말·언제말 등의 자연취락들이 있다.

동구동(東九洞)의 동창(東倉)은 동구능 주변에 있는 마을로서, 한양의 동쪽에 있는 창(倉; 稅穀을 모아둔 倉庫)마을이라 하여 동창이라 불리웠다. 애벌은 호미로, 두벌은 손으로 훑쳤다. 논맬 때는 북을 치지않고 그냥 맥였다.

교문1동은 망우리 고개밑에 위치한다. 한다리(한교, 大橋, 一橋, 白橋)의 지명은 아차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두줄기 산자락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빗물이 넘쳐흐르는 다리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논매면서 북을 치지않고 그냥 맥였다(박문학).

아천동의 아치울은 아차산 동쪽 골짜기 중에 가장 넓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아치울에서는 애벌은 호미로, 두벌은 손으로 훑쳤다. 두벌매기 후에는 피만 뽑는 정도였다. 메김소리꾼도 함께 논매면서 맥였기 때문에 북을 치지않았다.

42) 이소라, 『경기지방의 喪夫소리』(문화재청, 2000), 19쪽.



〈도 10〉 구리시의 행정구역과 녹음지역(○표)

8.2 구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90~97>

구리시의 논맴소리에는 논김방아타령, 우겨루방아, 방아소리, 노로리, 상사, 우야, 문돌소리 등이 있다. 마을별 논맴소리에 대하여는 <표 1>을 참조.

8.2.1 논김방아타령 <경기 90, 92①, 95①>, 우겨루방아 <경기 91>

논김방아타령을 아치울<90>과 동창마을<92①> 및 사노동<95①>에서 녹음하였다. 이들의 받음구 예는 <표 7>과 같다.

<표 7> 구리시 논김방아타령의 받음구예

지역<경기>	받음구 예	비 고
아치울<90>	에 헤,/에헤 요,/에 헤에/에헤야,야아/ 어야 아,/에헤헤 요,/에 헤/	*(받)은 6/8박 7마디.(메)는 8마디.(메)는 방아타령과 同.(메)는 쯤대음의 8도윳음시작,(받)은 5도윳음시작. 1oct.넘음. *S1쯤대.t5.v8,
동창<92①>	에 헤/ 에헤 야하,/에 헤헤/ 에 야하/ 에야 -하/ 에헤 야/에 헤/	*(받)은 6/8박 7마디.(메)는 방아타령과 同류.(메)와 (받)은 4도윳음시작. *S4쯤대.t4.v4,5,
사노동<95①>	에 헤/ 헤헤 야하,/어허 어허/어 야/ 에야 -./오호 야/오 호/ 좋 다/	*(받)은 6/8박 8마디.(받)은 5도윳음시작. *S1.t6.v5,

논김방아타령은 고양시 등 중부경기도에서 논맴 때나 또는 회방아때 부르는 일노래이다.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과는 메김소리는 서로 비슷하나 받음소리가 서로 다르다. 받음구에 <95①>에서와 같이 ‘좋다’라는 의미어를 두는 경우보다 <90, 92①>과 같이 입말로만 엮는 것이 더 표준적(理念的)이다. 이념형에 있어서는 <90>처럼 (받)은 6/8박 홀수마디를 이루고 (메)는 짝수마디를 이루곤 한다.

사노동에서는 행상 때나 회방아 때도 <95①>을 부른다.

모두 술선법 내지 술쯤대선법이다. 기음 내지 쯤대음의 4도, 5도 또는 6도윳음에서 종지한다.

동창마을의 강한만(1924.토민)은 애벌맴 때의 첫 드레소리로서 <92①>을 가창하기에 앞

서, 중부경기도에서 회빙아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습관처럼, “군방네-”하고 메김소리꾼이 불러도 대답을 앓고 있다가 세 번 부르면 그제서야 대답하며, 그 대답을 듣고서는 메김소리꾼이 “오늘 하도 심심하고 힘이 드니 노래나 불러보세”하고 맥어나간다고 했다.

<91>도 방아타령의 일종이나 받음구가 “에 헤 에헤 요,/ 에라 우겨루 방아 로다”이고 메김구에는 방아타령의 애용 시작구인 ‘엇타 지영구나’류가 보이지 않는다. 받음선율은 3분박4박 2마디이다. (메)는 3분박4박 2~5마디의 예를 보인다. 음조식은 S1.t4. 이다.

8.2.2 방아소리 <경기 93②>, 노로리 <경기 94①>

<93②>는 교문1동 한다리에서 논매던 소리로 그 받음구 예는 “에 혀라 방아 로다” 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짜른방아에 속한다. 음조식은 S3.t4.이다.(받)은 기음의 4도윗음에서 시작한다.

노로리<94①>는 갈매동 담터에서 논매던 소리인데. “노로리 소리는, 나무꾼의 소리”라는 메김구가 있어 주목된다. 받음구 예는 “로 로 로 리, 노로리 넘차 오호 야”이며, 전반부의 ‘리’는 ‘야’로 후반부의 ‘노로리’는 ‘어러리’로 대체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로 로 로 야, 어러리 넘차 오호 야”로도 불리운다.

양주군과 고양시 및 파주시 등지에서는 훌호리(헤이리)소리가 논맴소리 또는 회빙아소리로 불리움을 전술한 바 있다. 이들지역에서도 훌호리소리가 ‘나무꾼의 소리’라는 메김구의 예가 나오며, ‘서산 나무꾼소리’ 라거나 서산 나무꾼이란 양주군 장흥면 송추의 나무꾼들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제보자도 있었는데, <94①>의 상기 메김구도 이러한 구전(口傳)과 연관된다고 보여진다. <94①>은 그 받음구에 ‘넘차’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형 훌호리 류의 변이형’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터의 행상소리는 한마디소리인 “오홍 오호야”이므로 그 행상소리에 ‘넘차’를 보유하지 않는다.

사노동에서는 메김구에서 “뒗집 영감/ 나무하러나 가세”하며 동시에 “오홍 소리는/ 장사지내는 소리”라고 하면서 “오 홍, 오 호이리/ 오 호아 오 호야”를 회다질 때의 받음구로 쓰고 있는 바⁴³⁾, 고양형 훌호리 류와 연관되어 보인다.

43) 필자의 『경기지방의 喪夫소리』, 전계서, 119쪽.

<94①>은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4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2~5자 구성이다. 입을 두구서 간다거나, 나무를 해다가 고목나무 한단에 일전 오리를 받아서는 무엇 하고싶은 일을 하자는 내용을 보인다. D1.t1.의 음조적이다. 동음연타적이며, (반)은 기음의 5도윗음에서 시작한다.

8.2.3 상사 <경기 92②, 93①, 95②, 아치울>, 우야 <92③, 93③, 94②, 96>

상사소리는 동창<92②>과 한다리<93①>, 사노동<95②>에서 녹음하였다. 아치울에서는 이를 회다질 때 불렀고, 논맴 때도 조금 불렀다고 했다(조상길 : 素99-5-20A). 한다리와 사노동에서도 회다질 때 상사소리를 부른다. 갈매동 담터에서는 “엘 넬 사양사”를 달공소리에 이어 불렀다.

구리시 논맴소리의 받음구 예는 “네넬넬 상사디야”<92②>, “넬넬넬 상사도야”<93①>이다. 사노동의 경우<95②>는 “네넬넬 상사뒤여” 또는 “얼럴 얼러헐 상사 뒤야”이다. ‘얼럴럴’형 보다는 ‘네넬넬’ 형이 보다 경기도 적(的)이다.

<93①, 95②>는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7자 구성이다. ‘상사’를 입을 그리워하는 상사(想思)의 의미로 노래하고 있음을 본다. <93①>의 음조식은 D2.t3 이며, <95②>의 그것은 S1.t4.v4.이다.

우야소리가 수집된 곳은 동창<92③>과 한다리<93③>, 담터<94②> 및 아치울<96>이다. 한다리와 아치울에서는 회다질 때도 우야소리를 부른다. 사노동에서도 회다지면서 회방아 타령 끝에 “우후야 워허”를 부른다(김명수 상여소리 video).

구리시의 받음구 예는 “우후야 에헤”<92③>, “우후야 훨훨”<93③, 94②> 및 “우후야라 훨훨”<96>이다. ‘에헤’보다는 ‘훨훨’ 쪽이 더 표준형이다.

(메)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6자 구성이다. “새야 새야 녹두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푸장사 울구간다”와 같이 새 중에서도 동학군의 녹두장군 전몽준을 노래한 것이라는 속설이 있는 녹두새를 소재로 한 메김구를 즐겨 쓴다<92③, 93③, 94②>. 아치울의 조상길은 “우야소리에 다 날아간다”며 학두루미와 앵무새의 특징을 읊은 가사 예를 보인다. 우야소리를 논맴소리로 부르는 것은 풍년이 들어 새들이 알곡을 쪼으러 오는 것을 상상한 풍년구가의 주술적 의미가 들어 있다.

<92③>의 (반)은 미술라의 3음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음의 4도윗음인 라를 퇴성하면서 중지한다. <93③>의 음조직은 S4.t5 이다. <94②>는 S4.t5.v1.이며 음역이 1악티브이다. <96>은 S2.t5g.이다.

8.2.4 몬돌소리 <경기 97>

몬돌소리<97>는 아치울의 예염싸는 소리이다. 맥반형식이며, 그 받음구는 “에 헤리 몬돌”이다. (매)와 (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매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가사는 이 논배미 매기가 곧 끝나고 다음 논배미로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97>의 음조직은 S2.t4.v1. 이다.

몬돌소리가 없는 동창·한다리·담터마을에서는 우야소리가 예염쌀 때 쓰일 것이다.

8.3 구리시 논맴소리의 성격

구리시에서 불리웠던 논맴소리의 종류들은 이 지역의 민요권이 중부경기도권에 들을 말해 준다. 논김방아타령 등의 방아타령 류, 노로리, 우야, 몬돌의 존재가 그러하다. 동창마을에서의 ‘군방네’ 풍속이나 상사소리의 받음구에서 ‘네넬넬’이 우세한 점은, 보다 경기도적인 색채를 높인다.

음조직에 있어서는 도선법(한치울의 상사, 담터의 노로리소리)이 있기도 하지만, 술선법이 강하다. 동북방인 두레목골과 동창에서는 열소리를, 서남방인 아치울과 한다리에서는 하나류의 나열형으로 모를 심었다. 열소리는 중부경기도의 모심는 소리이다. 모짚 때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다.

<경기 90>

논김 방아(논맴)

구리시
아치울조상길(1916.남.토민) 창
素 99-5-20A

♩. = 50

(발)

에 헤 에 헤 요 -

에 헤 에 헤 야 야 아 -

어 야 아 에 헤 - 헤 요 - 에 헤

(메)

노 자 - 주 영 쿠 나

오 늘 해 도 - 다 념 어 가 고

내 일 은 어 - - 디 서 -

노 잔 말 - - 가

(발) 에 헤 어허야
에 헤 어허야
어야아 에헤요 에 헤

(메) 노자, 주영구나
해는 떠서 은다마는
임은 가고 왜 못오나

〈경기 91〉

방아타령(논맴)

구리시
갈매동 담터

박한용(1917.남.토민) 창
素 99-5-20-2A

♩. = 67

(메)

일 락 은 서 산 에 해 떨 어 지 고
월 출 도 - 흥 녀 에
저 달 이 막 솟 아 오 - 은 다
에 해 에 해 요 -
에 라 우 겨 투 방 아 로 다

- (메)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입을 두구서 나는 간다
니가 가며는 아주를 가니
아주 간들 잇을 소냐
 - 가는님 허리를 덤씩 안고
가지를 말라고 요리 방풍만 친다
 - 이 방아 저 방아 보리방아를
쿵쿵 짙는 방아 짙쇼
 - 노잔다 때려라 풀어서 노자
늪어 지며는 못 노니라
이 방아를 잘 짙시면
재수 소망을 성겨 주니
에 해리 방아로다
 - 방아타령을 잘 받아주면
약주 상급이 절루 오네

<경기 92>

1. 논김 방아

2. 상사

3. 우후야

구리시 동구동
동창마을

강한만(1924.남.토민) 창
MD 99-5-21

— 애벌멜 때의 드레소리 —

(“군방네 — ”하고 선소리꾼이 불러도 대답않다가 세번째 부르면 대답한다.
선소리꾼은 “오늘 하도 심심하고 힘이 드니 노래<나 불러> 보세” 하며 맥인다)

1. ♩. = 45 - 60

(받)

에 헤 에 헤 야 하

에 헤 헤 에 - 야 하

에 야 하 에 헤 야 에 헤

(매) 종 다 지 었 구 나 뉘 었 구 나

강 상 에 등 등 떠 나 는 배 는

월 출 동 녀 에 돛 을 달 고

복을 두리등실 울리면서
어기 여차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인다

2. (밭) 네넬넬 상사디야

3. ♩. = 55

(밭)

우 후 야 에 헤

- (메)
- 새야 새야 녹두새야
 - 녹두 밭에 앉지 마라
 - 청포 장사 <울고> 간다

<경기 93>

논맴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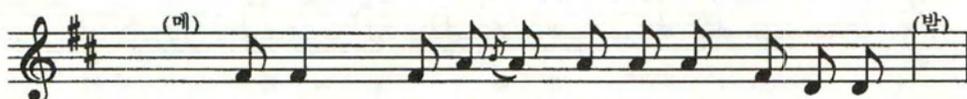
구리시
교문동 한다리

박문학(1917.남. 서울 중곡동 출생.
7세에 한다리 이주) 창
素 99-5-20B

1. 상사 ♩. = 55-60 - 북 안치고 그냥 맥였다 -

(발) 

넬 넬 넬 상 사 도 야

(메) 

상 사 로 구 나 농 사 로 구 - 나

(메) 

임 읊 못 봐 서 상 사 로 구 - 나

2. 방아 ♩. = 60

(발) 

에 혁 - 라 방 아 토 다

(메) 

방 아 로 구 나 방 아 로 구 나

(메) 

이 방 - 아 가 무 슌 방 아 나

(메) ○ 강태공의 짚는 방아다

3. 우야 뿔뿔 ♩. = 60

(받) 우 후 야 - 뿔 뿔

(메) 새 야 새 야 녹 두 새 야

(메) 녹 두 밤 에 - 앉 지 를 마 - 라

(메) 청 푸 장 수 가 울 고 간 다

<경기 94>

논맴(1.노로리 2.우후야)

구리시
갈매동 담터
1. ♩. = 60

박한용(1917.남.토민) 창
素 99-5-20-2AB

(발)

로 로 로 [리야]

[어 리 리 넘 - 차 오 호 야
노 로 리

(예) ○ 간다 - 간다, 입을 두구서 간다

(예)

가 면 - 가 고

에 루 화 말 면 말 지

(예) ○ 노로리 소리는, 나무꾼의 소리
○ 나무를 가세, 나무 허러들 가세
○ 고목 나무 한단에, 일전 짜리를 받어서
○ 일전 오리를 받어서, 사닥 띠기나 허세

2. ♩. = 60

(예)

일 락 은 서 산 에 해 떨 어 지 - 고

우 - 후 야 월 월

(예) ○ 월출 동녘에 달이 솟아
○ 해다지구 저문 날에
○ 옷갓을 허구서 어디를 가나
○ 열씨구 잘두나 받소
○ 노새 노새 꺾어서 놀아
○ 늙어 지면 못노 나니
○ 이<내> 청춘은 다 늙어 가네
○ 새야 새야 녹두새야
○ 녹두 밭에 앉지 마라
○ 녹두 꽃이 떨어지면
○ 청푸 장사 울구 간다

〈경기 95〉

논맴소리

구리시
사노동 두레목골

김명수(1927.남.토민) 창
MD 99-5-20(N.5)

1. 논길 방아타령 ♩. = 50

(받)

에 헤 헤 헤 야 하
어 허 어 허 어 - - 야 -
에 야
오 호 야
오 호 종 다

2. 상사 ♩. = 52~55

(메) ○ 얼릴 얼릴 상사 뒤야
○ 상사르다 상사르다

(받) 네 넬넬 상사 뒤여
(메) 무엇이 그리워서 상사면가

(받)

얼릴 - 얼릴 상사 뒤야
무엇이 그리워서 상사면가
(받) 네 넬넬 상사 뒤여

<경기 96>

우아훤훤

구리시
아치울

조상길(1916.남.토민) 창
素 99-5-20A

♩. = 60

(발) 우 후 야 라 훤 훤

(메) 우 야 소리에 - 다 날 아 간 - 다

(발) 우 후 야 훤 훤

(메) 춤 잘 - 추 느 은 따 두 - 루 미

(메) ○ 말 잘허는 영무새라

상사 : 논 맬 때 부른다.

<경기 97>

몬돌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조상길(1916.남.토민) 창
素 99-5-20A

♩. = 75~86

(반) 
에 해 리 몬 - 돌

(메) 
에 해 리 몬 - 돌

(메) ○ 이산 뽕미를 얹은 맵고
○ 다우 사뽕미로 넣어들간다

(반) 
에 해 리 몬 - 돌

(미) 
몬 돌 파 람 에 다 날 아 가 고

9. 군포시의 논맴소리 <경기 98~101>

9.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1>

군포시에서는 둔대동과 속달동 및 부곡동의 논맴소리를 수집하였다.

군포시청 방면의 중심지역은 조선시대에 과천군 남면이었다가 1914년도에 시흥군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1979년도에 읍으로 승격하면서 시흥군 군포읍(軍浦邑)이라 이름하였다.

군포는 원래 안양시 호계3동 지역을 가리키던 지명이나, 1904년 경부선을 부설할 때, 이곳에다 군포역을 설치하면서부터 역의 인근지역을 군포라 일컬어져왔으며 호계3동지역은 구(舊)군포라 불렀다. 군포라는 이름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관군(官軍)이 왜군에게 피하여 후퇴하다 이 지역에 이르러 승려들로 구성된 의병을 만나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마을사람들이 굶주린 관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켰던 이후로 굶주린 관군이 배불리 먹은 지역이라 하여 군포(軍飽)라 하였으나, 그 뒤에 군포(軍浦)로 적는다 한다.⁴⁴⁾

1989년도에 시흥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독립·승격되었다.

1994년도엔 화성군 반월면의 4개리(대야미리·둔대리·속달리·도마교리)를 군포시에 편입하였다. 지금은 북으로는 안양시, 동남으로는 의왕시, 서남으로는 안산시와 경계한다.

녹음마을인 둔대동과 속달동은 1914년도의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안산군 북방면에서 수원

44)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440쪽.

군 반월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 반월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94년도에 군포시 관할로 들어왔다.

군포시 지역은 대체로 서고동저의 지세이다. 북서쪽으로는 광주산맥을 이루는 수리산(474m)을 비롯하여 태을봉(489m) 등이 솟아 있고 북동쪽으로는 안양천·산본천 등이 흐른다. 북동부의 산본동 등 기존도시 지역은 하천으로 인한 범람원이었으며, 표고 100m 이하의 저지가 많고, 주택지와 공단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둔대동(屯垔洞)은 지하철 대야미역에서 좁게 뚫려있는 길을 따라 20분정도 걷는 거리에 위치한다. 주변은 구릉성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은 농촌의 모습이 잔존한다. ‘둔대’라는 명칭은 임진왜란 당시, 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봉우리에 진을 치고 왜병과 격전하였다하여 둔대라 부른다고도 하고, 이곳 터미산에 넓은 공터가 있기 때문에 둔대라 부른다고도 한다(심돈섭). 터미산엔 ‘샘터’라 불리우는 곳도 있다.

속달동(速達洞)은 산간마을임에도 가장 빨리 발전한다는 ‘속달’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름처럼 전화(電化)사업이 그 주변에서 제일먼저 이루어졌다고 한다. 둔대동에서 15분거리인 이웃마을이다.

둔대동이나 속달동에서는 양력4월에 벼씨를 담그고 나서 열흘지나 모자리에 뿌린다. 뿌린 지 40~45일 사이에 모를 썬서 심었다. 심은지 보름만에 호미로 애머리한다. 다시 열흘 후에 호미로 두벌을 매고, 열흘 뒤에 세벌을 손으로 훑친다. 이로써 논김매기는 일단락하며 그 이후론 피사리하는 정도이다. 아침은 각자 먹고 8시쯤에 맬 논으로 나갔다. 10시경에 술참이 나오며, 12시에 점심, 15시에 저녁술참이 나왔다. 음력 9월에 추수를 하고 음력 10월경에 벼타작을 했다. 둔대동·속달동에서는 음력10월 초하루에 산제를 지냈으며, 제물로는 쇠머리를 썼다. 음력7월에는 대동 뒷뱅이의 우물에서 우물제사를 지냈다. 속달동에서는 정월 보름날 저녁에 남자 : 여자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했다.

부곡동(富谷洞)은 조선시대에 과천군 남면 부곡리와 장간리이었다가 1914년도에 시흥군 남면 부곡리로 개칭되었다. 조선조 중엽의 어느 해에 인근의 마을들은 가뭄으로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이 마을의 논들은 물이 마르지않아 부자마을이라는 뜻으로 부곡(富谷)이라 칭해졌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의 남·북으로 신갈-안산간의 고속국도와 47호선 국도가 달리고 있어, 둔대동보다 더 도시화의 물결이 들어와 있다. 모심을 때는 소리를 하지않았다고 한다. 애벌과 두벌은 호미질을 했고, 세벌매기는 손으로 했다. 예전엔 달긋대를 각자 들고 광안에 들어가, 달고소리에 맞추어 회를 다졌다.

9.2 군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98~101>

군포시의 논맴소리로는 둔대형 논맴소리와 방아소리 및 상사소리 등을 녹음하였다.

부곡동에서는 양산도도 논맴 때 불렀으나 잊었다고 했다. 전과 양상으로 보아서는 화순형의 논맴양산도를 불렀을 것 같다.⁴⁵⁾

둔대동과 속달동에서는 호미로 맬때는 방아소리, 손으로 흙찧던 세벌매기 때는 둔대형 논맴소리를 불렀다. 부곡동에서는 방아소리와 상사소리 및 양산도류를 불렀다.

9.2.1 둔대형 논맴소리 <경기 100>

<100>은 둔대동이나 속달동에서 세벌매기 때에 손으로 논지심을 흠치면서 불렀던 소리이다. 선소리꾼은 북을 치며 소리를 이끈다.

독창하는 앞소리꾼과 제창하는 뒷소리꾼의 노랫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둔대형 논맴소리의 노랫말

①(앞) : 에헤 - 이이이 - , 에헤이 - , 이 헤 - ,
②(뒤) : 아아 - 아 - , 아아 - , 아아 - 아 - ,
③(앞) : 위 - 위- , 위이여 - , 어- 허- ,
④(뒤) : 에헤 - 에에에에- , 에에 - 에 에-이,
⑤(앞) : 아하아 - 아아아- , 아오 - , 아아아 - 아아-
⑥(뒤) : 위 - 위 - , 위이여 - 어 어-
(외침) : “우겨 - ”
⑦(앞) : 에헤에 - 에에에 - , 에헤에 - , 이 헤 에- 에에,
⑧(뒤) : 아아 - 아아 - , 아아 - , 아하 - ,
⑨(앞) : 위 - 위위 - , 위이여 - , 어-허 어- 어-
⑩(뒤) : 에헤 - 에 - , 에에 - 이- 에- ,
⑪(앞) : 아하아 - , 아아아- , 아하 - , 아하아 - 아아-
⑫(뒤) : 위 - 위 - , 위여 - 어-허- ,
(일어서서 외침) : “일로 와 - ”

45) 이소라, “논김양산도 攷” 전계서, 176쪽 참조.

<표 8>과 <경기 100>에서 보면 ①-⑥ 각 행의 시작말이 ⑦-⑫ 각 행의 시작말과 동일하다. 즉, ①에혜 ②아아 ③위 ④에혜 ⑤아하아 ⑥'위'가 그대로 ⑦-⑫ 각 행의 시작말을 이룬다. ①에서는 앞소리가 “에혜 - 이이이 - , 에헤이 - , 이 혜 - ,” 하던 것을 ⑦에서는 “에헤에 - 에에에 - , 에헤에 - , 이 혜 에- 에에,”라 하여 ①의 시작말 ‘에혜-’ 다음에 나오는 ‘이이이 - ’가 ⑦에서는 ‘에에에 -’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①-⑥과 ⑦-⑫의 가사가 거의 같다. 홀수번(에혜/ 위/ 아하아)은 앞소리꾼이, 짝수번(아아/위/위)은 뒷소리꾼이 부른 것이다. ①-⑥까지 부르고 나면 “우겨-”하고 첫바탕이 끝났음을 고하고 ⑦-⑫가 끝나면 “일로 와 -”하면서 둘째바탕이 끝났음을 알렸다.

①-⑫를 셋씩 조합하면 ①에혜 ②아아 ③위/ ④에혜 ⑤아하아 ⑥위/ ⑦에혜 ⑧아아 ⑨위/ ⑩에혜 ⑪아하아 ⑫위/ 가 되어 시작말은 ‘에혜-아-위’를 단위로 반복된다. 그러나 소리꾼은 세패가 아니고 두패 즉, 앞소리꾼과 뒷소리꾼이 교대로 가창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①의 전반부인 ‘에혜 - 이이이 -’의 선율은 eg(ab)를 출현음으로 하고 이때 a는 장식음으로만 쓰인다. b는 a를 전타음(前打音)으로 가지고 시작 ‘에’의 실음(實音)을 이루는 바, 음길이는 짧다. b는 5도하행하여 길게 끌며 g를 장인한 다음 퇴성하면서 일단락한다.

①의 후반부인 ‘에헤이 - , 이 혜 -’의 선율은 g,내림b,c'를 주요구성음으로 하되, g를 퇴성하면서 일단락 짓는다.

②의 전반부인 ‘아아 - 아 -’의 선율 뼈대는 ①의 전반부를 닮았다.

②의 후반부인 ‘아아 - , 아아 - 아 -’의 선율은 처음에 올림f로 짧게 들어간 후 a로 진행하여 장인하고서, 잠시 숨을 돌리고는 ②의 전반부 비슷하게 b-e-g로 진행하고, g를 퇴성하면서 일단락한다.

③의 전반부인 ‘위 - 위--’는 e로 시작하여 길게 뻗다가 g로 상행한다. ①의 전반부에서 시작 실음인 b를 없애면 ③의 전반부와 유사해 진다. ③의 후반부인 ‘위이여 - , 어- 허-’는 ①의 후반부인 ‘에헤이 - , 이 혜 -’의 선율구조와 비슷하다.

④의 전반부인 ‘에혜 - 에에에에-’의 선율은 ②의 전반부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반음정씩 높아져있으며, ②에서는 ‘아-’로 벌던 것을 에에에에- 로 굴곡지어 소리내었을 뿐 서로 동류의 선율형을 그린다.

④의 후반부인 ‘에에 - 에 에-이’의 선율도 ②의 후반부에 비해 반음정씩 높아져 있다. 그러면서 후자의 올림f가 내림a로 처리되어 ④의 전반부 끝의 실음인 내림a와 키를 맞추었다. 올림f도 g를 내려던 것이 조금 낮게 내진 것이라 해석된다. ②의 후반부에서는 b에서 5도 하행했다가 다시 단3도 상행하여 퇴성함에 비해 ④의 후반부에서는 c'에서 장3도 하행 후, 곧 떨어면서 반음정 더 내려갔다가 퇴성한다.

⑤의 전반부인 ‘아하아 - 아아아’는 c'로 시작하여 내림a로 하행하자마자 곧 퇴성하고 f로 떨어져서는 비로소 안정을 얻은 듯 뻗으며 요성하다가 내림a로 상행하여 2회 잘게 굴곡짓고는 퇴성한다. ③의 전반부처럼 역시 시작부분이 ①의 전반부와 차이가 나는 셈이다.

⑤의 후반부인 ‘아오 - , 아아아 - 아아’의 선율은 ①·③의 후반부와는 달리 이조(移調)되지 않고 전반부의 조성(라도레미)을 그대로 유지한다. ①·③의 후반부에서는 c'에서 4도 하행 후 퇴성함에 비해 ⑤의 후반부에서는 c'에서 a퇴성-f내림a퇴성함으로써 조금 더 굴곡진 선율형을 보인다.

⑥의 선율형과 노랫말(위 - 위 - , 위이여 - 어 어-)은 ③을 닮았다. 다만 ⑥의 후반부에서는 ⑥의 전반부와 동일 조성을 유지함에 비해 ③의 후반부에서는 이조되어 있다.

①-⑥의 선율분석을 기초로 이를 정리하면, 음조식은 L4쫄대.t3g.v1,3,4 이다. ⑥의 전반부 선율형을 β , ⑥의 후반부 선율형을 ω 로 표시하면 ③과 ⑥은 모두 $\beta + \omega$ 가 된다. 또한 ①은 (에+ $\beta + \omega$), ②는 (아+ $\beta + \omega$ 변), ④는 (에+ $\beta + \omega$), ⑤는 (아하+ $\beta + \omega$ 변)로서 ①-⑥은 제각기 $\beta + \omega$ 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선율상의 큰 변화는 없다. 작은 변화부분인 ①의 에, ②의 아, ④의 에 부분은 서로 비슷하여 전다음에서 장2도 실음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⑤의 아하 부분은 이와 달리 시작음에서 장3도 하행진행한다. ②의 ω 변은 ⑤의 ω 변과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따라서 ①②④⑤의 선율도 ③과 ⑥처럼 각각 $\beta + \omega$ 을 기본 골조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⑦의 선율형은 ⑤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⑧의 선율형은 ②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⑨의 전반부 선율형은 ③의 전반부 선율형과 거의 같다. ⑨의 후반부 선율형은 ⑤의 후반부 선율형과 유사하다.

⑩의 선율형은 ④의 선율형과 유사하다.

⑪의 전반부 선율형은 ①의 전반부 선율형과 유사하며, ⑪의 후반부 선율형은 ⑤의 후반부 선율형에 가깝다.

⑫의 선율형은 ③의 선율형과 비슷하다.

<100>은 비고정박 장단곡(非固定拍 長短曲)인 고로 ⑦-⑫의 채보 레에서 볼 수 있듯이 북을 선율 매행의 끝부분에 쳐서 β 형 또는 ω 형의 단락을 지우고 뒷소리꾼이 일제히 소리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인접한 시인 안양시의 관양1동 수촌마을의 황정수(1924.토민)는 논맴 때 불렀던 긴소리가 있는데 “위, 아”가 나온다고 하였고 관양1동 마분마을의 김종성(1925.토민)은 “아, 위”가 나오는 긴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두사람 모두 잊었다고 재현하지는 못하였으나 둔대형 논맴소리 유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안양시 호계1동 덕고개 마을의 장성윤(1919.토민)도 논맴 때 불렀던 긴소리가 있다고 하였다.

둔대형 논맴소리가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에서 두패로 나누어 교대로 일어나 불렀다는 긴 입타령의 문생이(“아- 아-, 우-, 에에-, 우-, 오오- 오-, 아- 에-, 에에- 에-, 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앞으로의 관심사이다.

9.2.2 방아소리 <경기 98, 99>

맥반형식의 방아소리가 둔대·속달동<98>과 부곡동<99>에서 수집되었다.

<98>은 중거리방아에 속하며 호미로 애벌 매면서 불리웠다. 받음구 예는 “에-이 여-어라, 방-아, (오-오-)”이다. 메김구는 4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3~5자 구성이다. 메김구 중에서는 어서 빨리 끝내고 농악놀이를 해보자는 구절이 눈에 띄인다. 받음구 부분의 선율은 R1죽대.t5.v1,4,5.의 음조직을 가진다. 메김구 부분의 선율은 L1.v1,4.이며 기음의 단3도윗음에서 일 단락하되 이를 퇴성한다.

<99>의 첫 2행 선율은 중거리방아에 해당하며 그 받음구는 “에헤이-여 어허라, 바하양-아하오-”이다. 선율 제3,4행에서는 잘못 가창되어 짜른방아가 되었는데, 그 받음구 예는 “에이 여라 방아 호”이다. S1.t1.의 음조직을 가졌다. 메김구는 2음보 또는 4음보로 부르다가 짜른방아가 되고부터는 2음보씩으로 일관하였다.

9.2.3 상사소리 <경기 101>

<101>은 부곡동에서 수집한 상사소리이다. 받음구 예는 “엘 넬넬 사양사 뒤야” “에헬 넬넬 상사 도야”이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젊어서 노자는 내용을 노랫말로 쓰고 있다. 주된 구성음은 라레미의 3음이다. 받음구 ‘뒤-야’를 선율 라도에 맞추어 부르며 맺었다.

9.3 군포시 논맴소리의 성격

군포시의 농요는 주택지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북부를 제외한 남부에서만 수집한 것으로 입말로만 구성되어 잊어버리기 쉬운 유장한 논맴소리를 잘 보존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 둔대형 긴소리는 고양시의 긴소리인 “와 - ”류<경기 19, 20>와는 구별되어 보인다.

조사지역에서는 모심는 소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된 행상소리로는 두마디 어거리넘차 류가 불리운다. 그 밖에 잦은 행상소리로 한마디소리를 부른다. 회다지기 전에는 “군방네.”를 찾았으며 주된 회다짐소리로서 달공(둔대·속달동) 또는 달고(부곡동)를 불렀는데, 특이한 점은 둔대·속달동이나 부곡동 모두 두번째의 회다짐소리로서 어거리넘차 류를 부른다는 점이 었다. 우야소리는 전해있지 않았다.

군포시 지역은 중부경기도와는 구별되고, 한강 이남의 서부경기도권에 속하는 개성있는 논맴소리 지대라 할 수 있다.

<경기 98>

방아(호미)

군포시 둔대동

* 속달동은 둔대동의 이웃마을

(메) 심상곤(1931.남.토민)
 (반) 심명섭(1928.남.토민)
 김용학(1932.남.토민)
 김홍필(1924.남.토민)
 김효동(1928.남.속달동 토민)
 녹음협조 : 심돈섭
 MD 02-7-1 n.2

♩ = 150

(메) 에 이 여 어 라
 <복>

방 아 -

(반) 에이여 어라, 방아

(메) 한 불 심 어 가 - 끈 - 놓 사

<복> 마한곡 중 에 열 매 (호)맷 - 네 혜

(반) 에 이 여 어 - 라



- (매) ○ 신기 - 로운, 이 농사는
우리들의 길이로다
- 한섬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 어서 빨리, 끝출 내여
농악 놀이를 해 봅시다
- 일락 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 동녘, 나을 적에
- 농사 - 는, 대본이요
우리들의 생업이라
- 이 소리로 해 보내나
또 소리를 해 봅시다

<경기 99>

방아(논맬)

군포시
부곡동

(매) 주점식(1926.남.토민)
(받) 변재천(1931.남.토민)
MD 02-7-1 n.13

♩ = 150

(매) α

에 헤이 여 어 허 라

바 하 암 아 하 오

- (매)
- 바아로구나, 방아로다
 - 이 방아가 뉘 방안가,
 - 강태공에는 조작 방아

♩. = 50

(받)

엘 넬 넬 바 항-아-로 다

(매)

한 섬 두 섬 으 을 쫓 여 - 내 니

- (매)
- 백옥같은 은쌀일세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내가 가며는 아주를 가나
 - 아주 간다고 잊을 손가

(받) 에이 여라 방아호

〈경기 100〉

논흙치는 소리
 -북을 치며 부른다-

군포시
 둔대동

(앞) 심상곤(1931.남.토민)
 (뒤) 심명섭(1928.남.토민)
 김용학(1932.남.토민)
 김홍필(1924.남.속달동 토민)
 김효동(1928.남.속달동 토민)
 녹음협조 : 심돈섭
 이소라 채보(MD 02-7-1 n.4)

♩ = 150

① (앞)

에 해 이 - -

에 해-이 이 해

② (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③ (앞)

위 위 - -

위 이 여 이 허

④ (뒤)

에 해 에 - - -

에 에 에 에 이

⑤ (앞)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⑥ (뒤)

위 위

위 이 여 여 여

외침: "우 거 - "

⑦ (앞)

에 헤 에 에 - -

<복>

에 헤 에 이 헤 에 에 에

<복>

⑧ (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하 아 - 하

⑨ (앞)

위 위 -

위 허 어 어 허 어 어

(10) (뒤)

에 에 에

에 에 이 에

<북>

(11) (앞)

아 - 하 아 아 - 아

아 하 아 하 아 아 아

(12) (뒤)

위 위

위 - 여 어 허

일어서서 외침 : " 일로 와 - "

〈경기 101〉

상사(논맹)

군포시
부곡동

(매) 주점식(1926.남.토민)
(밭) 변재천(1931.남.토민)
MD 02-7-1 n.12

♩. = 55

- (매) ○ 에헬 뵈뵈 상사도야
○ 노세 노세 꺾어서 노세
○ 늣어 지며는 못노느니
○ 함으 하고는 십일 흥인데

(매)

달 도 차 며 는 기 우 느 - 니

(밭)

엘 뵈 뵈 사 앙 사 뒤 야

- (매) ○ 인생 일장은 춘몽 장인데
○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10. 김포시의 논맴소리 <경기 102~131>

10.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2, 13>

舊김포군에서는 김포읍 사우리(현재의 김포시 사우동), 고촌면 신곡6리, 대곶면 약암1리, 양촌면 누산리, 월곶면의 고양1리와 군하3리, 통진면의 웅정리·서암1리·서암5리, 하성면의 마조리와 하사리 및 김단면 마전리와 오류리(현 인천광역시관할)에서 논맴소리를 녹음하였다. 대곶면 울생리도 방문하였으나 대능·대벽·약암리 앞벌을 막은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라 일반 흥민요 계통(양산도, 방아타령, 개성난봉가)만 녹음할 수 있었다.

서북부 경기도에 위치하며 서해로 뻗은 반도지역인 김포시는 한강하류의 넓은 충적평야지대에 입지하였고, 산지면적은 총면적의 3할남짓하다. 높은 산이라고 해야 월곶면의 문수산(376m)과 김포시 풍무동(옛 김포읍)의 장릉산(150m) 정도이고, 그밖엔 해발 100m전후의 저산성 구릉지가 서북쪽으로 분포하여 전체적으로는 서고동저의 지세이다. 하천은 대개 유로가 짧고 경사도가 낮으며 사행(蛇行)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⁶⁾ 한강을 경계로 고양시, 파주시 및 북한의 개풍군과 이웃하며, 서쪽의 서해 변으로는 강화도와 마주본다.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인천광역시에 인접한다.

이른바 김포평야란 고촌면 전호리에서 한강유역을 따라 김포읍·양촌면·하성면으로 펼

46) 『김포군지』(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93), 27쪽.

쳐지는 넓은 평원을 가리킨다. 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비옥하긴 하지만 대개가 해발 10m 내외의 저지대인 고로 과거엔 한강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적지않았다.

통진면 가현리의 니탄층에서 쌀과 조의 탄화물이 검출되었는데, 니탄(泥炭) 자체의 연대는 신석기시대인 $4020 \pm 25BP$ 라는 수치가 얻어졌기 때문에 고양시 일산의 성저리·가와지 토탄층에서 출토된 볍씨와 함께 늦어도 기원전 2천년 경에는 벼가 한강 하류 유역에서 재배되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⁴⁷⁾

‘김포’라는 지명이 역사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이라고 한다.⁴⁸⁾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때의 김포방면은 한주(漢州) 장제군(현 부천)의 영현인 김포현(김포읍, 고촌면, 검단면 지역)·분진현(통진면, 월곶면 지역)·동성현(하성면 지역)·수성현(양촌면, 대곶면 지역)과 울진군(현 시흥)의 영현인 공암현(서울 강서구 지역) 관할이었다.

고려 공양왕 때엔 김포현·양천현(옛 공암현 지역)·통진현(옛 분진, 수성, 동성현 지역)으로 구획되었다가 조선조 인조 때에 김포·양천·통진현이 각각 군으로 승격되었다.

김포현 방면(김포읍·고촌면·검단면)과 통진현 방면(통진·대곶·양촌·월곶·하성면)은 통일신라 이래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나타나더라도 김포반도 내에 높은 산이나 큰 강이 없는 고로 자연적 여건이 민중의 상호 생활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 신평에서 고촌면 신곡리로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석굴 나루터가, 김포읍 걸포리와 고양군 간의 감바위 나루터가 고양군 방면으로의 내왕을 담당했다. 개풍군 방면은 월곶면 조강리의 조강 나루터를 이용하였다. 강화군 초지에는 대곶면 대명리 소재 대명 나루, 강화군 광성 행일 때는 대곶면 쇠암리의 광성 나루, 강화군 갑곶 방면으로는 월곶면 성동리의 성동 나루를 건넜다.

1914년엔 김포·양천·통진군이 김포군으로 합병된다. 1963년도엔 옛 공암현지역이던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의 강서구에 편입된다. 1979년에 김포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엔 월곶·대곶·양촌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통진면이 신설되었다.

1995년에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1998년엔 3동(김포1동, 김포2동, 김포3동) 6면(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의 김포시로 출범하게 된다.

47) 임학중, “도작농경의 여명,” 『겨레와 함께 한 쌀』, 전개서, 11쪽.

48) 『김포군지』, 전개서, 5쪽.

김포군 지역은 1모작지대로서, 모를 낸지 보름만에 초벌(애벌)을 매며 열흘만에 두벌을, 두벌 후 스무날 만에 세벌을 맨다. 초벌과 두벌은 호미로, 세벌은 손으로 흙침이 일반적이다.

양촌면 누산리에서는 2,30명씩 논매기를 했다. 논배미를 다 맬만 할 때, 똥그렇게 에워싸며 몸돌로 들어갔다. 3시간 정도 계속 논을 매므로 논맬소리를 많이 했다. 점심먹고 한참 매다가 좀 서늘해지면 그때부터 사뭇 노래한다. 석양관에 주로 노래한다. 논매고 들어올 때는 팽과리 뚜드리고 쇠납도 불면서 마을로 들어와서는 놀기도 한다. 애벌, 두벌은 호미로 매고 세벌은 손으로 흙쳤는데, 세벌 때는 5,6명씩 쪼개어 품앗이 하므로 별로 노래하지 않으며 노래하더라도 그게 그거다(대수롭지 않다는 뜻). 논이 적은 사람은 세벌매기를 혼자서도 한다. 7월 7석무렵에 파잡(파손)을 할 때면 다른마을 두레를 청하기도 한다. 이때는 놀면서 청춘가, 노래가락, 수심가, 자진염불, 풍년가 등 제각기 신명나는 대로 아무 노래나 불렀다.

검단면의 경우, 3월말에 모판에다 모를 기른지 40일이 못되어 4월 그믐이나 5월 초순에 모를 낸다. 모 낸지 보름만에 호미로 초벌매기를 하고, 10일만에 호미로 두벌을 맨 다음 20일 후에 손으로 세벌매기를 했다. 논 10마지기(2,000평) 정도 가진 집이면 꽤찮은 편이었는데 두레패는 12-25명으로 구성되었다. 한번 논을 매기 시작하면 보통 3시간 동안을 일했기 때문에 지겹고 힘들어서 벗어나려고 노래를 불렀다. 매김소리 때는 논을 매고 받음소리 때는 일어나 춤추곤 한다. 점심먹고 한참을 매다 좀 서늘한 석양관에 사뭇 노래한다. 세벌 때는 5,6명씩 쪼개서 품앗이하거나 논이 적은 집은 혼자서도 하기 때문에 노래하지않는 편이다. 두레를 파장하는 호미걸이 때는 밀떡을 만든다. 두세동네가 함께 모일 때는 동네마다 음식배당을 하여 낸다. 최초에 두레패를 구성한 부락이 선배두레가 된다. 길에서 두 두레패가 만나면 후배두레가 먼저 방고를 치며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않으면 두레싸움이 난다. 썰장목을 뺏는 것으로 승부가 나는데 뺏긴 쪽의 영좌가 와서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다. 두레조직은 우두머리인 영좌 아래로 총무 격인 주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구성원과 심부름꾼인 '조사'가 있다. 15세 정도면 농청에 들어왔는데 연령이 제일 어린 사람이 조사가 된다.

김포읍 사우리(沙隅里; 새모래)는 김포읍의 읍소재지로서 운정산을 주산으로 하여 한강변에 위치한 마을이다. 제방축조가 되지않았던 시절에 마을 앞까지 한강물이 드나들어 개펄과 모래가 많이 쌓이기로 "모래 모퉁이 동네"라 일컬었다. 현재는 김포시 사우동 지역이다.

고촌면 신곡6리(은행정); 신곡6리(新谷6里)는 예전에 경주 임씨 임창문이 심은 수백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하여⁴⁹⁾ 은행정(銀杏亭)이라 일컫는다. 또한 신곡리의 영사정(永思亭)마을에

남원 윤씨의 묘가 있는데, 망인의 호를 따서 신곡(薪谷)리라 부르다가 뒤에 新谷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한다. 은행정에서는 두레로 논매러 갈 때는 나발을 불고 농본기를 들고 나갔고, 망논매고 들어올 때는 노래는 하지않고 쇠만 치고 들어 왔다.(장재순)

대곶면 약암1리 ; 통진군 당시는 약산리(藥山里)와 상적암리(上赤岩里)였으나 그 후 합병하여 약암리(藥岩里)라 일컬었다. 약암1리의 가창자 조계환은 호박 구덩이 식으로 논을 댔다고 표현한다.

양촌면 누산리(樓山里)는 1914년도 행정구역 개편시에 누리(樓里), 온산(溫山), 발산(鉢山)을 합치면서 그 이름 중 樓와 山을 따서 누산리로 칭하였다.

월곶면의 고양1리(능골)는 무안대군⁵⁰⁾의 능(陵)이 있어 능골이라 불리운다. 1987년도 조사당시 능골은 48가구 모두가 농가였으며, 그중에서 3,40호 가량이 전주 이씨였다. 고양리(高陽里)라는 지명은 지대가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진다는 데서 유래한다.

월곶면 군하3리 ; 면소재지는 군하리이다. 군청소재지가 있었던 곳이라 해서 군하리(郡下里)라 한다.

통진면 서암리 ; 서명동(西明洞)과 검암리(黔岩里)를 통합하여 서암리(西岩里)라 칭하였다. 서암1리(바우모루)와 서암5리(구삿마을)를 방문 녹음하였다. 구삿의 조상연(1922.토민)은 선소리꾼을 가리켜 ‘소리아비’라 칭했다.

통진면 웅정리(瓮井里)는 웅기를 굽던 곳이라 하여 불리우는 명칭이다.

하성면 마조리 ; 양질의 마(麻)를 생산제조하였다 하여 마조리(麻造里)라 한다.

하성면 하사리 ; 하은면(霞隱面)의 하(霞)와 사포리(沙浦里)의 사(沙)를 따서 하사리(霞沙里)라 한다. 사포리(사푸리)라 함은 봉성리 강둑을 막기 전에는 마을 앞까지 모래사장이 펼쳐 있었으며, 배가 드나들던 포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단면 마전리 ; 마전리(麻田里)는 면소재지 마을이다. 예전엔 삼을 많이 재배하였기 때문에 불리우는 명칭이라 한다.

검단면 오류리(梧柳里 ; 오리울)는 조선조 중엽 이전에 이 마을에 오동나무 숲이 있었고, 그 옆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고로 얻은 명칭이다.

49) 『지명유래집』, 경기도, 전계서, 930쪽.

50) 撫安大君 : 조선조 태조의 제7남인 이방번(李芳蕃)을 가리킨다. 어머니는 신덕왕후이다. 1392년에 무안대군으로 피봉되었다. 태조는 내심 방번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다. 태조7년(1398) 방원의 난으로 조준 등에게 피살되었다.

10.2 김포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102~131>

김포군의 논맴소리로는 사디, 니나노 방아타령, 긴방아, 방아소리, 상사, 몸돌, 기타 우야소리 흔적 등이 녹음되었다.

김포읍 사우리(현 김포시 사우동)에서는 니나노 방아타령<109>, 상사류<124>와 몸돌소리<128>가, 고촌면 신곡6리에서는 상사소리<121>가 수집되었다. 고촌면의 가창자 장재순은 긴소리가 있으나 잊었다고 하였다. 현 인천광역시관할인 검단면 마전리·오류리에서는 니나노 방아타령(素92-1-30A), 상사류 <119, 122>가 녹음되었다.

대곶면 약암1리에서는 긴방아<104>, 니나노 방아타령<112>, 상사<123>, 몸돌<130>.

양촌면 누산리에서는 느린 방아<105>, 니나노 방아타령<111>, 상사<118>와 몸돌<129>, 월곶면 고양1리에서는 니나노 방아타령<110>, 방아소리<116①>, 상사<116②>, 몸돌<116③>, 월곶면 군하3리에서는 느린방아<106>, 니나노 방아타령<114①>, 상사<114②>, 몸돌<131>.

통진면 웅정리에서는 방아소리<115①>, 니나노 방아타령<115②>, 상사<115③>, 몸돌<115④>, 통진면 서암리에서는 사디<101, 103>, 중거리 방아<108①>와 짜른방아<108②>, 니나노 방아타령<113>, 상사<125①>와 몸돌<125②>.

하성면 마조리에서는 짜른방아<107>와 상사류<117> 및 몸돌<126>. 하성면 하사리에서는 니나노 방아타령(素92-1-31A), 상사류<120>, 몸돌류<127>가 수집되었다.

10.2.1 사디 <경기 102, 103>

사디소리가 통진면의 서암5리 구삿마을에서 발견되었다. 가창자인 조남창<102>과 조상연<103>은 부자지간(父子之間)이다. 조상연은 “사디는 네마디(네꼭지)로 넘어가는데 길게 부르며, 노래할줄 아는 사람들 끼리 모여 입을 모아 부른다”고 했다. 서암5리에서는 논매기를 10명도 매고 20명도 매었다.

서암1리의 최병익(1915.토민)은 ‘사디요’ 하면 사디가 되고, ‘방아요’ 하면 방아가 된다면서 사디소리도 <108①>의 중거리방아 비슷한 곡조로 나간다는 그의 느낌을 얘기하긴 했으나 가창하지는 않았다. 서암1리 바우모루 마을에서는 방아소리·방아타령·상사·몸돌소리, 이렇게 네종류의 논맴소리를 주로 불렀다고 했다.

조남창(1902.구싯토민)은 사디를 좀 재게 부를 때 방아타령을 부른다.

김포시 사디류의 받음구는 “에에 - 에 - , 에에 - 이어라, 사디어여 - ”<102>, “에에 - 에 - , 에에에 - 에 - , 사 - , 사디 - 요 - ”<103>이다.

<102>의 (받)은 3분박4박 3마디, (메)는 3분박4박 2마디로 정리되어 있다. (받)의 첫행 선을 끝부분은 규정박보다 길어졌다. 메김구는 “사디허는 군바흥네야/ 일심합력 불러주소”처럼 4음보로 되어있고 그 1음보는 4자씩이되, 느릿하게 가창됨으로 ‘군바흥네야’처럼 ‘방’을 ‘바흥’으로 풀어내어 5자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음조식은 S1.t4(단. f-gfc의 볼록곡선을 그리면서 t1.에서 매듭지음)이다.

<103>은 비고정장단곡으로 채보되어 있다. 메김구는 “노래하는 동관님네/ 일심합력으로 밤아주소”인 바, <102>의 가사내용과 상통한다. 사디소리는 눈에 들어가서의 첫소리인 고로 논매기꾼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일심합력해서 소리를 일제히 받으라는 요청을 메김구로 애용하는 듯 하다. <103>의 가창자 조상연이 ‘네꼭지로 넘어간다’고 한 것은 채보된 악보에서 보는 바처럼 (메)와 (받) 모두 네부분으로 나누어 부르게 되는 것을 뜻한다. <103>의 메김구는 4음보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6자구성이다. 음조식은 S1.t4.v1,4,5 이다.

전술한 고양군 송포면의 사두 류<21,22>, 과천시 막계동의 사두<51>와 동류에 속한다.

<21, 22, 51>에서는 김포시의 ‘사디’ 대신에 ‘사두’라 발음된다. 그밖에 양주군에서도 논맴소리로 녹음된다. 안양시 호계1동에서는 봉분을 조금 돌운 후에 다지는 잣은소리 형태로 수집된다.

10.2.2 니나노 방아타령 <경기 109~114①, 115②>

논맴 때 불리우는 방아타령 류는 긴 입타령의 받음구를 특색으로 하는 논김방아타령과 우겨라 방아 및 일반 흥민요 계통의 니나노 방아타령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메김소리 부분은 흔히 공통되며, 받음소리 내지 일반 논매기꾼들이 부르는 반복구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니나노 방아타령은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에 해당한다. 이는 논김방아타령과 같은 기존의 일노래를 가지고 그 받음구 부분만 편곡하여 부른 것이라 보여진다. 니나노 방아타령의 형성과 보급은 20세기 초, 유성기 음반의 보급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포시 지역에선 니나노 방아타령류가 상사소리, 몸돌소리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로 불리웠다. 논김방아타령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성면 하사리나 검단면 마전리에서도 니나노 방아타령류가 논맴소리로 수집된다.

하성면 하사리 흥인환 창(素92-1-31A) :

- ① 에 헤에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절반이 썩 넘어서 다 늙었으니
다시 오기는 예헤라 꽃 지구서 앵 돌아졌다
- ② 에헤 타 지었구나
(기학선 기억에 독기 학대 흥대)
신선이 모두 다 모여서
바둑 장기만 덩기 덩실 두잔다
- ③ 조타 주었구나
동소문 밖을 썩 나서보니
낙락장송 늘어진 가지
홀로 앉아 우는 저 뼈꾸기
우리님 죽으신 영혼인지
나를 보고서 예루화 슬피 우노나
- ④ 헤헤 예헤야 어허 우겨러 방아로구나
나니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가 방아가 좋소”

검단면 마전리 장복동 창(素92-1-30A) ;

- ⑤ 에헤 예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저 달이 솟는다
- ⑥ 에헤 예헤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니난실 난실 나니로구나
니나노 나노가 좋소”

<표 9> 김포시의 니나노 류 받음구 예

<경기>	지 역	니나노 류 받음구 예	비고
<109>	김포읍 사우리	앵 행 에헤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임/ 나니가 난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 조훗 (소)	고정구
<110>	월곶면 고양리	에 행 에헤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나니가 난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 좋 소	고정구
<111>	양촌면 누산리	헤 헤, 에헤 요/ 허하 우겨루 방하로 고나/ 나니가, 난실 산이로 구나/ 니나노 방하 좋 소	고정구
<113>	대곶면 약암리	에 헤 헤헤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고나/ 난실 나안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 소	고정구
<113>	통진면 서암1	에 헤 에헤 요/ 어라 우겨루 방아로호 고나/ 난실 나안실 나니로 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 소	고정구+변화구
<114①>	월곶면 군하리	헤 헤 헤헤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나니가 난실 나니로 고나/ 니나노 방아가 좋 다	고정구
<115②>	통진면 웅정리	앵 행, 에헤 요/ 에하 우겨루 방아로 구나/ 나니가 난실 너니로 구나/ 네나노 방아가 좋 소	변화구가 있는지 不明.

위의 ①-④는 흥인환 창이며, ⑤⑥은 장복동 창이다. 이른바 경기민요 방아타령에 비추어 보면, ②③은 소리애비가 부르는 부분이고, ①④⑤⑥은 일반 논매기꾼들이 부르는 받음소리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경기민요 방아타령은 받음소리가 고정구+변화구로 엮어 불리운다.

<109~114①, 115②>에서 변화구가 니나노 류인 받음구 예는 <표 9>와 같다.

<표 9>의 받음소리 예들은 <113>을 제외하고는 고정구로 쓰였다. <115②>의 경우는 1회만 가창되어 ‘나니가’ 이하가 변화구로 가창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3분박4박 4마디에 배정된다.

소리애비 첫행 가사의 반복부분 예를 보면, “ 좋구두 또 좋구나”<109>, “ 좋다 지혀영구나”<112>, “ 좋다 지영구나<114①>, “ 누웠구나나 좋구나”<111>, “ 좋었구나 누웠구나”<113>, “ 옛타 좋구나”<110> 이다.

그리고 소리애비가 끝행의 첫머리에 ‘에라’<109>, ‘에루화’<111,112>, ‘에(헤)리’<113> 등의 반복어를 넣는 것은 메김소리가 끝남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양촌면 누산리에서는 느린방아<105>를 부르고 나서 “자진방아로 돌려를 봅시다” 하고는 <111>를 가창한다. <111>는 경쾌한 곡풍이므로 가창자가 느릿하게 부르는 <105>에 비하

여 갖게 부른다는 의미로 ‘자진방아’라고 이름하였으나, 고음반시대 이래로 ‘자진방아타령’⁵¹⁾이라 하여 메김구에 ‘떴다’라는 어휘가 나오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전문소리꾼들의 소리가 있고, 또한 짝른방아<107> 류와의 구별을 위하여는 적절치 못한 곡명이다.

<109>은 S1굿대.t6g.v(4),5,(8). <110>은 S1굿대.t5g.v2,4,5,8. <111>는 S1굿대.t6g.v1,4,5. <112>의 (밭)은 S1굿대.t6.v4,5. 이나, 소리애비의 가창에서는 S1굿대와 R1굿대가 공존한다.

<113>은 S1.t6.v1,4,8. <114①>은 S1굿대.t6.v4,8. <115②>는 S1.t6.v1. 의 음조적을 가진다.

10.2.3 긴방아 <경기 104>, 느린방아 <경기 105, 106>

<104>는 대곶면 약암1리에서 녹음된 것으로, 맥받형식이며 그 받음구 예가 “에 헤-이 에 에-이, 호호- 오--라, 아아 - 아아아- 요- --” 또는 “(흥)에 에-이 에-, 호호- 오--이라, 아 에-어 어- 아아이 오 -” 이다. 받음구에 ‘방아’라는 어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유장하게 불리우기 때문에 긴방아 곡으로 분류하였다.

메김구 예는 “농자- 느-은, 천하지- 대-본-, 농사 ---, <밖>-에, 어디 또 -, 있어 있-나”이다. 보통속도의 곡이라면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어디또있나”로 1음보가 3~5자구성인 4음보가 3분박4박 선율 2마디에 배정될 범 한 것을 숨을 5회나 쉬면서 여섯부분으로 쪼개고 있다.

음조적은 S1.t4g.v1,4. 이다.

<105>은 양촌면 누산리에서 녹음된 느린방아소리이다. 소리애비는 북을 치면서 노래한다. 가창자 정만길은 “논을 맬 때는 기러기 날아가듯 쫓아가며 논을 매는데, 긴방아 소리를 주면 여럿이 똑 같이 받는다. 논매는 사람이 30명이라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아는 사람 10~15명 정도가 한군데로 모아서는 입을 모아 부른다”고 했다. 그는 <105>을 가리켜 ‘긴방아’라 일컬었으나 받음구에 ‘방아’어휘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시험적으로 ‘느린방아’라고 분류해 본다. <105>의 받음구 예는 “오 오- , 헤헤리 --리, 방화 요 오우오 - ”이다. 메김구 예는 “농부님네-, 내말씀 듣-오-,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 밖에 또있는가-”로서 <104>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먼데 사람, 듣기나 좋고, 가깝데 사람은 보기나 좋게”에 와서는 중거리방아 정도에 머문다. 음조적은 S1굿대.t5(단.끝을 장2도까지 미끌어

51) 이소라, “경복궁타령 攷” 『민속학연구』 제9호(국립민속박물관, 2001), 252쪽.

저 내리기도 함).v1,4. 이다.

<106>는 월곶면 군하리에서 수집된 것으로 중거리방아보다도 느리나, 받음구에 ‘방아’어휘를 보유하기도 하고 긴방아처럼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받음구 예는 “에- 에이-이, 이워어- 어이 - , 오-오-라, 방아-요 -” “에에- 에에-이, 잉워어- 어이-, 바- 오- 아이요-”이다. 메김구 예는 “방아- 소리가, 너<무>나 적어, 먼데-사람, 듣기나 좋고, 가깝데 사람은, 보거나 좋게 하소”로서, 유장하게 가창된다. 둘째번 (받) 아래 부터는 메김소리가 방아타령으로 돌아가 버렸다. (받)의 음조식은 S1.t2g.v4 이나, (메)에선 도-라-미의 하행선율형도 가미된다.

10.2.4 방아소리 <경기 107, 108①, 108②, 115①, 116①>

이들의 받음구 예는 “에히여라 방아요”<107>, “에이여라 방아요”<108>, “이이 - 여라 방아요”<115①>, “에헤 여리 방아 요호”<116①>로 대동소이하다. 하성면 마조리<107>·통진면 서암1리<108>·통진면 용정리<115①>·월곶면 고양리<116①>에서 녹음되었다.

<107, 108②>는 짜른방아의 일반형으로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108①>은 <108②>와 동일 가창자의 것으로 <108②>보다 먼저 불리웠고 2배 이상으로 느린 점으로 보아 중거리방아에 분류된다.

<115①>은 (받)의 선율이 비(非)3분박 적이며, 일반형보다 느리다.

<116①>은 (메)가 3분박4박 2마디이다. 고양리 토민인 이은하(1909년 출생)는 북을 치며 맥였으며, 호미 끝을 붙잡고 손을 흔들어가며 방아소리를 받았다고 했다.

<107, 109②>는 S1.t4. <108①>의 (받)은 S2.t4g, <115①>은 S3.t4.v4. <116①>은 R1.t5g.v4,5. 의 음조식을 가졌다.

10.2.5 상사 <경기 114②, 115③, 116②, 117~125①>

김포시의 상사소리는 잦은 논맴소리에 속하며 몸돌을 부르기 전에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 받음구와 음조식은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면, 검단면 마전리<122>와 김포읍 사우리<124>만 받음구가 ‘얼덜덜’형이고 그밖엔 ‘에넬넬’형이다. 후자가 더 경기도적이다.

선법은 S1. S2. L1. L4. R1. M1. M2. S3. 등 다양하다. S3.는 L3, R3.와 상통한다. 주로 중간음에서 중지한다. (메)와 (받)이 3분박4박 1마디 씩이며, 모두 짜른상사 류에 속한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3~6자 구성이며, 4자 또는 5자인 경우가 많다. 회다질 때도 잦은 상사소리를 부른다는 곳은 고촌면 신곡6리와 대곶면 약암1리였다.

〈표 10〉 김포시 상사소리의 받음구 예와 음조직

<경기>	지역	받음구 예	음조직(가사내용) 등
<114②>	월곶면 군하3	에 넬넬 상사 디요	S2.t4g.(그리움) *새날림
<115③>	통진면 웅정리	에일 넬넬 상사 디여	S3.t4.(상사부사는 동진사요)
<116②>	월곶면 고양1	엘 <넬>넬 상사 뒤여	*거의 다매고, 몬돌전에 부른다.
<117>	하성면 마조리	에헬 넬넬 상사 디야	S1.t4.(밥없어 · 임없어 상사더냐)
<118>	양촌면 누산리	에 넬넬 사양사 데야	L1.t4.v1,4.(상사부사 동지사/면테사람 듣기 좋게/이씨한양 건국시에 인왕산이 주산되고)
<119>	검단면 마전리	엘 넬넬 상사 디야	M1.t3.v4.(정든님 두고 나는 간다)
<120>	하성면 하사리	넬 넬넬 상사 디야	R1.t5.v1,4.(그리움)
<121>	고촌면 신곡6	엘 넬넬 상사 디여	L4.t4에서 2도상행.v3.(상사로다 부사로 구나/ 뉘상사더냐)
<122>	검단면 마전리	얼 렐렐 사양사 디여	D1.t3에서 끝을 2도하행. ("이번 가며는 고만이 로다")
<123>	대곶면 약암1	에헤 넬넬 사양사 디야	M2+D4.t3에서 끝을 조금 상행. D4에서는 v3,5. M2에서는 v4,6. (무정세월 가지마라/사람 많아도 소리는 적다)
<124>	김포읍 사우리	어릴 렐렐 사양사 도야	(받)은 (라)도레(미).레終.요성 : 도레/ (메)는 솔라레.요성 : 레. (오늘같이 좋은날/일락서산 월출)
<125①>	통진면 서암1	넬 넬넬 상사 디야	S3.t4.(상사부사가 통진김포)

10.2.6 몸돌 〈경기 115④, 116③, 125②~131〉

몸돌소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에염싸는 소리의 하나로서,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서부쪽이 본고장이다. 김포군의 녹음지역 중에서는 고촌면 신곡6리, 통진면 서암5리, 검단면 마전리와 오류리에서만 미녹음되었는데, 아마도 그곳에서도 수집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사우리 토민인 유근택(1927년생)은 옛날의 논배미는 구부러졌기 때문에 빙빙 돌아 끝났으

며, 이렇게 몸돌하는 것을 ‘두렁걸이’한다고도 했다.

몸돌소리의 받음구 예는 <표 11>과 같다.

<표 11> 김포시 몸돌소리의 받음구 예

<경기>	지 역	받음구 예	음조직(가사내용) 등
<115④>	통진면 웅정리	에이여라 몸돌	S3.t4.(뽕뽕돌려 소리몸돌)
<116③>	월곶면 고양1	에헤여라 몬돌	R1.t1.v4.
<125②>	통진면 서암1	에이여라 몬돌	S2.t4.(뽕뽕돌려 몬돌을질제/오조밭에 새날린다)
<126>	하성면 마조리	에히여라 몸돌	S2.t4. *메김구없이 몸돌만 3회 복창후 “우여.”
<127>	하성면 하사리	에-여라 몸돌/ 에이혀라 몸돌	(받) : R2.t4의 끝을 2도상행. (메) : L4. (뽕뽕돌려 몸도로/얼른매구 호미씻세) * 끝에 우여
<128>	김포읍 사우리	에이여허라 모흠돌	S1.t5.v5.(뽕뽕돌아 따리몸돌/똥말아 명석몸돌) *앞논에 새았는다 새쫓아라-
<129>	양촌면 누산리	에여라 몸돌	S1.t4.v4.(논김매는 권할머니,막걸리동이/백두산 낙맥..노들다리 건너 김포군 접어들어) *에야라 훨훨 “우-”
<130>	대곶면 약암1	에헤여리 몬돌	M2+S3.t4끝부분을 단3도올림.v4,6. (똥똥똥쳐 돼리몬돌)
<131>	월곶면 군하3	에혀라 몸돌	S1.t4.v4.(뽕뽕돌아 따리몬돌) *“오조밭에 새쫓아라, 위 위”

<표 11>에서 보면, <126>를 제외하고는 모두 맥받형식이다. 하성면 마조리<126>에서는 메김구없이 몸돌만 3회 복창후 “우여.”하고 논밖으로 나간다.

<표 11>의 받음구는 몸돌형<115④, 126~129, 131>이 몬돌형<116③, 125②, 130>보다 더 우세하다. 음조직으로는 S1<128, 129, 131>, S2<114②>, R1<116③>와 그밖에 R2. L4. M2. S3.의 경우들이 있다. S3는 L3. R3과도 상통한다.

<130>의 첫2행이 내재4박 1마디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메)와 (받)이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메김구는 2음보씩이며 그 1음보는 4자 또는 5자 구성이다.

메김구로는 뽕뽕돌며 에음을 쓰는 작업모습을 형용하여 따리몸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지 않으며, 소리몸돌, 명석몸돌이라고도 하였다. 양촌면 누산리의 정만길은 <129>에서 “강남도

대한민국.. 이씨한양 등국시라.. 백두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노들다리 건너 김포군 접어들어”와 같은 고사소리나 터다짐소리에 잘나오는 가사를 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18>상사 참조). <125②, 126~129, 131>에서 보이는 우야소리의 흔적에 대하여는 후술 참조.

10.2.7 우야소리 흔적 <경기 129> 등

우야소리의 흔적을 <125②, 126~129, 131>와 같은 몸돌류의 끝과, 그밖에 상사소리<114②>의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양촌면 누산리<129>에서는 소리애비가 몸돌의 마지막 메김구로 “에야라 훨훨”을 부르면 다른 논 매기꾼들도 이를 복창하고는 다함께 “우-”라고 외친다.

통진면 서암1리<125②>에서는 몸돌소리의 끝나는 메김구로 “오조발에 새날린다”만 기재되어 있으나 “우-”하고 외치며 나올 법하다고 보여진다. 김포읍 사우리<128>의 몸돌소리를 끝내고는 소리애비가 “앞논에 새았는다 새쫓아라-”하고 외친다. 월곶면 군하3리<131>에서는 소리애비가 “오조발에 새쫓아라”하면 바로 “위 위”하며 끝낸다. 하성면의 마조리<126>와 하사리<127>에서는 새쫓는 메김구없이 단순히 “우여-”만 외치고는 논밖으로 나가고 있어 이러한 외침을 우야소리와 관계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주변 면에서의 우야소리의 흔적들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우야소리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밖에 월곶면 군하3리의 가창자 윤실봉(1926.토민)은 상사소리<114②>의 끝부분에서도 소리애비가 “오조발에 새<날>려라”하면 바로 “위-야 위”하고 끝낸다.

10.3 김포시 논맴소리의 성격

김포시의 논맴소리로는 사디, 니나노 방아타령, 긴방아, 방아소리, 상사, 몸돌, 및 우야소리 흔적 등이 녹음되었다.

이 중에서 니나노 방아타령, 상사소리, 몸돌소리가 김포시에서의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이다. 몸돌소리는 김포시를 포함하는 서부 경기도가 본고장인 예염씨는 소리인데 김포시에서는 대다수가 맥반형식으로 불리우며, 또한 그 끝에 오조발에 새날리는 등의 우야소리 흔적이 보이는 예가 상당수 된다.

니나노 방아타령 · 상사소리 · 몸돌소리와 함께, 사디소리가 있고, 우야소리의 흔적이 있으

며, ‘에넬넬’상사형이 우세한 점, 회다질 때 달고에 이어 니나노 방아타령을 부르는 마을(고촌면 신곡6리, 김포읍 사우리, 통진면 서암1리와 5리, 하성면 하사리)과 상사류를 부른 예(고촌면 신곡6리, 대곶면 약암1리)가 있는 것은 중부경기도인 고양시와 서부방면의 서울과 인접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니나노 방아타령보다 더 고행(古形)에 속하는 논김방아타령이 불리우지 않는 점, 홀호리 류나, 논김양산도 쇠소리 등이 없는 점은 고양시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방아소리 류가 고양시에서는 논맴소리로 불리우지않은 것을 보면, 김포시의 방아소리 류는 부천시 등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리하여 김포시의 논맴소리는 중부경기도권의 서쪽 한계지역에 속하며, 방아소리를 통해 그 남쪽 방면과의 교섭이 들어나는 권역임을 알 수 있다.

몸돌소리는 전파권의 중심지대에 속하며⁵²⁾ 긴 사두 류에 속하나 고양시·과천시·의 ‘사두’ 대신에 ‘사디’라고 하는 점, 모심는 소리에서 나타나는 김포형인 ‘허나 허나 하나 둘이로다’ 등에서 이 지역의 개성이 엿보인다.

솔선법 계통이 다수를 차지한다. 상사소리의 경우는 무반음전음계(無半音全音階)의 솔선법(S), 레선법(R), 라선법(L), 미선법(M)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R1. 내지 R1.췌대선법의 곡으로는 대곶면 약암리 조계환 창 의 방아타령<112>, 월곶면 고양리 이은하 창 의 방아소리<116①>와 문돌<116③>, 하성면 하사리 홍인환 창 의 상사<120>가 있다. 가창자에 대하여는 <표 1> 참조.

52) 이소라, “몸돌소리 考,” 『최인학 환갑기념논문집』, 1999.

<경기 102>

사디소리(논매는소리)

김포군 통진면
서암5리

조남창(1902.남.토민) 창
素 87-8-13 ①A

$\text{♩} = 40 \sim 43$ (반)

에 - - 에 - -

에 - 에 이 여 라

(매) 사 - 디 이 여 - -

사 디 - 러 는 - 군 바 - 흥 네 야

(반) 일 심 - 합 력 - 불 러 - 주소

<경기 103>

사디소리(논매는소리)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구샷)

조상연(1922.남.토민) 창
素 87-8-1B

實音은 단3도 더 낮음
♩ = 150 (매)

노 래 하 는 -
동 판 - 님 네
일 심 합 력 으 로
(받) 받 아 주 소 -
에 에 에 에 에
에 - 에 에 에 에
사 - - - -
사 디 - 요

〈경기 104〉

긴방아(논매는소리)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메) 조계환(1928.남.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15세까지 거주, 20세 정도에 대곶이주
(받) 조계환, 한규성(1936)
素 87-8-1 A

$\text{♩} = 150$ (받)

에 해 이

에 에 이

호 호

오 - - - 라

아 - - -

아 - - -

(메) 요

농 자 느 으

천 하 지 - - -

대 - - - 본

농 사 - - -

파 (박) 에 -

어 디 또 - - -

(반) 있 이 - 있 나 -

(흥) 에 에 이

에 -

호 호 -

오 - - - 이 라

아 에 - 어 어 - - -

아 아-이오

<경기 105>

느린방아

—북을 치며 부른다—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정만길(1913.남. 화성군 정남면
출생. 7세에 누산리 이주) 창
素 87-8-13 ①B

(메) $\text{♩} = 150$ ϵ

오 어 리

에 해 어 리

(반) 방 하 요 호

오 오

해 해 리 리

방 화 요 - 오우-오

(메)

농 부 님 네

내 말 씀 들 오

농 자 는 천 하 지 - 대 - 본

(받) 농 사 밖 - 에 또 있 는 가

먼 데 사 람
듣 기 나 - 좋 고
가 간 데 사 람 은 -
보 기 나 - 좋 - 게 예

오 오
에 - 이 리
방 아 요 호

<경기 106>

느린방아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3구

윤실봉(1926.남.토민) 창
87-8-1A

♩ = 150

(발) 에 에 - 이 이 이
이 워 어 - 어 이
오 오 락 - -
방 아 - - - 요 - -
(메) 방 아 - 소 리 - 가 -
너 <무> 나 적 어 -
먼 데 사 람 들 기 나 - 좋 고 -
가 칸 데 사 람 - 은 -

보 기 나 좋 게 하 - 소 -

(받) 에 - 에 에 이

임 위 어 - 어 - 이

바 으 아 - 이 요 -

(매) ○ 좋 - 다 지영구나
이 밤아를 잘 받으시면
웃음의 상금도 나오신다네

(87-5-18-2B) ○ 타 쿠나 지영구나
이 농사를 지을 때에는
어떤이 이것을 마련을 했나

○ 엇따 지영구나
춘풍에 돛을 달고
만경 청포<창과> 배 떠나니
이루해 또다시 만나면
에투화 한백년이로다

<경기 107>

짜른방아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민병환(1908.남.토민) 창
素 87-5-18 ②A

$\bullet = 50 \sim 55$ (메)

(받) 에 해이 여 라 방 아 - 요

에 히 여 라 방 아 - 요

(메) 김 포 통 진 은 밀 타 리 방 아 (받)

여 주 이 천 자 차 방 아

<경기 108>

방아(논맴)

김포군 통진면
서암1리

최병익(1915.남.토민) 창
素 87-8-13-1A

1. ♩ = 25

(발)

에 이 여 라 방 아 - 요

2. ♩ = 67

(메)α

에 이 여 라 방 아 하 요 호

(메)

방 아 방 아 가 무 슨 방 아 나

(발)

에 이 여 라 방 아 요

(메)

김 포 통 진 은 밀 다 리 방 아

(메)

여 주 이 천 엔 자 차 아 방 아

<경기 109>

방아타령(논매는소리)

김포읍 사우리

실음은 4도 더 낮음

유근택(1927.남.토민) 창
이소라 채보

$\text{♩} = 60$ (매) α

앵 행 에 헤 야 -
어 라 우 겨 라 방 아 로 - 구 나 - 잉
나 니 가 난 - 실 나 니 - 로 - 구 나
(매) 니 나 노 방 아 조 홉 (소)
1. 종 - 구 도 또 - 우 종 구 나
가 - 앙 남 천 리 나 하 은 제 비
박 씨 하 나 를 입 에 다 물 고
2. 허 공 중 천 노 - 흘 이 떠 서
부 러 진 쭉 지 를 자 - 알 잘 끌 고

이 집 저 집 다 비켜 놓고
 흥부의 지 - 힘 으 로
 (받) 훨 훨 날 아 드 - 니 다

(예) 2. 실쪽 셀쪽 소구등아
 소리의 명창은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서
 에라 걸렸느냐

3. 좋고두 또 좋구나
 봄들었구나 봄들었네
 이강산 삼천리 봄들었구나
 꽃은 피여서 화산이 되고
 잎은 피여 청색인데
 우리 농촌에 풍년이 들어
 오품잡곡 대풍이로구나
 에여라 방아로구나

4. 좋구두 또 좋구나
 배야배야 저기집애야
 물둥이 나려서 옆에다 끼고
 따리는 벗어서 손목에 들고
 가간데 냉수는 저차를 놓고
 먼데이 냉수를
 에라 길러 가자

5. 좋구두 또 좋구나
 노들강변 물오리 한쌍
 푸른콩 하나를 입에다 물고
 암놈이 물어서 숫놈을 주며
 숫놈이 물어서 암놈을 주며
 암놈 숫놈 어르는 소리
 늙은 과부 담배질 허고
 젊은 과부는
 에라 보따라 싣다

6. 굼실 굼실 잉어들아
 오염의 감바위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
 에라여기 왔느냐

7. 모가지 길숙 황새들아
 논길 밭길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
 에라 여기 왔느냐

<경기 110>

방아타령(논매는소리)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메) 이선화(1918.남.토민)
(반) 이은하

$\text{♩} = 50 \sim 60$ (반)

에 행 에 헤 야 -

어 라 우 겨 라 방 아 로 구 나

나 니 가 난 실 나 니 로 구 나

나 나 노 방 아 가 좋 소

(메) 1. 옛 타 - - - 좋 - 구 나

무 정 세 월 (*) 가 지 를 마 라 -

장 안 에 호 결 - 이

(반) 에 루 화 다 늬 어 가 - 나 다

(메) 2. 옛 타 좋구나
오늘날은 여기서 놀고
내일날은 어디가 노나

3. 옛 타 좋구나
김포 통진 밀다리 방아
여주 이천은 자차 방아

<경기 111>

방아타령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정만길 창
素 87-8-13 ①B

$\text{♩} = 150(\text{매})$

자 진 방 아 로 -

들 러 를 뭉 시 다

$\text{♩} = 43 \sim 45 (\text{매}) \alpha$

혜 혜 혜 혜 요 -

허 하 우 겨 루 방 하 로 고 나

나 니 나 나 - 실 - 산 이 로 - 구 나 -

(반) α 나 나 노 방 하 -- 풍 소

(매)

누 워 - 구 이 나 조 - 윗 - 쿠 나

춘 추 절 이 저 적 막 - 허 니

개 자 춘 이 의 냇 이 로 - 고 - 나
 머 - 헌 산 에 봄 이 드 니
 불 타 - 한 자 - 한 되 는
 (받) 에 루 화 새 속 뉘 나 - 나 다

- (매) 2. 누엇구나 좋구나
 오다가 가다가 만난 님이
 정은 어찌나 깊었는지
 생각을 - 하 허구서
 에루화또 생각 한-다
3. 누엇구나 좋-구나
 백설 같은 흰 나비는
 부모님 동상을 입었는지
 소복단장을 펼쳐입고
 장다-리 발으로만
 에루화 왕래 현-다
4. 누엇구나 좋-구나
 봄들었구나 봄들었구나
 삼천리 강산에 봄이 들어
 누른 것은 피꼬리요
 푸른 것은 버들이라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황금 갑옷을 펼쳐 입고
 양유-청산으로
 에루화 왕래 한-다
- 자진 방아는 돌려오고, 다른 소리로 길을 돌아 -

<경기 112>

방아타령(논맴)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메) 조계환(1928.남) 창
(반) 한규상(1936.남.토민),
서영석
素 87-5-18-2B

♩. = 46-60

에 헤 헤 헤 아 아 -

중 - 다 우 겨 라 방 아 로 고 나 -

나 - 실 나 - 실 나 니 토 고 나

니 나 노 방 아 가 좋 소

(메) 1. 중 다 하 - 지 형 - 구 나

노 세 노 세 - 겹 어 노 세

늬 어 - 지 히 며 히 은

에 루 화 못 노 - 리 로 - 다

한(밭) %

에 해 해 해 해 야 -

어 라 우 겨 라 방 아 트 고 나

난 실 나 안 실 나 니 로 구 나

니 나 노 방 아 가 좋 소

(메) 2. 좋 다 - 지 험 - 구 나

산 천 초 목 은 짙 (ㅎ) 어 가 고

인 간 - 처 혀-영 춘 (ㅎ) 은

에 루 화 왜 늣 어 가 느 - 나

Fine

D.S

- 3.(메) 좋다 지혀엿구나, 노다가새 자다가새
(도로흙단) 집으루, 에루화노다가 갑시다
- 4.(메) 좋다 지혀엿구나 무정세월 가지물 마라
아까운 청춘이 에루화 다 늣어 가누나
- 5.(메) 좋다 지혀엿구나, 무정하구 야속하다
우리 인생이, 에루화 야속두 하고나

<경기 113>

방아타령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바우모루

최병익(1915.남.토민) 창
이소라 채보(87-8-1B)

♩. = 45-55

(발)

에 해 에 해 요 -

어 라 우 겨 루 방 아 토 호 고 나

나 니 가 난 실 나 니 로 고 나

니 나 노 방 아 가 좋 소

(메)

1. 좋 았 - 구 나 누 았 구 나

오 다 가 다 가 만 나 - 님 은

정 - 은 어 - 이 깊 았 - 는 지 -

생 - 각 허 - 구 또 생 각 허 면

사 권 거 — — — — — 엇 이

에 — 리 웬 수 — 로 고 — 나

2. (매) 좋았구라 누웠구나
 금일 여기 심는 배는
 남산 흥에
 에리 대추 베토다
- (밭) 에 헤 에헤요
 어러 우겨루 방아로구나
 노잔다 때려라 꺾어서 노자
 늪어 지면
 에헤리 못 사귀 로다
3. (매) 좋구나 누웠구나
 이베 저베 다 접아 두고
 여주 이천 자차며 심어
 진상 올려 노자
- (밭) 에 헤 에헤요
 어러 우겨루 방아로구나
 인물 일색은 봉숭아 꽃이
 석달 열흘을
 에헤리 폐지나이로다

<경기 114>

1. 방아타령(논맬)

2. 에널빌 상사

김포군 월곶면
군하3리

윤실봉(1926.남.토민) 창
素 87-8-1A

1. ♩. = 50-60

(밤)

헤 헤 헤 헤 야 -

어 라 우 겨 라 방 아 로 - 구 나 -

나 니 가) 난 실 나 니 로 고 나

니 나 도 방 아 가 좋 다 Fine

(메)

좋 다 지 영 구 나

당 신 은 죽 어 - 나 비 나 되 어

나 는 죽 어 - 꽃 이 나 되 고 -

꽃과 나 - - 비 - - 는
 에 해 루 한 백 년 이 토 - 다 D.C

2. ♩. = 60

(발)
 에 널 널 상사 디 요
 (메) 상사 부사는 동지나산 데
 (메) 무엇이 그리워 상사가 됐더냐
 (메) 오 조 - 밭에 - 새 <날> 려 라
 (다함께) 위 야 위

<경기 115>

1. 방아소리
2. 방아타령
3. 에일넬넬 상사
4. 몸돌

인천시 백석동
김포군 통진면 웅정리

심기득(1909.남. 백석출신.
18세까지 살다가 19세에
웅정리 이주) 창
素 87-5-18-1B

1. ♩ = 150

(받)
(내재4박)

이 이 - 라 방 아 - - 요

(메)

이 방 아 가 무슨 방 아 나

(메) ○ 머구 노재는 디딜방아

2. ♩ = 50

(받)

에 - ○ 헤 - ○ 에 헤 요 -

에 하 우 겨 루 방 아 로 구 나

나 니 가 난 실 너 니 로 구 나

네 나 노 방 아 가 좋 소

3. ♩. = 55-60

(받)

에 일 널 널 상 사 디 여

(메)

상 사 부 사 는 동 진 사 요

4. ♩. = 60

— 실음은 장3도 더 높음 —

(받)

에 이 여 라 몸 들

(메)

평 평 들 려 서 소 라 몸 들

<경기 116>

1. 방아소리
2. 엘넬넬 상사
3. 몬들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능골

이은하(1909.남.토민) 창
素 87-5-18-1B

1. ♩. = 50 - 북을 치며 맥인다. 호미끝을 붙잡고 손을 흔들며 받음소리 하곤 했다 -

(발)

에 해 여 리 방 아 요 호

(매)

이 방 아 가 뉘 방 아 나

강 - 태 공 - 의 조 작 방 아

2. ♩. = 67 - 거진 다 매고 동그랗게 남았을 때 부른다 -
*음정은 참고용

(발)

엘 <넬> 넬 상 사 뉘 여

3. (발)

에 해 여 리 몬 들 (ㅎ)

<경기 117>

에헐넬넬 상사디아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 = 55-

민병환 창
素 87-5-18 ②A

(메) 에 네 넬 넬 상 사 디 야

(반) 에 헐 넬 넬 상 사 디 야

(메) 상 사 로 다 사 앙 사 로 다

(반)

(메) 밤 이 없 - 어 사 앙 사 터 나

(반)

(메) 임 이 그 리 워 사 앙 사 - 데 나

(반)

(메) 웃 이 없 어 사 앙 사 - 더 나

(반)

<경기 118>

에넬넬 상사데야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정만길 창
素 87-8-13 ①B

$\text{♩} = 55 \sim 60$ (매) ϵ

(반) 에 넬 - 넬 사 - 앙 사 디 (야)

(매) 에 넬 넬 사-앙 사 데 야 (반)

(매) 사 앙 사 부 사 는 동 지 사 (반)

(매) 먼 데 사 람 듣 기 나 좋 게 (반)

(매) 가 칸 데 사 람 보 기 나 좋 게 (반)

(매) 국 태 민 안 은 세 화 나 연 풍 (반)

년 - 년 이 - 들 아 만 들 고

(매) 이씨 한양은 건국시에 /
인왕산이 주산이 되고 /
주산앞에 대궐을 짓고 /
대궐 앞에는 육조 로다 /

<경기 119>

엘넬넬 상사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장복동(1914.남. 마전출생.
1991년에 인천시 가정동
이주) 창
素 92-1-30B

♩. = 55

(받)

엘 넬 넬 상 사 디 야

(메)

간 다 간 다 나 는 - 간 다

(메)

정 든 님 두 구 서 나 는 - 간 다

(받)

엘 넬 넬 상 사 디 야

- (메) ○ 간데 쪽쪽 정 들여 놓고
○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

<경기 120>

넬넬넬 상사(논맴)

김포군 하성면
하사리

홍인환(1915.남.토민) 창
素 92-1-31A

♩. = 50

(발)

네 - 르 넬 넬 상 사 - 디 야

(매)

상 사 허 더 - 니 우리 - 님 아

- (매)
- 꿈 가운데 잠깐 만나서
 - 만단 설화를 다 허잰더니
 - 방정맞은 청삼살이
 - 뽕뽕짓는 선처지에
 - 난가 일몽 꿈이로다

〈경기 121〉

엘넬넬 상사

김포군 고촌면
신곡6리 은행정

장재순(1918.남) 창
素 92-1-30A

♩. = 50 (이 속도는 실제 논맹동작에선 좀 빠르며, M.M 45정도가 알맞다고 함)

(받)

에 - 르 넬 넬 상 사 디 여

(메)

상 사 로 다 상 - 사 로 다

(메)

디 여 소 릴 높 이 허 게 -

(메)

이 리 - 저 리 잘 도 멘 다

- (메) ○ 상사 소리 신나게 허게
○ 상사로다 뉘상사더나
- (받) 에 네넬넬 상사디여
- (메) ○ 상사 소리 나거들랑
○ 상사로다 부사로구나

<경기 122>

얼렁얼렁 상사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메) 장복동(1914.남. 마전출생.
1991년에 인천시 가정동이주)
(받) 서재준(1933.남. 검단면 오류리
출생. 42세에 마전리이주)
素 92-1-30B

♩. = 55

(받)

12
8

얼 - 렵 - 렵 사 앙 사 디 - 여

(메)

이 번 가 며 는 고 만 이 토 다

〈경기 123〉

에헤넬넬 상사(논맴, 회방아)

김포군 대곶면
약암리

(메) 조계환(1928.남.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출생하여
15세까지 살았다.
대곶엔 20세 정도에 이주)
(받) 한규상, 서영석
87-5-18-2B

♩. = 50

(받) 에 헤 넬 넬 사 앙 사 디 야

(메) 에 헤 허 어 리 상 사 디 야- (받)

(메) (0: 글러내는음) 사 램 은 많 아 도 소 리 는 적 다 (받)

(메) 무 정 세 - 율 가 지 마 라 (받)

(메) 아 까 운 인 - 생 다 - 늙 는 다 (받)

<경기 124>

어릴릴릴 상사도야

김포읍

유근택 창
素 87-5-18 ①A

♩ = 64 (매) α

어 렵 렵 - 렵 사 앙 사 도 - 야

(반) α

(매) (반)

오 늘 간 이 좋 은 날 - 에

(매) (반)

일 락 서 산 에 해 멸 어 지 - 니.

(매) 월출 동편에 달이 뜬다 /
여보시오 여러분들 /
요내 한말씀 들어나 보소 /

<경기 125>

1. 벨벨벨 상사

2. 몬돌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최병익(915.남.토민) 창
素 87-8-13-1A

1. ♩. = 75



벨 벨 벨 상 사 디 야



상 - 사 부 사 가 몽 진 김 포

2. ♩. = 75



에 이 여 라 몬 (하) 돌

- (메)
- 농부님네 말들어봐라
 - 땡땡 둘러서 몬돌을 길게
 - 밭쟁우에 <밭자국에> 모 짓밟는다
 - 오조밭에 새 날린다

<경기 126>

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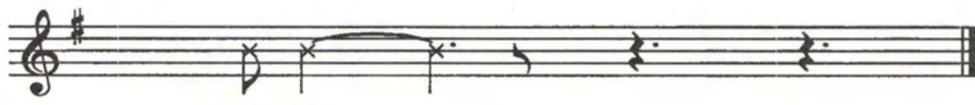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민병환(1908.남.토민) 창
이소라 채보(87-5-18-2A)

♩. = 55



에 히 여 라 몸 - 돌



우 여

<경기 127>

몸돌

김포군 하성면
하사리

(매) 홍인환(1915.남.토민)
(반) 남궁백 등
녹음협조 ; 이봉용
92-1-31A

J. = 55



에 - 여 라 몸 - 돌



땡 땡 들 려 - 몸 도 - 로 -

(매) ○ 얼른 매구 호미 셋세
○ 오늘 해두 저물었네
○ 에이 혀라 몸돌

- 우여 -

<경기 128>

몸들소리

김포읍

유근택 창
素 87-5-18 ①A

$\text{♩} = 60 \sim 67$ (매) α

(반) α 에 이 여 허 라 모 호 - 다 들

(매)

(반) 원 출 동 편 에 달 이 뜬 - 다

(매) 뽕뽕 돌아라 따리 모흠들 / 뽕뽕 달아라 멍석 모흠들 /

<신소리꾼 외침>

앞 는 에 새 앓 는 다 새 쫓 아 라

<경기 129>

몸돌소리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정만길 창
素 87-8-13 ①B

$\text{♩} = 63$ (메)

상 사 디 는 저 처 놓 - 고

몸 돌로 - 들 어 물 - 가 보 세

(메) α 에 여 라 몸 돌 (반) α

(메) 몸 돌 소리 - 들 기 좋 게 (반)

(메) 논 김 매 는 - 권 할 머 니 (반)

(메) 막 걸 리 동 이 머 리 에 이 고 (반)

(메) 앙 덩 춤 이 절 로 만 나 네 (반)

(메) 일 취 월 장 - 잔 병 없 이 (반)

(메) 석 석 - 허 게 두 잘 자 름네

(메) 농사는 천하지 대본 /	모란봉을 썩 올라서 /
농사박이 또 있는가 /	태상관을 등대허니 /
강남도 대한민국 /	인물추신 잠깐허고 /
우리나라두 대한민국 /	태상관을 뚝 떠나서 /
조선땅이 제일입네 /	무악재 고개를 훨훨 넘으니 /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왔구랴 /	예전에는 영주문인데 /
이씨한양 등국시라 /	시방시체는 독립문이라 /
백두산이 생겨났네 /	노들다릴 썩 건너서서 /
백두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	김포군을 접어들어 /
기자 천년 단군 천년 /	풍년이 왔어 풍년이 왔어요 /
금수 강산을 구경허고 /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어요 /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
	월출동녘에 저달이 솟아 /

(메) (반) α

에 여 라 몸 들

(메) β (반) β

에 야 라 훨 훨

(다함께)

우

<경기 130>

몬돌

김포군 대곶면
약암1리

(메) 조계환(1928.남)
(반) 서영석, 한규상
素 87-5-18-2B

♩ = 150

(메)
(내재4박)

에 해 허 - 어 - - 라 -

머 - - 언 드 - - 호 음

(메)
<풀> 풀 몽 - - 처 뵈 - 리 몬 돌

(반)

에 해 의 리 몬 - 돌 -

〈경기 131〉

몸돌소리

김포군

(메) 윤실봉(1926.남.월곶면 군하3리 토민)

(반) 윤덕현(1934.남.통진면 옹정리 토민)

素 87-8-1A

♩. = 63

(반)

에 혀라 몸 돌

(메)

땡 땡 돌아서 따 리 나 문 돌

- (메)
- 따리 문돌 돌아 돌아
 - 한섬 지기 논 배미가
 - 따리만큼 남았으니
 - 월출 동녘에 달이 솟네
 - 일론 매고 집으루 가세
 - 땡땡 돌아서 따리 몸돌

(메)

오 조 발 에 새 쫓 아 라

선율<SR> (나같이)

위 위

11. 남양주시의 논맴소리 <경기 132~148>

11.1 배경 및 녹음지역 <도 14, 15>

남양주에서는 미금시 평내동(현 남양주시 평내동)과 별내면 청학리, 수동면 운수2리와 외방 2리, 와부읍 덕소리, 조안면 송촌2리, 진건면 송능2리, 진접면(현 진접읍) 장현리 및 화도읍 마석우2리의 논맴소리를 수집하였다. 와부읍 팔당리에서는 논맴소리가 찾아지질 않았다.

남양주시는 중부경기도의 동편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포천군(소흘면·내촌면), 동쪽으로는 가평군(상면·외서면)과 양평군(서종면·양서면), 남쪽으로는 광주군 남종면, 서쪽으로는 하남시·구리시와 서울(강동구·노원구), 서북쪽으로는 의정부시와 인접한다.<도 14>

남양주시는 백암산·명지산·천마산·도봉산·북한산 등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漢北正脈)의 끝자락에 자리잡아, 시 전역의 70.1%가 산지이며, 농경지는 17.3%에 불과하다. 농경지 중에서도 산전(山田)이 많고 평야에 있는 논은 아주 적다. 평야라고는 진접읍의 왕숙천 유역 정도이다.⁵³⁾ 남양주시의 지형은 가운데에 천마산(812.4m)이라는 지주가 서 있고 둘레엔 포천군 방면의 용암산(479.9m)과 운악산(234.8m), 가평군과의 경계인 축령산(879.5m)과 서리산(825m), 양평군과의 경계를 이루는 송라산(493.5)·문안산(536.1)·운길산(610.2m), 하남시 방면의 남쪽으로 뻗은 조조봉(300)·적갑산(561)·예봉산(683.2m), 서울과의 경계를 이루는 불

53) 『남양주시사』 제1권 역사편(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37쪽 이하.

암산(508)·수락산(637.7m) 등이 에워싸고 있다.<도 15>

남양주시의 서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 하남시와 마주보며, 동남쪽으로는 북한강이 흘러 양평군과의 경계를 이룬다. 시내에는 왕숙천·구운천·묵현천 3개의 큰 하천이 흐르는데, 구운천과 묵현천은 화도읍에서 북한강으로 흘러들고, 왕숙천은 진접읍 부평리에서 시작하여 수석동에서 한강에 합류한다.⁵⁴⁾

남양주는 역사적으로 양주의 남부 등, 인접 지역과의 통폐합 과정에서 형성된 행정구역이다. 삼한시대엔 마한에 속했고, 삼국시대엔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각축장이 되던 곳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가 9주 5소경을 설치할 당시엔 한주(漢州)의 한양군(漢陽郡)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에 오늘날의 서울지역에 있던 양주가 조선조에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서울 외곽의 큰 근현으로 자리잡게 되었을 때, 남양주는 양주의 속현인 풍양현에 속하였다. 풍양현지역은 묘적산과 운악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왕실의 사냥터나 강무장으로 이용되었다.

한말과 일제시기에는 현 남양주시 지역이 양주와 가평·양평·광주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상기 조사마을 중에서 수동면 외방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가평군 지역이었고, 조안면 송촌리와 와부읍 팔당리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관할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마을들은 모두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소속이었다.

1963년에 수동면이 신설(화도면 3리·진접면 1리·가평군 외서면 3리를 통합)되면서 현재와 비슷한 바탕의 읍면 단위가 편제되었다. 1966년도엔 별내면 퇴계원출장소를 설치하였다(1989년 4월1일에 퇴계원면으로 승격됨).

1980년 4월 1일자로 양주군에서 벗어나, 2읍(구리·미금) 6면(진접·진건·화도·수동·와부·별내)을 관할하는 남양주군이 신설되었다. 1986년에는 구리읍이, 1989년에는 미금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군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

1992년에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설치되었다(1995년 5월6일에 오남면으로 승격).

1995년 1월 1일자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어 남양주시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2000년 현재 남양주시는 3읍(와부·진접·화도읍) 6면(별내·퇴계원·진건·수동·조

54) 구운천은 수동면 내방리에서 시작하여 화도읍 구암리에서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묵현천은 화도읍 묵현리에서 시작하여 화도읍 금남리에서 북한강에 합류한다.

(『남양주시지』 역사편, 전계서, 56쪽 이하.)

안·오남면) 10동(평내동 등)의 행정구역을 관할한다.

남양주시의 논맴소리를 위한 본서의 조사는 1987년도와 미금시가 분리된 1989년도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구리시는 독립되어 있었고 오남면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퇴계원면은 마지막 조사 무렵에 방금 생겼나 있었다.

미금시 평내동(현 남양주시 坪內洞)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의 통폐합시에 궁평(宮坪)과 장내(牆內)일부를 합하여 평내리라 하였다. 궁평은 태조 이성계의 형인 의안대군(宜安大君) 이화의 묘를 백봉산 서쪽에다 쓰고 궁을 세운 이후로 궁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궁말이라 부르던 것을 일제시대에 궁평으로 바꾸었다. 가창자인 이 중휘는 전주 이씨인데, 계유정난⁵⁵⁾ 때에 단종이 죽고, 의안대군의 손자인 하령군(河寧君)이하 16인이 순절할 무렵에 황해도 연백군으로 가서 13대를 살았으며 연백군에서 다시 궁말로 들어온지가 160여년(조사 당시)된다고 하였다. 평내동에서는 소만 때부터 망종까지 보름간 풀을 했다. 하루에 녀집도 한다. 풀을 하고나면 힘이 들어 사람이 다 쓸어지곤 했다. 모심고 25일 되면 호미로 매기 시작하여 다 매면 손으로 또 맨다. 호미로 맬 때나 손으로 맬 때나 노래는 같다. 힘들어서 노래하는 것인데, 여럿이 소리하면 처량하게 좋았다. 논매는 형태를 일컬어 '돛배'친다고 하는데, 앞돛배가 나가서 이렇게 돌면, 돛배 돌아 뚱그랗게 쩐다. 저사람이 세폭 짚어나가면 나도 세폭 짚어나가야 한다. 정월보름에 햇불싸움을 했고, 줄다리기도 했다. 회다질 때는 각자 달긋대 쥐고 8인이 광안에 들어간다.

별내면 청학리(別內面 靑鶴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별비면에 속해 있었다. 마을 동편의 은행나무 고목에 청학이 살았다하여 청학리라 부른다. 호미로 애매고 나서 두벌, 삼동매기를 하였다. 의령 남씨 남기준의 16대조 산소가 있다. 호리소 또는 거리소로 논밭갈이를 하더라도 외치기만 하는 정도이다.

수동면 운수2리(水洞面 雲水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에 속해 있었다.

53가구 중 김해김씨가 15호된다. 가창자인 김봉건도 김해김씨이다.

수동면 외방2리(水洞面 外坊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가평군 지역이었다. 논골, 장구매기, '구매바위들'이라 불리우는 논이 있다. 저리소모는 소리가 있다.

와부읍 팔당리(瓦阜邑 八堂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동부면에 속해 있었다. 한

55) 癸酉靖難 : 1453년 계유년에 수양대군이 여러 고명대신을 없애고 정권을 잡은 난.

강 중류의 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넓은 나루이고로 바당이 또는 팔당이라 하였던 데서 불리우는 지명이라고도 하고, 또는 강의 양안의 산세가 수려하여 팔선녀가 놀던 자리에 여덟 개의 당을 지어놓았다는 전설로 인해 얻은 명칭이라고도 한다⁵⁶⁾. 정월보름께에 줄다리기가나 햇불싸움은 하지 않으나 지신은 밟았다. 논이 밭보다 적은 지역이다. 논맴소리는 수집되지 않았고 토민인 오일남(1924년생)에게서 지경류의 터다짐소리만 확인되었다.

와부읍 덕소리(瓦阜邑 德沼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이 양주군 와공면 지역이었다. 큰 못이 있어 덕소라 하였다.

조안면 송촌2리(烏安面 松村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지역이었다. 1906년에는 양주군 초부면에 소속되었다. 콩재배로 유명한 두촌(豆村)마을과, 두촌이 커지자 소나무밭에다 분가하여 생긴 마을이라는 송신(松新)의 이름을 따서 송촌리라 부른다. 송촌2리는 80호중 85%정도가 농가이다. 중산간마을로 논이 밭보다 많다. 가창자인 윤용섭과 윤문섭은. 파평윤 씨이다. 호미로 논을 매는 지대이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진건읍 송능2리(眞乾邑 松陵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건천면 지역이었다. 송능리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묘소인 성릉(成陵)이 있다.⁵⁷⁾ 또한 이웃마을인 사능리에는 단종비 정순왕후의 묘소인 사릉(思陵)이 있다. 호미로 논매는 지역이다. 호리소(1마리)로 논밭을 간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진접읍 장현리(榛接邑 長峴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접동면 지역이었다. 1914년의 통폐합시에 장승리(長承里) ; 장승이 있다하여 불리운 이름)와 봉현리(蜂峴里) ; 마을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에 벌집이 있어 그곳을 피해다녔는데 ‘비리개’라 부르던 것을 한자 표기화 한 것임)에서 글자를 따서 장현리라 하였다. 장현리는 읍소재지 마을이다. 가창자 남영문은 장현1리에서 출생했고 장현4리에 거주한다.

화도읍 마석우리(和道邑 磨石隅里) ;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하도면 지역이었다. 맷돌이 많이 생산되고, 마을의 길이 돌아서 생겼다하여 맷돌모루, ‘맷돌머루’라 하던 것을 한자 표기하여 마석우리가 되었다. 화도읍의 금남리(琴南里)와 차산리(車山里)도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하도면 지역이었다.

56) 『지명유래집』, 경기도, 전개서, 227쪽.

57) 『남양주시지』 제3권 민속편(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731쪽.



〈도 15〉 남양주시의 산세

11.2 남양주시 논맴소리의 종류 <경기 132~148>

남양주 지역의 논맴소리로는 싸-소리, 사디소리, 민아리, 우거리 방해, 방아, 상사, 우야소리 등을 녹음하였다.

평내동에서는 느린 방아<경기 138, 142①>와 상사<142②>가 녹음되었다. 별내면 청학리에서는 상사<140①>, 방아<140③>, 우거리 방해<140③>, 우야<140②>. 수동면 운수2리에서는 싸-소리<경기 132>와 상사<146>. 수동면 외방2리에서는 중거리방아<139>와 짜른방아<137>. 와부읍 덕소리에서는 방아와 상사. 와부면 출신으로 양평군 양서면에 거주하는 구완서로 부터는 느린방아<141①>와 상사<141②>. 조안면 송촌2리에서는 민아리<134>, 느린방아<135①>, 중거리방아<135②>, 짜른방아<135④>와 우야<135③>. 진건읍 송능2리에서는 중거리방아<136>와 상사<143>. 진접읍 잠현리에서는 상사<145>와 우야<147>. 화도읍 마석우리에서는 사디<133>, 상사<144>. 그밖에 화도읍 차산리의 토민으로부터는 논매고 쉼참에 부르던 냇두리<148>을 수집하였다.

11.2.1 싸-소리 <경기 132>

수동면 운수2리의 토민인 김봉건(1919년생)은 받음구 “헤 - -, 헤에 - -, 위 여 - -, 위, 싸 -”의 끝부분 ‘위 싸아’는 개구리쫓는 소리라고 표현했다.

싸 - 소리류가 전술한 고양시<19, 20>와 과천시<60>에서도 나왔지만 <60>은 논매기가 끝날무렵에 메김구없이 가창되었다는 점에서, <132>는 보다 고양시의 쇠- 소리에 더 가깝다.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에서도 ‘사도’류 앞에 부르는 긴 논맴소리로 녹음되었는데, <132>보다 간략히 가창되었다.

<132>의 메김구는 “여보 - 시 - 요, 농부님네 ---, 얼른 -- 매 - 고, 술을 먹, 세 ---”이다. “여보 시요/ 농부 님네/ 얼른 매고/ 술을 먹세”로 나누어 본다면, 4음보로 되어있고 그 1음보는 4자 씩이다. 매음보의 첫 두자(여보 · 농부 · 얼른 · 술을)는 붙여 발음한다. 이러한 현상은 <20>에서도 확인된다(노자 · 젊어 · 늙어 · 나는).

<19>에서는 두패로 나누어 소리를 받았다고 했는데, 길고 유장한 소리일 경우엔 두패이상으로 쪼개어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2>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음조식은 L1.t4.v1,4,5.이다.

11.2.2 사디소리 <경기 133>

<133>은 화도읍 마석우리 토민인 김덕근(1922년생) 창이다. 호미로 논김매면서 불렀다고 한다. 맥반형식이다. 그는 받음구 “에헤 - 이에-, 에에-, 이어- 라-, 사하 아 아디여-”를 가창할 때 ‘이어- 라.’의 ‘라’를 소리내면서 입을 딱 벌려야 한다고 했다.

메김구 예는 “일년- 열두-, 달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으면, /얼마나 드-나”의 내재 세마디로 쪼개어 볼 수 있다. 썩-소리<132>에서와 같이 각 내재마디의 시작어는 붙여내고 있음을 본다(일년·우리·얼마).

<133>(받)의 음조식은 S1.t4g.v4.이다. (메)의 출현음은 (F)Acde이고 A가 최빈다음이며 A에서 요성한다. A를 쫓대음으로 해석한다면, (메)의 음조식은 I4쫓대.v1이 된다.

사디 내지 사두류는 드문 논맴소리이나, 김포<100, 101>·과천<51>·고양<21, 22>·양주에서도 발견됨을 전술하였다. 이 중에서 남양주시의 <133>과 김포의 것은 ‘사디’형이고 과천과 고양시의 것은 ‘사두’형이다. 양주군 백석면 홍죽2리의 조중희(1924.토민) 창으로 불리운 것은 잣은소리 류에 들며 ‘사도’형이다.

김포시의 가창자 조상연은 <101>이 ‘네꼭지로 넘어간다’고 했음을 전술하였는 바, <133>의 (받)은 네꼭지로 부르기에 적당하다. <133>은 논매기가 힘이드니 힘나게끔 흥겨웁게 사디소리 한번 해보자고 독려하는 노랫말로 되어 있다.

11.2.3 민아리 <경기 134>

민아리는 경상도의 교창식 모노래가 강원도로 북상하여 후렴구가 없는 ‘민짜 아리’라는 의미의 민아리화 하여 지역에 따라 화전밭을 석양판에 맬 때, 또는 논김맬 때나 모심을 때 원용하고 있는 바⁵⁸⁾, 남양주시에서는 조안면 송촌2리에서 논맬 때<134>와 수동면 외방2리에서 화전밭맬 때의 소리(최윤희 창; 석양판에 혼자 부른다고 하였다)로 수집되었다.

조안면 송촌2리와 수동면 외방2리의 인접지역<도 14>인 가평군 상면<4>과 의서면<7>, 양평군 서종면에 모두 민아리가 전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안면의 <134>는 양평군 방면에서 유입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134>의 노랫말은 아래와 같다.

58) 이소라, “모노래, 민아리 및 오독떼기의 비교연구,” 전계서.

- ① 민나리는 -, 사철이요 오-,
장다리느-은, 한철이라 호아”
- ② 매여주게--이에-, 매여- 주소-,
이논자리-,이를- 매여 주소-
- ③ 해다 지고- 우-, 저무-운 날에 -,
웃갓, 하고서- 어디, 이가오-
- ④ 첩의 집이르-헐-, 가사-이, 라면-,
나죽는 풀, -으, -을, 보고가 오-호
-
- ⑤ 첩의 집<은>, 한철이요,
요내 집이느, 사철 일라
- ⑥ 매여 주오-, 매여 주-,
이논 자리를, 매여 주오

①-④는 선율이 채보되어 있으나 ⑤⑥은 가사만 게재되었다. ②⑥은 논맬 때에 부르는 것임을 염두에 둔, 서로 비슷한 가사이다. ⑤는 ①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고로 이를 기초로 ⑤⑥의 노랫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⑤ 첩의 집<은> -, 한철이오-,
요내 집이느-은, 사철 일라 호아
- ⑥ 매여주오--으오-, 매여- 주-- ,
이논자리-, 를-, 매여 주오-

①-④의 2행 가사중 매행의 첫2자는 붙여 발음하는 경향이대(민나·장다·매여·이논·해다·웃갓·첩의·나죽). ②-④의 2행 가사중 각기 제2행의 전반부는 한숨으로 내달으지 않고 그 사이를 끊음으로써 애끊는 듯한 민아리적인 굴곡을 표출한다(②이논자리, 이를/ ③

웃갓, 하고서 / ④나죽는 꼴, -으, -을).

①의 가사는 숙종시대 궁녀출신에서 한 때 출세하여 희빈으로서 잠시 영화를 누렸던 장씨를 ‘장다리’(무우·배추 등의 꽃줄기)에 비유하고 숙종의 계비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나 인현왕후로 복원된 민씨를 민나리(미나리)로 비유하여 민요가사화(化)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민아리 지대에서는 주로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 한, 두명이 독창형태로 가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⁵⁹⁾ 가사의 대귀적(對句的)관계가 요청되지 않는다. 경상도 모노래에서라면 ⑤가 “첩의야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요, 연못의 고기는 사시사철”로서 두패로 나누어 대귀적으로 가창되었을 것이다.

<134>에서 ①-④의 선율을 보면, 모두 D1.t1.v1,3.이다. 요성에 있어서는 ③의 경우만 v3.이다. 각기 4행의 선율중 제3행의 시작음(①의 ‘장’ ②의 ‘이’ ③의 ‘웃’ ④의 ‘나’)은 타(①)을 예로들면 ‘민’ ‘사’ ‘한’에 비해 낮아진다.

11.2.4 방아, 우겨리 방해 <경기 135①②④, 136~139, 140③, 141①, 142①> 등 방아소리는 상사소리와 함께 남양주시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이다.

계재한 것은 조안면 송촌2리<135①②④>, 진건읍 송능2리<136>, 수동면 운수2리<137>, 평내동<138, 142①>, 수동면 외방2리<139>, 별내면 청학리<140③>, 와부면 출신 구완서 창<141①>이다.

남양주시의 논맴소리 취재 읍면 중에서는 화도읍과 진접읍만 빠져있다. 진접읍 장현리의 가창자 남영문은 논맴 때의 소리 예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비슷한 것을 불러보였으나 서툴렀다. 수동면 운수2리의 김봉건은 논맴 때, 경기민요풍의 방아타령도 가창했다고 하였다(素 87-6-12-①B).

별내면 청학리의 남기준(1916.토민)은 ‘방아타령’이나 해여 볍시다 하고는 <140③>을 가창하였는데, (반)A는 방아소리(“에 허리 방아요” “에 이리 방아요”)로, (반)B는 방아타령 류인 ‘우겨라 방아’계통(에헤 에헤 에헤요, 어라 우겨허리 방해로고나)으로 불렀다. 메김소리로는 일반 경기민요곡풍의 방아타령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일반 양산도 곡풍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59) 포천메나리는 이와 다르다.(제3권 참조)

와부읍 덕소2리 회관 취재 때에 방아타령을 상사데이보다 더 많이 불렀다고 했는데, 이때의 방아타령이라 함은 분류상의 방아소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진건읍 송능리의 고경동은 경기민요 방아타령과 비슷한 가락을 알고 있었으나 논맴소리로 부르진 않았다(87-6-12-1A).

별내면 청학리에서는 논김방아타령 유형이 회다질 때 달고소리에 이어 부르는 것으로 찾아진다.

조안면 송촌2리에서는 3종류의 방아소리를 가창하였다. 그 받음구는 다음과 같다.

<135①> : 흥아 - , 흥아 - - , 방 아 요 -

<135②> : 에이 여라 바 앙아 요

<135④> : 에이 여라 방아 요

<135④>는 일반적인 짜른방아에 속한다. <135②>는 <135④>보다 느릿하게 부르니 중거리방아라 할 수 있다. <135①>은 비고정박적(非固定拍的)으로 유장하게 부르나 ‘방아’의 어휘가 분명하게 들어나 있고, 또한 ‘긴방아’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이는 아닌 고로 ‘느린방아’로 일단 분류해 본다. <135④>에서는 메김구가 2음보씩이며 그 1음보는 4자가 많고 3자인 예도 있으나, <135①, ②>는 4음보 씩이다. <135④>의 메김구 중에 “송촌리는 물레방아”가 나와, 송촌리에 물레방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135④>는 D2.t3.v1,3. <135①>은 S2.t1.v1,4,6,8. <135②>의 (받)은 D3.t3(단. 끝을 2도 하행함).v3.의 음조직을 가졌다.

<138>과 <142①>은 모두 평내동에서 녹음된 것이다. 전자는 이천후(1906.토민) 창이고, 후자는 이중휘(1911.토민) 창이다. <138>도 <142①>과 동류의 방아를 가창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둘다 ‘느린방아’에 분류해 본다. <142①>의 메김구 중, “이 돛배는 어서돌고”란 어서돌고 술한잔 먹자는 의미라고 했다. 둘다 S1쫓대.t4의 음조직이다. 요성에 있어서는 <138>이 v1,4,5,6. 임에 비해 <142①>은 v1,2,4,5. 이다.

<137>은 짜른방아이며, <136, 139>는 중거리방아이다. 음조직은 <137>이 S2.t4.v1,8. <136>은 S1.t5.v5. <139>최윤홍 창의 (받)은 S4.t5g.v1,4,5. 이며 그 (메)의 구성음은 도레미솔

라시 로서 높은 도 대신에 반음 낮은 시로 대체하고 있다. 그 요성은 레와 미에 나타나 있다. <137>의 메김구 중에 “혼자 짙는 생코방아”란 넘어져 땅에다 코방아를 짙은 것을 형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41①>의 받음구는 “어- 허- , 어허 - 어어 - 어 - , 방아- 요 - ”이다. 음조식은 D4.t1.v1,3.이다. ‘느린방아’에다 분류한다.⁶⁰⁾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 수집의 방아류 중에서 <135①, 138, 141①, 142①>은 느린방아에, <135②, 136, 139>는 중거리방아, <135④, 137>은 짙은방아에 분류된다.

11.2.5 상사 <경기 141②, 142②, 143~146>

남양주시에서 논맴 때의 상사소리를 게재한 곳은 와부면<141②>, 평내동<142②>, 진건읍 송능리<143>, 화도읍의 마석우리와 금남리<144>, 진접읍 장현리<145> 및 수동면 운수리<146> 이다.

진건읍 송능리의 고경동(1918.송능2리에서 출생하여 1936년까지 살다가 서울로 갔으며 1972년경에 다시 귀향함)은 상사를 50년전의 논맴소리라 하고, 60년전의 논매기로는 “에이여라 방아요”를 불렀다. 1987년도에 녹음하였으니, 1927년경부터 그가 고향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논맴 때 상사소리를 부르지 않고 방아소리만 불렀다가 아마도 그가 고향을 떠났던 1936,7년경에 상사소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가 년대를 자신있게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남양주시의 받음구 예는 “어털 렬렬 상사디야”<141②>, “얼 렬렬 상사 도야”<146>, “엘 널널 상사 디여”<144>, “에엘 널널 사양사 디야”<142②>, “에 널널 사양사 도야”<143>, “에 널널 상사 뒤야”<143>, “넬 널널 상사 두야”<145>이다.

‘얼렬렬’형과 ‘에널널’형이 반반으로 나타난다.

메김구 예로는 “임을 그리는 상사로고나” “상사소리가 처량두 허다” “육칠월이 돌아를 오면/ 노름치기가 일사(日事)로다” “팔월이라 한가위날/ 학산 위에 달맞이 가고” “술이 삼잔 상

60) 구완서(1934년생)는 와부면에서 1954년까지 살다가 양평군 양서면 모곡리로 이주하였으며, 모곡리에서도 <141>을 불러보았다고 하나, 그 무렵이면 두레 논매기가 점점 사라져갈 시기이므로 <141①>과 같은 유장한 소리를 잠시 듣고 1989년에 기억해낼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아, 와부면에서 자라면서 배워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와부면의 소리로 게재하였다.

급일래” 등등이 있다.

음조식은 <141②>(받)이 D1.t3g. <142②>(받)의 출현음은 (솔라)도레미. 솔라는 1회만 나타나며 짧은 음가로 쓰인다. 도에서 종지한다. <142②>(메)는 L1쫄대.v3,5. 이다. <143>은 M4+(D4).t1. 요성은 D4에서는 v3. M4에서는 v3,4. 이다. <144>의 김덕근 창에서는 (받)해당부분이 S3.t4.v1. 이며 (메)는 D1.이다. <145>는 S3.t4.v1. <146>은 S1.t4.이다.

11.2.6 우야소리 <경기 147>, 기타 <경기 148>

<147>은 진접읍 장현리에서 상사소리에 이어 부르는 논맴소리이다. 받음구는 “우야 훨훨”이며 메김구는 새(鳥)를 주제로 한다. “아랫녘새 웃녘새야”는 우야소리 곡에서 애용하는 가사이다. 녹두새도 그러하지만, <147>에서는 일반적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대신에 “천지가불 녹두새야”로, “녹두낭게 앉지마라” 대신에 “청포밭에 앉지마라”로 노래한다. 음조식은 S4.t5.이다.

진건읍 송능2리의 고경동은 논매고 논둑으로 나가기 전에 에워쌀 때 우야훨훨을 1회 부르다고 한 반면에, 수동면 운수2리의 김봉근은 우야소리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주군도 우야소리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포천군 소흘면이나 의정부시, 서울의 노원구, 구리시 등지에 모두 전파되어 있는 관계로 진건읍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고, 진접읍 장현리에서는 전승상태가 반듯한 맥받형식의 우야소리가 발견되는 듯 하다.

달고 끝에 우야소리를 부르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별내면 청학리·수동면 운수2리·조안면 송촌2리·진건읍 송능2리 이다.

<148>은 화도읍 차산리의 토민인 유덕근(1922년생)이 논매고 쉼 참에 낚두리로 하던 소리이다. 음조식은 S1.v1.이다.

11.3 남양주시 논맴소리의 성격

남양주시 지역의 논맴소리에는 싸소리, 사디소리, 민아리, 방아, 상사, 우야소리가 있고 그 밖에 우겨라 방아나 일반 경기민요곡풍의 방아타령 류가 흔적을 남긴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논맴소리는 방아소리와 상사소리이다. 상사소리는 방아소리보다

뒤에 들어왔다거나(진진읍 송능2리) 또는 상사보다는 방아를 더 많이 불렀다(와부읍 덕소리)는 제보가 있다.

김포·고양·안양·화성시에서 왕성한 기세를 보이며 동쪽으로 흐르던 몬돌소리의 물결은 구리시까지만 밀려오고 남양주시에는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드문노래에 속하는 싸소리·사디소리가 발견됨은 중부경기도적인 성격의 표출이다, 방아타령 류가 흔적을 남기면서도 논김방아타령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중부경기도권 전파의 한계지역임을 말해 준다. 맥받형식의 우야소리가 온전히 전해져 있는 것은 가평군·양평군 등 동부경기도와의 차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아리가 전해져 있고 방아소리가 주된 논맴소리로 불리움은 동부경기도와의 교섭을 나타낸다. 상사류는 ‘얼렷렷’형과 보다 경기도적인 ‘에넬넬’형이 반반씩 나온다. 선법에 있어서도 중부경기도적인 술선법(S1.S1꺾대.S2.S4 등)·라선법(L1.L1꺾대.L4꺾대 등)과, 보다 동부경기도적인 도선법(D1.D2.D3.D4)·미선법(M4)이 공존한다.

중부경기도소리인 열소리 형의 하나류 모심는소리가 전해져 있고, 회다질 때 달고소리에 이어 방아타령류와 우야소리가 불리우는 것은 중부경기도적인 특색이다. 회다지기에 앞서 ‘군방네’를 3회 찾는 예도 볼 수 있다. 저리소 또는 호리소로 논밭갈이를 하고 드무나마 저리소모는 소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논맴소리에 나타나는 남양주시의 문화권적 성격은 중부경기도권의 변두리지역(marginal culture)에 위치하면서, 동부경기도권의 영향이 공존하는 지대라 할 수 있다.

<경기 132>

좌 소리(논맴)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2리

김봉건(1919.남.토민) 창
素 87-6-12-1B

♩ = 150

(받)

혜
혜
혜
혜
위
여
위
좌
여
보
시
요
농
부
님
네
얼
르
른
매
고
술
을
먹
세

* 위 - 좌 - 는 개구리 쫓는 소리

<경기 133>

사디(논맴)

남양주시
화도면 마석2리

김덕근(1922.남.토민) 창
89-5-11A

"여보시오 동관님네, 힘이 드니
우리 사디 한번 합시다 -"

♩ = 150

(발)

에 헤 이 에
에 -
이 여 - 라
사 하 아 아 디 여 -

- (메)
- 여보시오 동관님네
 흥겨운 소리 허여 보세
 - 우리 인간에 한번 태면
 농사 밖에 또 있느냐

(메)

일 년 열 두 - - 달 인 데 -
우리가 이 령 계 - 힘이 들 으 면

〈경기 134〉

민아리(논맹)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윤문섭(1929.남.토민) 창
87-6-12-1B

♩ = 150

①

민 나 리 - 는 - - - - -

사 - 처 - 열 이 요 오 - - - - -

장 다 - 리 - 느 - - - - - 은

한 철 이 - 라 흐 아

②

매 여 주 게 - - 이 - 에 - - -

매 여 - - 주 소 - - -

이 는 자 리 - 이 를 - - -

매여 - 주 소 -

③ 해 다 지고 - - 우 - - - -

저 무 - 운 날에 -

옷 갓 - 하고 - 서 -

어 디 이 가 오 -

④ 첩 의 집 이 르 - - 허 - - -

가 시 - 이 - 라 - 면 -

나 죽는 꼴 - - 으 - - 을

보고 가 - 오 호

- ㉟ ○ 첩의 집엔 한철이오
요내 집이는 사철일라
- ㊸ ○ 매여주오 - 매여주
이 논자리를 매여주오

<경기 135>

1. 느린 방아
2. 중거리 방아
3. 우야(논맴)
4. 짜른 방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매) 윤용섭(1925.남.토민)
(밭) 윤문섭(1929.남.토민)
素 86-6-12-1B

1. ♩ = 150

(밭)

홍 아 - 홍 아 - - -
방 아 요 - -

(매)

저 무 운 날 에 -

웃 - 가 - - - 사 하 고 어 털 가 오

- (매)
- 이 논자리를 매어주면
술도 있고 밥도 있으
 - 기다리고 못할 인생
어느 때나 만나 보나
 - 오래기는 오래 놓고
문을 걸고 잠만 자오

2. ♩ = 34-46

(밭)

에 이 여 라 바 - 앙 아 요 -

*(매)는 느린방아의 그것과 동류.

3.

(반) 

위 아 윙 윙

(메) 

새 야 새 야 파 랑 새 야

(메) ○ 녹두 밭에 앉지 마오

(메) 

녹 두 밭 에 앉 구 보 면

(반) 

위 야 윙 윙

(메) 

녹 두 꽃 이 멀 어 진 다

- (메) ○ 녹두 꽃이 멀어지면
○ 청포 장사 울고 가오
○ 윙윙도 다 가고야
○ 위야 윙윙

4. ♩. = 55

(메) 

에 이 여 라 방 - 아 요

(발) 에 이 여 - 라 방 - 아 요

(메) 경 기도 라 이 천 에 는

(발) 에 이 여 - 라 방 - 아 요 -

(메) 자 채 쌀 - 두 많 - 건 만 (발)

(메) 구 년 농 - 구 사 기 방 아 (발)

(메) 송 촌 리 는 물 레 방 - 아 (발)

(메) 에 이 여 라 방 아 요 (발)

〈경기 136〉

중거리 방아(논맴)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고경동(1918.남. 송능2리 출생.
19세부터 서울에서 37년간
거주 후 송능2리 재입주) 창
87-6-12-1A

♩ = 150

(발) 

에 이 여 - 라 - 방 하 하 - 요 호 -

(매) 

국 태 민 - 안 - 시 화 가 년 풍

(매) ○ 풍년이 년년이 온다
○ 년년이 돌아온다

* 논둑으로 나가기 전 에워쌀 때 "우야윽윽"을 1회 부른다

〈경기 137〉

방아(논맴)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2리

김봉건(1919.남.토민) 창
87-6-12-1B

- (매) ○ 산에 올라 산진 방아
○ 들에 내려 팔방아야
○ 물에 청청 물레방아

♩ = 50

(발) 

에 이 여 - 라 방 아 - 요

(매) 

혼 자 쟁 는 생 코 - 방 아

<경기 138>

방아(논맬)

남양주시
평내동

이천후(1906.남.토민) 창
89-5-11B

"어 - , 군밤남네 - ,
우리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던
방아타령을 한마디 해봅세"

♩ = 150

(발)

에 이 -

(조)

요 - 라 -

방 아 하 아 - 요

(매) ○ 방아 방아 물방아야

(매)

김 포 -- 퉁진 은 -

밀 - 다 리 방 - - 아

〈경기 139〉

방아(논맴)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2리

(매) 최윤홍(1921.남.토민)
(반) 화도면 토민(김덕근, 장경산)
89-5-11A

♩ = 150



에 히 여 라 - 방 아 요 호 호

(매) ○ 우리 농부 논맴은 종지 오늘날도 일일세



힘 이 이 - 드 으 을 면 술 도 - 락 지

- (매) ○ 배가 고프 밥도 줌세
○ 에이여라 방아 아아요
○ 사람은 많아두 소리는 적소
○ 우렁차게 힘을 주어
방아 소리 받아 보세
○ 에여라 방아 요호
○ 한명이 두명이 호미 밭을
힘을 쥐서 파 밍시다
○ 에여라 방아 요호호호
○ 그러던 그렇지 <별> 수 있나
○ 이는 자리를 얼른 매고
저는 자리 건너 가세
○ 에여라 방아 요호호호
○ 오늘날두 해는 석양때가 다 되었는데
주인 집에서 술두 아니 주더란 말이오
○ 먹구 파세 쉬워 파세
힘이 풀면 쉬어 허지
○ 에히여라 방아 요호호
○ 산에 올라 산진 방아
○ 골루 내려 물방아알세
○ 해 히여라 방아 요호호

<경기 140>

1. 상사
2. 우야
3. 방아, 우겨리방해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남기준(1916.남.토민) 창
89-5-11B

1. ♩. = 63~67

(메) ○ 먼데 사람은 들기 좋고
○ 가까운데 사람은 보기 좋게

(받)

별 별 별 사 앙 사 도 야

(메)

상 사 부 사 가 동 지 사 로 다

(메) ○ 산도 설고 물도나 선데

2. ♩. = 60~66

(받)

우 야 윙 윙

(메)

새 가 새 가 날 아 를 든 다

은 갓 잡 새 가 날 아 를 드 네

- (매) ○ 새야 새야 온갖 새야
 녹두 밭에 안지 마라
 ○ 청포 장사가 울고 간다

3. *참고용

넉두리(노래가락곡풍):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야
 농사책이 또 있는가
 눈을 매고 밭을 맨 식이 다부오니
 방아타령이나 해여 봅시다"

"좋아요 - "

일반 경기민요곡풍 (매) ○ 에어타 지열구나
 반백이 남아서 다 늙었으니
 다시 젊지를 옛타 나는 못허리로고나
 옛-다 지여쿠나
 치악산 꼭대기 동녘대 울고
 신선이 모여서 장기 바둑만 덩기 명실 둔다

(받A) 에 허리 방아요

양산도곡풍 (매) ○ 산천에 초목은 푸르르만 가는데 이에
 사람의 인간은 늙어 간다

(받) 에 이리 방아요

일반 경기민요곡풍 (매) ○ 에용 데헤용 어허어 야야야야
 어라 우겨리 방해로고나
 일락은 서산에 해는쪽 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저기 저달이 막 솟아 온다

양산도곡풍
 헤-헤- 헤 헤 요오오
 에-이라 놓아라 나는 못 놓겠네

(받B) 에헤 에헤 에헤요
 어라 우겨허리 방해로고나

(매) ○ 옛-타 지여쿠나
 산도 설고 물도나 설어
 어느길 바래고 옛타 내가 여기를 왔나

(받) 에 헤 에 헤 요오오
 어라 우겨리 방해로고나

<경기 141>

1. 방아(호미)

2. 상사

남양주군 와부면
양평군 양서면 모팍리

구완서(1934.남. 와부면 출생.
21세까지 살다 6.25사변 후
모팍리 이주) 창
89-5-9A

— 모팍리에서 불러보았다고 함 —

1.

♩ = 150

(받)

어 허 어 허

*설음은 이하 반음정 올라갔음. '어'를 내림_a로 내었기 때문임.

어 - 어 -

방 아 - - 요 - -

2.

♩ = 57

(받)

어 릴 릴 릴 상 사 디 야

<경기 142>

1. 방아(논맴)

2. 상사

남양주시
평내동

이중휘(1911.남.토민) 창
89-5-11B

— 호미로 논맴다. 여럿이 논맴 때, 앞똥배가 나가서 이렇게 들면,
똥배 돌아 산다. 똥그렇게 산다. 저사람이 세쪽 찍어나가면
나도 세쪽 찍어나가야 한다 —

1.

♩ = 150

(받)

에 이 오 - 오 - 라 아 -

방 애 - - - - - 요

(매) 이 돛 배 - - - - - 라

어 서 - - - - - 돌 - - - - - 고

(받) 애 이 - - - - -

오 - - - - - 오 - - - - - 라 - -

방 - - - - - 애 - - - - - 오

(매) ○ (이 돛배를 어서 마치구)
두 돛배로 돌아가세

2.

♩. = 46~60

(받)

에 엘 넬 넬 사 앙 사 디 야

(매)

이 상 사 - 가 원 - 상 사 - 나

입 을 그 리 는 상 사 로 고 나

Detailed description: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traditional Korean song. It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12/8 time signature. The tempo is marked as ♩. = 46~60.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under the notes. The first staff is marked '(받)' and the second '(매)'. The lyrics are: '에 엘 넬 넬 사 앙 사 디 야', '이 상 사 - 가 원 - 상 사 - 나', and '입 을 그 리 는 상 사 로 고 나'. There are some musical ornaments like a 'p' (piano) marking and a 'z' (zong) marking above the notes.

<경기 143>

상사(논맴)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고경동(1918.남.송능2리 출신) 창
87-6-12-1A

♩. = 40

(메) α

에 넬 넬 상 사 뒤 - 야

(받)

에 넬 넬 상 사 도 - 야

(메)

상 사 소- 리 가 처 럼 두 허 - 다

(받)

에 넬 넬 사 앙 사 도 - 야

(메)

육 칠 월 이 들 아 를 오 - 면

(메) ○ 노름 치기가 일사로다

〈경기 144〉

상사(논맹)

남양주시
화도읍

(매)김덕근(1922.남.마석우리 토민)
(반)장경산(1917.남.금남리 토민)
89-5-11A

♩. = 60-67

(매) α

엘 널 널 상 사 디 여

- (매)
- 울다 인제 되었구나
 - 백년 허구두 잘두 합시다
 - 허월 뿔뿔 상사 디여
 - 무정 허구두 야속 허계
 - 세월 네월이 오고 가기는 쉬워도

(매)

한 번 가 며 는 못 오 리 - 라

- (매)
- 엘 뿔뿔 상사 디야
 - 가자 가자 어서 가자
 - 팔월 이라 한가위 날
 - 학산 위에 달맞이 가고
 - 뒷강 풀송에 달맞이 가세
 - 엘 널널 상사 디야

<경기 145>

상사(논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남영문 창
87-6-12-1A

♩. = 46

(반)

넬 - - 넬 넬 상 - 사 두 야

(매)

노 자 - 노 자 젊 어 만 노 자

(매) ○ 늙어 지면 못노리라

<경기 146>

상사(논맬)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2리

김봉건(1919.남.토민) 창
87-6-12-1B

♩. = 46

(반)

얼 - 렬 렬 상 - 사 도 야

- (매) ○ 상사 소리를 영 잘 허면
○ 술이 삼잔 상급일래
○ 무슨 술로다 상급을 즐까
○ 산에 올라 산진 방아
○ 삼년 석달 찬이루며
○ 석달 열흘은 택일 주라

(매)

모 조 막 걸 리 상 을 줌 세

<경기 147>

우야윽윽(논맹)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남영문 창
87-6-12-1A

♩. = 75

(받)

우 야 윽 윽

(메) (받)

아 랫 - 녁 새 웃 녁 새 야

(메) ○ 천지가불 녹두새야

(메) (받)

청 포 밭 에 앉 지 마 라

<경기 148>

실참소리

— 논매고 실 때에 부르던 낫두리 —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유덕근(1922.남.토민) 창
89-5-11A

♩ = 150

놀 다 가 죽 어 - 도 - -

원 통 현 데 - 요 오 -

일 만 혀 다 가 죽 으 - 면

아 하나어 쨌 나 혀 나 요 - -

쉬 세 쉬 어 서 우리 한 잔 먹 구 하 세 -

여 백

■ 그림차례

<도 1> 경기도 관할 약도	20
<도 2> 가평군의 논맴소리 녹음지역	23
<도 3> 고양군 녹음지역	59
<도 4> 대화리의 벼씨 출토지역	60
<도 5> 과천시 녹음지역	122
<도 6> 과천시와 양재천·안양천	125
<도 7> 광명시의 행정구역과 학운동의 위치	158
<도 8> 광주군의 행정구역과 녹음지역	173
<도 9> 廣州郡 古圖(英祖때)	174
<도 10> 구리시의 행정구역과 녹음지역	206
<도 11> 군포시 민요 녹음지역	223
<도 12> 김포군의 민요 녹음지역	241
<도 13> 2002년 현재의 김포시 행정구역	241
<도 14> 남양주시의 녹음지역	295
<도 15> 남양주시의 산세	296

■ 표차례

<표 1> 경기도 논맴소리의 게재지역과 가창자 (1)	15
<표 2> 이만환 창 의 민아리<2>와 그러믄싸 곡<1>의 (메)A선율	27
<표 3> 고양군 논맴소리에서 모갑이의 서두풀이	62
<표 4> 고양시 논맴소리중 헤이리 류	63
<표 5> 광명시 학운동 아방리 논맴소리의 받음구예	160
<표 6> 광주군 조사마을의 논맴소리 종류	175
<표 7> 구리시 논김방아타령의 받음구예	207
<표 8> 둔대형 논맴소리의 노랫말	224
<표 9> 김포시의 니나노 류 받음구 예	245
<표 10> 김포시 상사소리의 받음구 예와 음조직	248
<표 11> 김포시 몸돌소리의 받음구 예	249

■ 악보차례

• 가평군 <경기 1~18>

<경기 1> 그러든 싸(논맴)	이만환,장석현,박윤준(가평읍 금대리)	30
<경기 2> 민아리	이만환,장석현,박윤준(가평읍 금대리)	36
<경기 3> 민아리	장석만(가평읍 산유리)	39
<경기 4> 민아리(발김, 논김)	남상만,성주필(상면 임초리)	40
<경기 5> 민아리	박원식(하면 신상리, 하판리)	41
<경기 6> 민아리(발김, 논김)	원호석(하면 대보리)	42
<경기 7> 민아리(논맴, 발맴)	이지수(외서면 하천1리)	43
<경기 8> 방아(논맴)	장석만,김종업,박종원,장동인(가평읍 산유리)	43
<경기 9> 방아(논맴)	이만환(가평읍 금대리)	44
<경기 10> 방아(논맴)	김갑선(북면 목동2리)	45
<경기 11> 방아(논맴)	성주필,김귀현,남상만,염종해,안수덕,안무승 (상면 임초리)	46
<경기 12> 방아(애벌매기)	이유수(외서면 하천1리)	47
<경기 13> 드레소리(방아)	전계덕(외서면 청평리, 설악면 신천리)	47
<경기 14> 논맴소리	원호석,이창복,이봉안(하면 대보리)	48
<경기 15> 상사데야(논맴)	성주필,김귀현(상면 임초리)	50
<경기 16> 어럴럴 상사(논맴)	전계덕(외서면 청평리, 설악면 신천리)	51
<경기 17> 1.자진 방아, 2.치나 칭칭	이복규(가평읍 마장리, 북면 목동1리)	52
<경기 18> 두레타령(애벌매기)	장석만(가평읍 산유리)	53

• 고양시 <경기 19~50>

<경기 19> 논맴 긴소리	김현규,김형진,김형호,김호권,김선규(송포면 대화리) .	70
<경기 20> 긴소리(수아)	이천봉(원당읍 식사3리)	73
<경기 21> 사두여	김현규,김형호,김형진,김호권,김선규(송포면 대화리) .	75
<경기 22> 사두소리(논맴)	김사남(송포면 법곶리)	77
<경기 23> 논김 양산도(고양형)	호미걸이 보존회(고양시)	79

<경기 24> 논김 양산도(고양형)	김현규(송포면)	80
<경기 25> 논김 양산도	김현규(송포면)	81
<경기 26> 논김 양산도	이천봉,이금만(원당읍 식사3리)	83
<경기 27> 논김 양산도	신천희,이원희(벽제읍 성석1리)	84
<경기 28> 논김 방아타령	최창성(신도읍 지축1리)	85
<경기 29> 논김 방아타령	조영용(화전읍 현천3리)	86
<경기 30> 1.우겨루 방아		
2.논김 방아타령	이금만(원당읍 식사3리)	88
<경기 31> 논맴소리	김성배(일산읍 일산7리)	90
<경기 32> 우겨라 방아(논맴)	이창하,임순선(일산읍 산황리)	92
<경기 33> 우겨라 방아	김사남(송포면 법곶리)	94
<경기 34> 니나누 방아	김현규,김선규(송포면 대화리)	96
<경기 35> 니나누 방아(호미질)	신천희,이원희(벽제읍 성석1리 진밭)	99
<경기 36> 떴다	김현규,김형호,김형진,김호권,김선규(송포면 대화리)	100
<경기 37> 떴다	신천희,이원희(벽제읍 성석1리 진밭)	103
<경기 38> 떴다 류(논맴)	김사남(송포면 법곶리)	104
<경기 39> 1.떴다		
2.넬넬넬 상사	조영용(화전읍)	105
<경기 40> 놀노리	김현규,김형호,김형진,김호권,김선규(송포면 대화리)	106
<경기 41> 자진놀노리	김현규,김호권,김형호,김형진,김선규(송포면 대화리)	108
<경기 42> 홀호리(논맴)	신천희,이원희(고양시 벽제동)	110
<경기 43> 1.논맴 긴소리		
2.네엘넬넬상사		
3.휠러리소리		
4.우야소리		
5.몸돌	김사남(송포면 법곶리)	111
<경기 44> 네홀래야산타령	최창성(신도읍 지축1리)	114
<경기 45> 상사도야	김현규,김형호,김형진,김호권,김선규(송포면 대화리)	115
<경기 46> 우야휠휠	김현규,김형호,김형진,김호권,김선규(송포면 대화리)	116

<경기 47> 몸둘러	김현규, 김형호, 김형진, 김호권, 김선규(송포면 대화리)	117
<경기 48> 1.엘넛넛 상사		
2.우야 훨훨		
3.몬돌	신천희(벽계읍 성석1리 진밭)	118
<경기 49> 1.엘넛넛 상사		
2.우야소리		
3.몸돌	이금만(원당읍 식사3리)	119
<경기 50> 1.느린 상사		
2.짚은 상사		
3.몸돌		
4.우야	최창성(신도읍 지축1리)	120
• 과천시 <경기 51~67>		
<경기 51> 사두 소리	손효목(막계동)	131
<경기 52> 방아 소리	손효목(막계동)	133
<경기 53> 방아소리	박정식, 이승재(과천7통)	135
<경기 54> 방아소리(호미)	정세준(관문동)	136
<경기 55> 방아타령	박정식(과천7통)	137
<경기 56> 예기나 방애 (논흙치는 소리)	정세준(관문동)	139
<경기 57> 논김 소리 I	고경남(문원동)	142
<경기 58> 방아 타령	김수원(관문동)	144
<경기 59> 논김 소리 II	고경남(문원동)	145
<경기 60> 논김 소리 III	고경남(문원동)	149
<경기 61> 엘넛넛 상사두야	고경남(문원동)	150
<경기 62> 에헬렐넛 상사도야	박정식, 이승재(과천동)	151
<경기 63> 에레렐렐 상사디아	정세준(관문동)	152
<경기 64> 우후야라 훨훨	고경남(문원동)	153
<경기 65> 우야훨훨	손효목(막계동)	154

<경기 66> 문들이요	손효목(막계동)	155
<경기 67> 문들소리	박정식, 이승재(과천동)	156
• 광명시 <경기 68~71>		
<경기 68> 논김 양산도	양주만(학온동)	164
<경기 69> 방아(논맴)	양주완, 양주만(노온사동(학온동))	166
<경기 70> 상사(논맴)	양주완, 양주만(노온사동(학온동))	167
<경기 71> 문들	양주완, 양주만(노온사동(학온동))	168
• 광주군 <경기 72~89>		
<경기 72> 1.애벌매기		
2.두벌매기	곽금석, 김순봉(도척면 노곡리)	183
<경기 73> 1.오호이야 네헤요		
2.요호이 에헤야	신문창(오포면 양벌리)	185
<경기 74> 네헤 호야	권인수(실촌면 수양1리)	186
<경기 75> 오힐 네헤호야	조충삼(퇴촌면 광동리1구)	187
<경기 76> 1.둘레		
2.오하 오일(호미)	엄기학(초월면 지월1리)	189
<경기 77> 1.방아(호미)		
2.둘레(논흙침)	김대천(광주읍 태전리)	190
<경기 78> 꿩았네	조충삼(퇴촌면 광동1리)	191
<경기 79> 꿩었네	신문창(오포면 양벌리)	192
<경기 80> 꿩었네	이종삼(실촌면)	192
<경기 81> 논맴	김학표(남종면 금사리)	193
<경기 82> 논맴소리	강보석(중부면 광지원리)	194
<경기 83> 논맴(1.방아 2.상사)	황만복(남종면 분원리)	197
<경기 84> 에염짜기(상사)	조충삼, 광동리사람들(퇴촌면 광동리1구)	197
<경기 85> 상사(논맴)	김대천(광주읍 태전리)	198
<경기 86> 위야 네호	신문창(오포면 양벌리)	199
<경기 87> 논맴소리	김쾌복(실촌면 수양리1구)	200

<경기 88> 먼들소리(논맴)	김대천(광주읍 태전리)	200
<경기 89> 1. 짝었네야		
2. 둘레		
3. 상사		
4. 대허리	전만길(오포면 추자리,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	201
• 구리시 <경기 90~97>		
<경기 90> 논김 방아(논맴)	조상길(아치울)	211
<경기 91> 방아타령(논맴)	박한용(갈매동 담터)	212
<경기 92> 1. 논김 방아		
2. 상사		
3. 우후야	강한만(동구동 동창마을)	213
<경기 93> 논맴소리	박문학(교문동 한다리)	215
<경기 94> 논맴		
(1. 노로리 2. 우후야)	박한용(갈매동 담터)	217
<경기 95> 논맴소리	김명수(사노동 두레목골)	218
<경기 96> 우야훤훤	조상길(아치울)	219
<경기 97> 몬돌	조상길(아천동 아치울)	220
• 군포시 <경기 98~101>		
<경기 98> 방아(호미)	심상곤, 심명섭, 김용학, 김홍필, 김효동(둔대동)	229
<경기 99> 방아(논맴)	주점식, 변재천(부곡동)	231
<경기 100> 논흙치는 소리	심상곤, 심명섭, 김용학, 김홍필, 김효동(둔대동)	232
<경기 101> 상사(논맴)	주점식, 변재천(부곡동)	236
• 김포시 <경기 102~131>		
<경기 102> 사디소리	조남창(통진면 서암5리)	252
<경기 103> 사디소리	조상연(통진면 서암리 구삿)	253
<경기 104> 긴방아	조계환, 한규성(대곶면 약암1리)	254

<경기 105> 느린방아	정만길(양촌면 누산리)	256
<경기 106> 느린방아	윤실봉(월곶면 군하리3구)	258
<경기 107> 짜른방아	민병환(하성면 마조리)	260
<경기 108> 방아(논맴)	최병익(통진면 서암1리)	261
<경기 109> 방아타령	유근택(김포읍 사우리)	262
<경기 110> 방아타령	이선화,이은하(월곶면 고양1리)	264
<경기 111> 방아타령	정만길(양촌면 누산리)	265
<경기 112> 방아타령(논맴)	조계환,한규상,서영석(대곶면 약암1리)	267
<경기 113> 방아타령	최병익(통진면 서암1리 바우모루)	269
<경기 114> 1.방아타령(논맴)		
2.에넬넬 상사	윤실봉(월곶면 군하3리)	271
<경기 115> 1.방아소리		
2.방아타령		
3.에일넬넬 상사		
4.몸돌	심기득(인천시 백석동,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	273
<경기 116> 1.방아소리		
2.엘넬넬 상사		
3.문돌	이은하(월곶면 고양1리 능골)	275
<경기 117> 에헬넬넬 상사디야	민병환(하성면 마조리)	276
<경기 118> 에넬넬 상사테야	정만길(양촌면 누산리)	277
<경기 119> 엘넬넬 상사	장복동(검단면 마전리)	278
<경기 120> 넬넬넬 상사(논맴)	홍인환(하성면 하사리)	279
<경기 121> 엘넬넬 상사	장재순(고촌면 신곡6리 은행정)	280
<경기 122> 얼릴릴 상사	장복동,서재준(검단면 마전리)	281
<경기 123> 에헤넬넬 상사		
(논맴, 회방아)	조계환,한규상,서영석(대곶면 약암1리)	282
<경기 124> 어릴릴릴 상사도야	유근택(김포읍)	283
<경기 125> 1.넬넬넬 상사		
2.문돌	최병익(통진면 서암1리)	284

<경기 126> 몸돌	민병환(하성면 마조리)	284
<경기 127> 몸돌	홍인환,남궁백 등(하성면 하사리)	285
<경기 128> 몸돌소리	유근택(김포읍)	286
<경기 129> 몸돌소리	정만길(양촌면 누산리)	287
<경기 130> 몸돌	조계환,서영석,한규상(대곶면 약암1리)	289
<경기 131> 몸돌소리	윤실봉,윤덕현(김포군)	290
• 남양주시 <경기 132~148>		
<경기 132> 쇠 소리(논맴)	김봉건(수동면 운수2리)	305
<경기 133> 사디(논맴)	김덕근(화도면 마석2리)	306
<경기 134> 민아리(논맴)	윤문섭(조안면 송촌2리)	308
<경기 135> 1.느린 방아		
2.중거리 방아		
3.우야(논맴)		
4.짜른 방아	윤용섭,윤문섭(조안면 송촌2리)	311
<경기 136> 중거리 방아(논맴)	고경동(진건면 송능2리)	314
<경기 137> 방아(논맴)	김봉건(수동면 운수2리)	314
<경기 138> 방아(논맴)	이천후(평내동)	315
<경기 139> 방아(논맴)	최윤희,김덕근,장경산(수동면 외방2리)	316
<경기 140> 1.상사		
2.우야		
3.방아, 우거리방해	남기준(별내면 청학리)	317
<경기 141> 1.방아(호미)		
2.상사	구완서(와부면, 양평군 양서면 모곡리)	319
<경기 142> 1.방아(논맴)		
2.상사	이중휘(평내동)	320
<경기 143> 상사(논맴)	고경동(진건면 송능2리)	323
<경기 144> 상사(논맴)	김덕근,장경산(화도읍)	324
<경기 145> 상사(논맴)	남영문(진접읍 장현리)	325

<경기 146> 상사(논맬)	김봉건(수동면 운수2리)	325
<경기 147> 우야훤훤(논맬)	남영문(진접읍 장현리)	326
<경기 148> 설참소리	유덕근(화도읍 차산리)	327

■ 집필자 : 이소라 (필명; 素羅. e-mail : ysra@shinbiro.com)

■ 약력

- 경기여고 졸업, 서울법대 졸업, 서울음대 작곡과 2년 수료, 서울음대 대학원 국악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의 박사과정수료
- 문화재청 전문위원 (현)
-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현)

■ 주요 논저

- 『과주 민요論』 『大田 옷다리農樂』 『이리농악』 『漁撈謠모음집』 『韓國의 農謠제1-5집』 『홍성의 노동요』 『양산의 민요』 『함평의 민요』 『담양의 민요』 『상주의 민요』 『부여의 민요』 『대전민요집』 『아침방아 째어라』 『의성의 민요』 『민초의 소리』 『황새야 축새야』 『경기지방의 상부소리』 『경북지방의 상부소리』 『농요의 길을 따라』 『전남지방의 상부소리』 등 26여권
- “亨加, 輯寧, 龍光과 그 關聯曲 (-世祖實錄樂譜, 時用鄉樂譜, 琴合字譜, 大樂後譜를 中心으로-)”
 - “몬돌소리考” “괘장소리류” “민요의 전파와 변환”
 - “모노래, 민아리 및 오독떼기의 비교연구” “논김 양산도 攷”
 - “한국농요의 歌唱方法” “농사와 농요의 관계”
 - “치리섬 別神祭” “거제별신굿” “육지섬 위만제와 들채소리”
 - “동해안별신굿의 드령쟁이장단과 삼오동장단 및 거무장단”
 - “영산회상에 있어서 피리의 숨자리” “전래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 “親子唄(오야코우타)와 慶尙道모노래” “草原牧歌의初探”
 - “日本 빅타社 진도 셋김굿 CD版 해설”
 - “중국 사천성 허씨촌(許氏村)의 민요”
 - “梁祝 故事 및 그 韓中민요의 가사와 선율관계”
 - “北靑 祝歌 미레돈돈類와 納西族 祝歌”

“탄자니아의 음킨도, 험베티 農謠考”

“화성군의 원리 줄다리기” “줄메는 소리의 유형”

“아리랑의 류형과 출처” “지신밟기 음악” “수영야류의 노래 고찰”

“경복궁 타령 고” “경기도의 노동요” “주암댐유역의 민요”

“경기도지역의 모심기, 논매기, 지경땃이노래의 음조직”

“모심는소리의 유형과 그 형식” “민속음악과 예술”

“마뜰농요” “전북 壬寅 三溪農謠” 정신문화원 백과사전 해설 및

포천군지 · 연천군지 · 안양시지 · 안산시지 · 과천시지 · 김포군지 등의 민요, 민속놀이,

세시풍속 집필 등 50여 편이 있음

경기민요 논맴소리 資料叢書 제1권

발행인 송승영

편집인 김태훈

저 자 이소라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전 화 (031)239-1020 FAX 239-3758

인 쇄 2002년 12월 15일

발 행 2002년 12월 20일

본 지는 경기도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비매품)